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와 아트
2014-2015 블록강좌Ⅳ 자료집

우리는
어떻게
지역연구에
접근하고,
잇는가



예술공간 돈키호테

예술공간 돈키호테는 컨템포러리 아트스페이스로 2009년 12월 독립연출가 박해강, 독립큐레이터 이명훈 두 사람에 의해 설립됐다. 돈키호테는 동시대 예술을 연구하면서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는 공간으로 그 동안 노이즈자유즉흥음악, 실험영화, 아티스트 레지던스 등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했다. 또한 돈키호테는 지역기반 예술공간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주소 [540-040] 전남 순천시 금곡길33, 2층

전화 061-754-8013

홈페이지 www.art8013.net

페이스북 [facebook.com/donquixote,artspace](https://www.facebook.com/donquixote,artspace)

이메일 donquixote8013@gmail.com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와 아트
2014-2015 블록강좌Ⅳ 자료집

우리는
어떻게
지역연구에
접근하고,
잇는가

기획 · 편집자 서문

이 강좌의 기획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출발했다.

- ① ‘리서처로서의 예술가’는 예술가들의 창작방식이나 관심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서치 기반의 예술’이 장르적 형식이나 새로움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왜 리서치를 중요한 창작의 행위로 택하게 됐을까?
- ②국내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작업이나 지역의 창작공간이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는 ‘지역’ 또는 ‘공동체’ 담론에서 빠져있는 핵심은 무엇일까? ③예술은 지역연구를 어떻게 접근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④연구(리서치)를 예술 창작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그 경계는 무엇일까?
- ⑤지역연구의 전문연구자들의 방법론과 예술가들의 방법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⑥과연 ‘지역’과 ‘지역연구’에 대한 담론은 언제부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⑦지리학, 역사학, 문화학, 사회학, 정치학 등 학제간 이것의 담론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 ⑧연구자들은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⑨연구자들은 리서치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고 있을까? ⑩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연구의 범위만큼이나 다양한 복잡성을 띤 전문연구분야의 동향 · 방법론 · 과제 그리고 개별 사례를 살펴보고, 문화예술분야의 지역연구자들의 연구의 동기 · 진행과정 · 방법론을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오늘의 예술이 지역연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서로를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자 했던 것이 이번 강좌를 기획한 이유였다.

이 책은 예술공간 돈키호테가 경기문화재단의 2014-2015 <커뮤니티와 아트 블록강좌Ⅳ>파트를 기획하고 지난 2월에 3일간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된 강연과 라운드테이블을 정리한 것이다.

김영정 교수의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에서는 사회학을 통해 ‘지역’의 개념과 ‘지역연구의 흐름’을 비교적 쉽게 정리하고 있다. 그는 지역 간 불균등의 심화와 점점 경화되어 가는 사회 현상을 우려하며,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미학적 접근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자본과 국가의 권력블록을 견제하고 통치하는 제3의 권력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늘의 예술이 자본과 국가의 부름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든다. 예술이 시민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기회가 된다면 심층적으로 다룰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임동근 소장의 <지역연구 방법론>에서는 현대 프랑스 지리학의 계보에 따른 지역조사 방법론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 지리학자 로제 브뤼네가 고안한 ‘코렘(chorem)’의 사례는 지역의 구조와 역동성을 보다 쉽고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흥미를 끈다. 임동근 소장이 발표 자료로 보여준 다수의 코렘 지도들의 사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 책으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코렘이 가지는 ‘단정적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부하고 있는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방법론에 있어 큰 미덕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임동근 소장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설명이 되는’ 지리학적 직관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연구에서 ‘직관’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화두처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날 진행된 강연은 국내 연구사례를 통해 지역연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들의 새마을운동』을 펴낸 **김영미**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점을 잠시 멈춰서게 했다. 70년대 농촌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을 했던 (농민)주체와 (국가)정부가

생각했던 새마을운동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이는 어쩌면 오늘의 마을만들기, 공동체활성화 사업과 같은 주민참여형 공공사업에서, 또는 공공예술, 커뮤니티아트와 같은 예술가참여형 사업에서 겪는 ‘서로 다른’ 관점과 목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동상이몽의 결과 과연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김영미 교수의 다른 책 『동원과 저항』은 해방 후 서울의 주민사회사를 다루고 있는데, 농촌의 새마을운동과 함께 도시 공동체 연구에서 참고할 만하다.

한국전쟁 이후 극장문화와 로컬리티를 조사·연구하고 있는 **위경혜** 교수는 영화의 텍스트-필름 film 중심이 아닌 영화를 보는 관객,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인식되는 시네마 cinema의 관점에서 극장의 문화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도시변화에 따른 극장의 형성과정, 극장의 장소성과 관객의 영화체험, 지역문화원의 역할, 비도시지역에서의 이동영사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사례를 비롯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 강연의 현장성을 활자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지역답사의 사례발표 일부내용을 생략하거나 압축했다. 하지만, 강연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김영미, 위경혜 두 연구자는 역사의 ‘공식기록’이라 칭하는 국가기록의 한계와 오류를 오히려 공식기록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된 민중의 관점으로 ‘다시’ 또는 ‘새로’ 접근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라운드 테이블에서 최재희 연구원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발표와도 연결된다. 또한 김영미가 말하는 ‘주체의 열망’이나 위경혜의 ‘사람들의 심성 mentality’은 김경만 감독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했던 ‘영화의 디테일’과도 이어진다. 그것은 표정으로 드러나고 읽혀지게 마련이다. 이는 역으로, 연구자의 주관과 감정, 감성 ‘따위’가 연구에 개입되는 것을 터부시하기보다는 리서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견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임 소장님 말미에 이야기했던 ‘직관’을 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다섯 분야의 연구자들의 발표 내용과 자유토론을 돌로 나눠서 엮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시간의 제약으로 미처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못했거나 자유토론이 간략하게 끝난 아쉬움이 있다.

대구에서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고 있는 **권상구** 대표는 2001년부터 14년의 과정과 경험을 이야기했다. 지도그리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되었으며, 그로 인해 대구라는 도시의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재발견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었다. 14년이라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권 대표의 발표에서 비슷한 지역거점 연구자로서 공감이 갔던 말이 있었다. “옆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의 깊은 속내의 한마디 말이다. 그의 말에서 웬지 지역에서의 연구나 활동이 무척 ‘외로운 작업’ 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고독’ 을 지역연구자의 숙명처럼 견뎌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찾는 일, 그 희망 없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지역연구자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점과,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역연구자들의 ‘고독사孤獨死’ 를 방지할 만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인력(인재)들이 자신이 성장한 지역을 떠나 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위해 ‘기회가 많을 것 같은’ 중앙-서울로 떠나 버리는, 소위 이농離農현상과 다름없는 ‘이지離地’ 현상의 지속화에 따른 상실감과 무력감이다.

조주연 대표는 디자인 분야에서 리서치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 특히 공공사업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그 원인분석과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목포 외달도 사례를 통해 오늘날 많은 수의 공공사업이 어떻게 지역과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조 대표는 지역연구를 일종의 ‘싸움의 기술’로 전환시킨다. 그는 세상을 기획하는 주체가 자본이라면 자본과 싸워야 하고, 그 주체가 정치라면 그들과도 싸워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런 면에서 ‘정치 리서치 디자인’ 이 제시되고 있다. 정치의 문제가 지역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떠오른다.

이명훈 팀장은 ‘리서치가 된 예술가’ 를 다뤘다.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리서치의

방법론이 예술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리서치 예술 Research Art, 또는 수행적 리서치 Performative Research라고 부를 수 있는 작업 유형과 예술공간 돈키호테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과정으로서의 예술’이 자칫 이도저도 아닌 허접한 예술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예술에서 ‘작가’의 정체성을 따진다. 작가, 업자, 작자미상의 범주에서 결국 작가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결국 작가로서의 직업윤리 내지는 작가주의적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맥락을 통한 작가주의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비평의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현재 공공예술이나 커뮤니티아트가 하향평준화 되어 버리고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원인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 작업이나 예술가를 제대로 비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술영역의 공공예술 또는 공동체예술에 있어 작가주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화감독 **김경만**은 ‘아카이브 푸티지 Archive Footage’를 활용한 다큐멘터리 형식을 소개하면서, 언어로 환원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리서치와 다르게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영화의 디테일’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이 감독이 생각하기에 영화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 국립영화제작소나 한국 정부가 자체 제작한 <대한 뉴스>나 <문화 영화>와 같은 기록필름에서 감독은 내용보다는 필름에 담긴 당시 풍경이나 등장인물의 얼굴과 표정에 주목하고 그 디테일을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그의 영화가 기록필름을 단순히 내레이션이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다큐멘터리와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최재희 연구원은 <기록관리의 흐름과 민주적 비전>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카이브 archive, 아카이빙 archiving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현대 기록관리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기록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1960~70년대에 들어 아래로부터의 역사 운동이 아카이브 영역에 큰 변화를 주었는데, 이때부터 아키비스트들은 정부의 기록이 아닌 사회를 반영하는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정보화 흐름을 타고 전문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가 등장하는데, ‘자기 지역의 아카이브를 스스로 만들어 가자’ 는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 사례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아키비스트는 ‘참여형 아키비스트’ 로, 스스로 참여해 자기 것을 발굴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아키비스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말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불명확한 표현들을 가능한 문맥에 맞춰 교정하려 노력했으나, 일부 난독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화자의 독특한 언어 습관을 최대한 손대지 않음으로써 독자에게 마치 그 사람의 강연과 발표를 듣는 것처럼, 언어의 현장감이 전달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 마디, 천 마디 말과 글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각일 것이다. 그것이 이어지길 바란다.

하나 더 끝으로, 실행 후 느끼는 바지만, 역시 욕심 가득한 10개의 질문들이었다. 하나만 붙들어도 차고 넘치는 것을. 방법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덧붙여, 이번 기획에 응해주신 8명의 연구자분들과 찾아주신 분들, 이번 기획을 후원하고 장소를 제공해주신 경기문화재단에 감사를 전한다.

2015. 7.

박해강 · 이명훈



〈집념의 수집〉, 2013, photo by Donquixote

우리는 어떻게 지역연구에 접근하고, 잇는가

차 례

기획 · 편집서문

첫째날, 지역연구의 이론적 흐름과 과제

강연 1.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 김영정(사회학).....	19
강연 2. 지역연구 방법론 / 임동근(지리학).....	37

둘째날, 국내 지역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 3. 농민의 시선으로 본 새마을운동 / 김영미(국사학).....	75
강연 4. 한국전쟁 이후 극장문화 로컬리티 / 위경혜(영화사).....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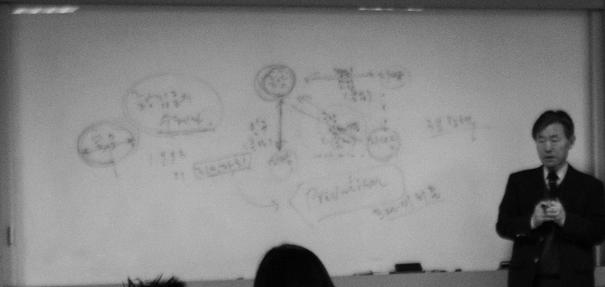
〈예술가의 사진측량〉, 2012, photo by Donquixote

셋째날, 라운드테이블 : 우리는 어떻게 지역연구에 접근하는가?

01. 대구의 재발견, 14년의 과정과 경험 / 권상구(시간과공간연구소).....	157
02. 싸움의 기술 / 조주연(사회적기업티팟).....	177
03. 리서처가 된 예술가 / 이명훈(예술공간돈키호테).....	193
04. 아카이브 푸티지 영화 / 김경만(다큐멘터리).....	213
05. 기록관리의 흐름과 민주적 비전 / 최재희(기록연구원).....	225
 라운드테이블_자유토론(요약).....	 224



경기도 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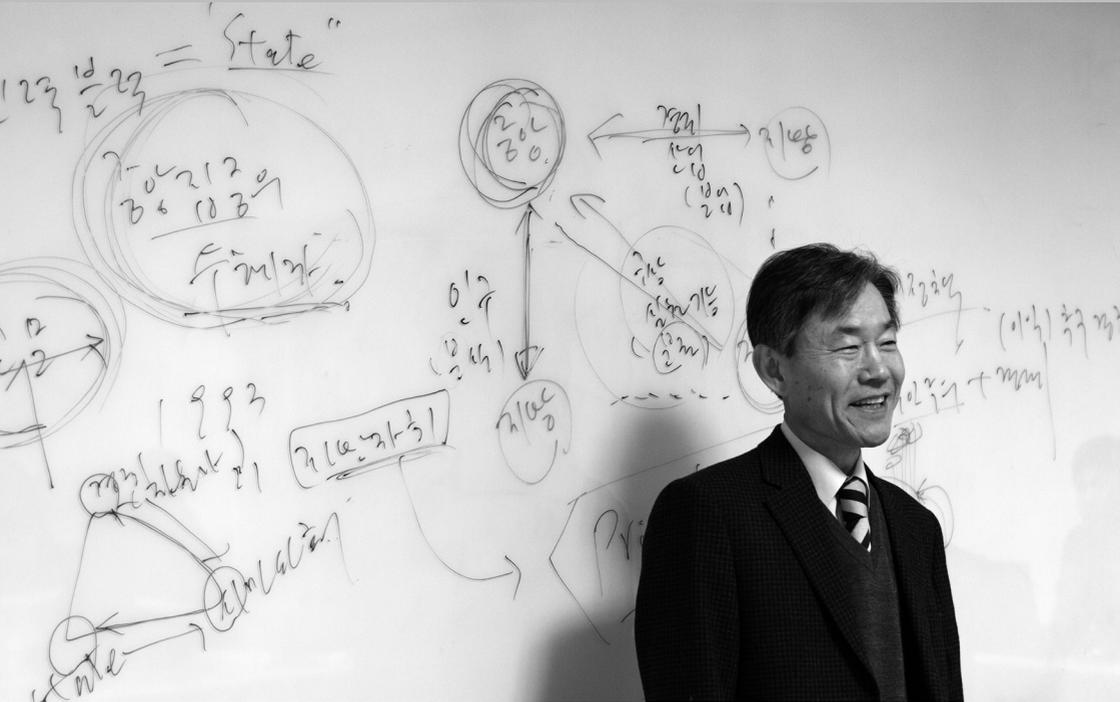


Male lecturer in a dark suit and tie, standing at the front of the classroom.

Students seated at desks in the foreground, viewed from behind. The desks are arranged in rows, and the students are facing the whiteboard.

강연

01. 김영정 사회학 :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02. 임동근 지리학 : 지역연구 방법론
03. 김영미 국사학 : 농민의 시선으로 본 새마을운동
04. 위경혜 영화사 : 한국전쟁 이후 극장문화 로컬리티



김영정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정책협의회 위원, 수도권 정책혁신 민관협의회 위원, 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 지역공동체 형성』(2004),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공저)(2005), 『근대형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 공간, 경제, 문화』(공저)(2006)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학회지를 통해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yjkim@jbnu.ac.kr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⁰¹

반갑습니다. 사회학자가 예술 전공하신 분들께 유익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는지 많은 걱정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박혜강 선생님께서로부터 여러 차례 부탁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사양해 오다가, 강의 내용을 예술 영역과 특별히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회학의 내부에 예술사회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자 중에 ‘내가 예술사회학을 전공한다’고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학자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사회학자들은 기능적 측면에서 예술이 지역사회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01 2015년 2월 12일 김영정 교수의 본 강연은 동명의 논문(김영정,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제15집 1호, 2014)을 기초자료로 해서 진행되었다. 지면의 한계로 본 자료집에는 실지 못했지만, 예술공간 돈키호테 홈페이지(art8013.net)에서 pdf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가져왔습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 또는 현상에 대한 미학적인 해석이 배제된 채 그것을 지역발전의 기능적 측면에서 활용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사회학적 관심은 폭넓게 확산되어 있고 지역사회학의 주요 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술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주한옥마을 개발 초기에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만, 적잖은 예술가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습니다. 예술을 망치고 있다고요. 예술계 내에서도 그런 운동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예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있고, 예술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낮은 사회학자가 전문가 앞에서 강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앞으로 작업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지역현상을 포함한 모든 사회현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응축적-인과적으로 들여다보고 설명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이론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현상의 미세한 측면을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우스운 얘기가 나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많은 사회학적 관점 중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은 특히 정치사회학적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해 설명해 보려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변혁의 과정을 심하게 겪어 온 사회에서 그러한 경향이 대체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70, 80년대 격동의 시기를 거쳐 오면서 한국사회학은 정치사회학적인 거시적 접근을 통해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변혁의 시대가 종결되고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사회학자들은 미시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의 양식에 대한 미시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서구의 학자들은 ‘문신’ 같은 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문신의 사회학 Sociology of Tattoo>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기도 하지요.

그동안 한국의 사회학적 지역연구는 거시적인 정치사회학적 관점의 입장에서 전개되어 온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1920-30년대 성립한 지역연구의 유력한 관점인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70년대까지는 이런 시각이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주된 관점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변혁기를 거치면서 연구 경향은 완전히 바뀝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종주적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들 두 관점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지역사회, 때론 전체 사회)가 두 가지 큰 원리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는 자연생태현상처럼 자유경쟁을 통해 사회가 변화, 발전한다는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영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가 변화한다는 가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생태학적 관점의 중심축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본다고 하는 얘기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치 및 정책방향이나 자본주의 발전의 힘과 경향 등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힘이 크게 작동하지 않은 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입니다. 1920-30년대 미국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에 해당했기 때문에 당시 인간생태학적 관점이 시카고에서 태동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로 60-70년대가 이 단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한국사회의 빠른 도시화, 산업화를 연구의

중심 테마로 삼았던 지역연구(도시 및 농촌사회학)가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의존했던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요. 쉽게 말해 당시 농촌사회가 도시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은 정부 정책이나 자본주의의 힘이 작동한 결과가 아니라 당시 사회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로 보았던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75년 경 도시 대 농촌이 5:5 정도 됩니다. 물론 인구가동 성향은 60년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 도시인구는 더욱 늘어 현재 대체적으로 87:13 정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고도자본주의를 미리 경험했던 서구 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사회발전의 시각을 주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했고 그것을 우리 사회학자들도 80년대 이후 급속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신과 5공, 6공을 지나면서 크게 요동치던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변혁과정과도 잘 어울리는 이론적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르크스적 시각을 받아 들여 성립된 입장이었고, 한국의 지역사회학자들도 이런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역연구에 임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학자들의 구체적인 관심을 끌었던 연구테마는 한국사회의 불균등 발전의 문제였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등, 공간 간의 불균등 발전 문제를 설명하는데 연구력을 집중해 왔어요.

사회학자들은 ‘지역’이라는 학술적 용어를 대개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영어의 ‘region’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local’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space’, 즉 공간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선호하는 학자들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region은 중립적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지역연구’ 라고 쓸 적에 region을 많이 쓰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region 개념이나 local 개념을 아주 독특하게 써요.⁰²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local은 ‘지방’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학과 정치학 쪽에서 활용하는 개념인데, 중앙과 지방을 대립적 개념으로 보고 주로 중앙의 영향력이 지방에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지역을 바라볼 적에 이 개념을 씁니다. 통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산다’고 말할 경우, 이 때 지방의 의미는 중앙에 대한 종속적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이 워낙 피폐해 있고 중앙정부와 대립적 입장에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 지역연구를 아예 ‘지방연구’라고 개념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개념을 서로 교환가능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구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regionalism하면 ‘대지역주의’를 얘기 하구요, localism하면 ‘소지역주의’를 얘기 합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이 집권할 때마다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통치방향을 설명할 때 regionalism이나 localism을 얘기해요. 역시 배포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개념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02 영국의 경우 region은 광역의 행정, 경제, 환경, 복지정책 등이 구현되는 단위(대지역 또는 광역)를 뜻하는 물리적 장소 개념으로, local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간적 정책 단위(소지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지역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졌던 영국에서 역대 정부의 공간 정책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개념으로 양자는 뚜렷한 의미 차이를 가진다. 역사적으로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중앙정부는 대체로 local, 즉 소지역 단위의 지역정책을 추구하며, 노동당이 집권한 시기에는 region, 즉 광역 단위의 지역정책이 추진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김영정,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중에서)

드리는 거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역연구’ 라고 하면, region 측면, local 측면, space 측면 3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지역연구의 주도적 관점인 정치경제학적 입장의 지역연구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local 혹은 space의 의미로 지역을 바라보고 연구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간생태학적 관점의 지역연구가 완전히 힘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태환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 입장은 여전히 유용한 설명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로 지역을 region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5쪽을 보시면,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의 지역연구의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관심 영역인 근린공동체 문제라든가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 활동 등은 대부분 중립적 입장, 즉 region적 입장에서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거 문제, 지역감정 문제, 지역의 정체성 문제, 중앙집권의 편향성의 문제,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분쟁 문제 등과 같은 사회과학적 주요 테마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local적 시각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연구들은 중앙과 지방은 불가피하게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매우 비판적인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space 개념은 지리학에서 사용을 많이 해 온 개념입니다. 특히 하비 David Harvey(1935~)의 시각을 우리나라 학자들은 선호합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이

지역에 침투하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공간적 차별화 현상, 특히 불균등 현상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죠. 우리 사회 경우, 80년대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정말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시각으로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공간사회학적 관점’ 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균등발전의 문제, 지역혁신 체계, 지역 거버넌스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연구 관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회학자들은 여전히 space 및 local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불균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글로벌 도시발전 문제로 발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해석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 데이비스 Mike Davis(1946~)라는 학자가 LA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책 제목이 『City of Quartz』입니다. ‘quartz’ 는 사전에 보면 석영, 즉 차돌멩이를 얘기하는데요. LA가 차돌멩이와 같은 도시로 경화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가 심화, 발전하면서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의 경계가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기 됩니다. 즉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시설이나 제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도시 내의 감시체계, CCTV,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전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첨단 무기체계의 실험장소가 오늘날의 LA같은 대도시라고 그는 분석합니다. 실전에 써먹을 무기체계 같은 것을 각 도시의 감시체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도시가 있는 자를 위해 더 경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오늘날의 고도자본주의 사회의 대도시적 생활양식이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임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 불균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화된 사회현상이 글로벌 도시체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호남지역과 수도권지역, 지방 전체와 수도권지역, 호남과 영남 사이, 이런 것들이 경화된 현상으로, 대립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간적 시각이나 local 시각에서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큰 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역 간 불균등 부분입니다. 연구결과도 가장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방과 중앙의 관계에 관련된 글들이 가장 많이 발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쪽의 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결과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역 간 불균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힘이 지역에 미치게 되고, 정부의 편향된 정책의 영향이 지역에 미치게 되면서, 중앙은 행정권역으로 경기도 수도권을 의미하지만, 정치경제학적으로는 통치 권력이 위치한 곳을 ‘중앙’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중앙은 행정권력과 통치권력의 집중처이며 지방은 그러한 힘을 상실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두 권역의 힘의 불균형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됩니다. 이러한 불균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인구집중, 경제·산업집중, 그리고 자치권력의 상실 등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지역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중앙에 빼앗겨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역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구상과 실천의 힘을 중앙에 완전히 뺏기고 중앙의 지시대로 운용되는 피동체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을 살리고 한국사회를 균형적 사회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은 개념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수도권인 인구를 지방으로 되 돌리구요, 경제·산업시설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구상하고 구상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이 더 심화되지 않을 정도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중앙에 집중된 인구를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을 통틀어 ‘분산分散’ 정책이라고 개념화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경제 및 산업시설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을 살리려는 제반 정책을 ‘분업分業’ 정책이라 칭합니다. 또한 지방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중앙정부가 되돌려주는 조치들을 정책적으로 ‘분권分權’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분권, 분업 이 세 가지 정책을 통칭 ‘삼분정책’ 이라고 합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어느 것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사회에 지난 60년간 끊임없는 중앙 집중화가 지속되어 오면서 중앙 집중의 수혜자 층이 날로 두꺼워졌고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이크 데이비스가 얘기한 LA의 경화된 모습이나 우리 사회의 경화된 모습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중앙 집중의

수혜자 계층들이 집중화에 의해서 얻은 수익들을 집중화에 의한 ‘렌트시킹 Rent-seeking’ 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부당이득’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수도, 경기권 중심의 성장을 하면서 의도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일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보수층으로 고착화되면서 지역간, 계층간 대립은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낳은 우리 사회의 경화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중앙 집중의 수혜자들, 누구일까요?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니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중앙정치인들, 중앙의 관료들, 중앙의 기업인들, 중앙언론 등이 그들입니다. 일부 중앙의 지식인 집단, 특히 수도권 대학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컨대 SKY 대학 사회학과에 중앙-지방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과목이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Y대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지방문제에 대한 특강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앙 집중의 수혜자들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매일을 보내왔습니다. “왜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 문제에 대한 강의가 없습니까?” 사실 중립적 개념의 region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는 있습니다만 local이나 space 시각에서 다루는 강의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문제를 특히 local과 space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93년 지역사회학회의 출범입니다.⁰³ 이제 22년 되었습니다. 그를 계기로 점점 경화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중앙집중의

03 1993년에 전국의 지방 사회학자들의 모여 김해결사金海結社로 불리는 모임을 가졌고, 이는 <지역사회학회>창립으로 이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근 30년 동안이나 중단된 후, 198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수혜자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도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뭐니까? 지방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지역으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임한 것일 뿐 스스로의 기획과 실천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구상과 실천의 능력을 지방으로 돌려주자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중앙집중 옹호론자들은 지방자치가 중앙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니 자치단체를 통폐합하자고 주장합니다. 현재 약 230개 내외의 지자체수가 과도하게 많으니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진 통합을 추진, 성공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산·창원·진해, 세 도시가 통합에 성공했고요, 여수·순천·광양,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행정학자들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칭찬을 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 '생물의 종다양성'을 해치는 조치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요? 지역의 문화나 지역의 역사나 지역의 특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지자체 통폐합 조치이며, 이는 '지역특성의 종다양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수를 줄이자는 주장이나 조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주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광역도시의 구 단위 자치단체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학자들은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들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사회학자 중에 지역을 통폐합하고, 자치단체 없애 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좁기 때문에 지자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3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먼 단위까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 단위, 마을 단위까지 실시한다면, 자치에 대한 훈련이 미진한 우리나라의 경우, 혼란이 오긴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훨씬 작은 스위스, 북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자치단체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러함에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보수 행정학자나 보수 학자들은 아예 전국을 네 개 권역-수도권·영남권·대경권(대구경북)·호남권- 등 네 개의 초광역 지자체권역으로 나누자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치 단위의 개념을 코뮌commune이라고 하지요. 코뮌이란 개념⁰⁴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원래 물리적으로 ‘하루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걸음으로 하루를 걸으면 몇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을까요? 대략 30~40킬로미터 되겠지요. 그 단위를 ‘코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미 자치적 통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가지요.

중앙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막부시대⁰⁵까지를 포함하면 거의 1000년 정도의 자치 경험이 있고요,

04 프랑스어 commune은 12세기에 "공동생활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을 뜻하는 중세 라틴어 communia에 처음 나타났다. 더 거슬러 올라가 라틴어 communis는 함께 모인다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의 코뮌은 미국의 자치체, 독일의 게마인덴(Gemeinden)과 거의 동등하다. 프랑스의 코뮌은 영국의 어느 자치체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동의어가 없으며, 영국의 지방 행정구와 비대도시권 의회 사이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코뮌은 파리 시와 같이 200만의 거주자가 있는 도시일 수 있고, 10,000명이 사는 마을이 될 수 있고, 겨우 10명이 사는 촌락일 수 있다고 한다.

05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사 정권시대. 일본에서 막부(bakufu, 幕府)는 무인(武人)가문의 통치를 상징하는 좀 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처음에는 '본부' 정도의 뜻이었으나 지휘본부가 그대로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정부'라는 뜻으로까지 쓰이게 된 것이다.

유럽은 봉건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지역의 자치문제가 무엇인지 터득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왕권국가여서 자치 경험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겨우 20~30년 정도의 짧은 훈련 과정을 통해 숙련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부적으로 모순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의 자체-독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간’ 이에요. 시간이 걸려야 하구요. 또 하나는 ‘비용’, 즉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일부 보수적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이 비용 문제와 효율 문제 때문에 지역을 통합 하거나,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자치주의 실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 우리사회의 불균등 문제, 경화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경화된 사회를 풀어낼 수 있는 약이 될까? 어렵지만 지속되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술가의 활동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공공영역에서의 예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이 보지 못한 문제점들을 응축적으로 보고 제시해 주잖아요. 또 미학 하시는 분들은 사회과학자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정말 예리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미학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한 커리큘럼에 미학을 넣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자본주의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걸 착한 자본주의로 바꾸기 위한 일, 그 일에 사회학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예술 하시는 분들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결국 ‘프라이버티즘 privatism’ 을 바꾸는 것이지요. 이걸 ‘개인주의’ 로 번역을 하면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버티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주의라고 번역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이익의 추구, 좋은 말로 경제 추구의 성향이 특히 높아지는 경향을 프라이버티즘이라고 말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모든 개인들은 그렇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한 장 읽어주고 “이거 읽어주면 돈 얼마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경우 프라이버티즘이 강하지요. 그러나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그걸 잘 안 내세워요. 우리의 경우, 지방 사람들의 프라이버티즘이 매우 강합니다. 종종 시골 사람들 돈 밝히는 게 더 무섭다고 얘기들 합니다. 또 유치하게 밝힌다고도 하지요. 그게 경화된 자본주의가 갖다 준 폐해이구요. 특히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치할 정도로 그런 경향이 높아지지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그러한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지요.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요. 돈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예술가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서구에서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불간섭주의’ 라는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남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서구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전통이고 자산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불간섭주의가 프라이버티즘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사회가 외형적으로 안정화 되어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경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추구하자'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적 전통이거든요. 그러한 불간섭주의가 그들의 프라이버티즘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사회가 더 안정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안정화되어 있지요. 한국 사회는 워낙 빨리 성장하면서 우리 모두한테 프라이버티즘을 키워줬어요. 너무도 이해관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이 우리 사회에는 없습니다. 이를 불간섭주의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키우는 일,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주시구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덧붙여주셔도 좋고 해석을 해주셔도 좋고 질문도 괜찮습니다.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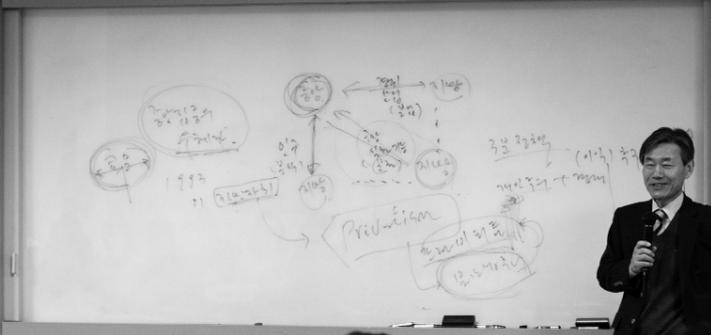
* * * * *

질문 : 중앙 집중의 수혜자 그룹들을, 어떻게 보면 계급적 진영으로서 견고하게 연대되어 있는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김영정 : 그 사람들이 권력블록을 형성하구요, 그 권력블록을 통상 '스테이트state' 라고 해요. '국가' 라고 번역하지요. 국가state라는 개념이 영토적 개념으로 쓰이면, 예컨대, '한반도', '우리나라' 등을 지칭합니다. 계급적 개념으로 쓰일 때는 '권력블록' 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의 통치를 담당하는 분들이죠. 대개 자본주의 사회는, 삼각 블록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된다고 모형화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블록, 바로 '자본가' 지요. 그 다음이 스테이트입니다. 이들은 연대하기 쉽고 연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영속화를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을 견제하면서 통치하는 블록이 '시민사회' 영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본주의

사회는 이들이 구성하는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트와 자본가의 결속관계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경화, 차돌맹이화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한 LA와 같은 도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역과 중앙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세계 도시체계 내에서도 그런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지요.

돔호프 George William Domhoff(1936~)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누가 통치하는가를 조사했어요. 밀즈 Charles Wright Mills(1916~1962, 미국의 사회학자)라는 사람의 '엘리트 이론'의 영향을 받아 미국을 누가 통치하는가를 조사한 것인데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 고위관료, 재벌가, 군인 등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속의 끈은 '학벌' 과 '훈인관계'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걸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 사회학자가 '재벌가' 끼리의 훈인관계 등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중앙 집중의 수혜자 블록이 경화된 모습을 보이며 정치와 경제는 보다 밀접하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 블록에 예술인들도 포함될까요? 요즘 '문화권력' 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강준만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술인들이 우리사회의 통치지배 블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정 강연〉, 2015, photo by 고상석



임동근 프랑스 파리7대학 지리학 박사. 공간연구집단 연구원,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매핑 및 모델링 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자로 재직 중이다. 2015년 5월부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BK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서울에서 유목하기』(1999),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2015), 옮긴 책으로 『살과 돌: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1999), 『관찰자의 기술』(200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2010) 등이 있다.
dongkunyim@naver.com

지역연구 방법론

안녕하세요.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구요. 지리학을 전공한지 10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전엔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이런 쪽 하다가 지나온 과정이 좀 잡다해요. 그래서 저희는 '생계형 잡학'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학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리학을 대변하진 않아요. 개론 수업부터 여러 가지 수업을 듣긴 했지만, 지리학 전공을 학부 때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는 지리학이 주류 지리학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주류 지리학은 아니고, 지리학을 프랑스 가서 배워서 약간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학문의 분야가 아닌 것으로 점점 가고 있다 보니까 사회학이든 지리학이든 인류학이든 결국은 핵심 테마가 '지역' 이라는 것으로 다시 수렴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지역조사 방법론입니다. 방법론methodology인데, 점점 더 방법론의 시대로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실체, 본질substance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연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따끈따끈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1, 블라슈]



[그림2, 왼쪽은 18세기 프랑스, 오른쪽은 블라슈의 지도]

지리학적 인식론

[그림1]은 ‘지리학의 대부’ 비달 드 라 블라슈 Paul Vidal de la Blache(1845~1918, 프랑스 지리학자)입니다. 보통 ‘도시계획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패트릭 게데스 Patrick Geddes(1854~1932, 스코틀랜드 사회학자, 지리학자)가 했던 작업들의 상당 부분이 블라슈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블라슈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진영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크로포트킨 Pyotr Alekseevich Kropotkin(1842~1921, 러시아 지리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정부주의자로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영국의 피터 홀 Peter Hall(1932~2014)이라는 도시학자 때문에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블라슈는 프랑스에서 극우보수주의자입니다. 블라슈가 ‘국가’가 아니라 ‘지역 region’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라는 흐름, 지방자치라는 흐름 때문에 약간 래디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터 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지도와 매핑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대국가라는 영역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국경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국가는 무엇으로 만들어 지냐 하면 국민,

국토, 주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국토도 자주 바뀌고 국민도 자주 바뀌죠.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경이 바뀌면 인구통계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지도 [그림2]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1700년대, 18세기 프랑스 지도를 블라슈가 만든 것인데, 지역으로 잘게 쪼갰습니다. 국토를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영토 단위로, 면 중심이 아니라 포인트인 거거든요. 고구려 땅이 얼마 만큼이라고 지리부도나 역사부도에 나와 있는데 그거 거의 허구이구요. 실제로는 몇 개의 성들과 그 네트워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성)를 잡고 있는 놈과 길(네트워크)을 잡고 있는 놈이 있었던 거지요. 면을 잡고 있었던 놈은 없었는데 그것들을 면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egion이라고 해서 잘게 모듈화시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편해지는 게 뭐냐 하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⁰¹가 프랑스였다 독일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인구통계에서 지역단위로 통계를 내서 이번에 먹었다 그러면 인구에서 플러스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잃으면 빼버리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국토를 구성 할 때, 처음부터 국경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듈화 시켜야지만 이 국토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북부는 ‘수복지구’라고 해서 옛날에는 뺏다 넣었다 했거든요. 행정적으로 통치가 안 되도. 지금도 민통선 아래에는 행안부 통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군사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모듈화 시켜서 지역단위로 만드는 것이 지리학에서 region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

01 스트라스부르는 현재 프랑스령이지만 독일 국경(라인강) 서쪽 3km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역사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지역이다.

지리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분파되는 학문으로 나왔을 때 자연적인 지형(산맥, 하천 등)이 먼저 백그라운드로 깔리고 행정과 권력과 정치, 이 통치지역을 region으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도 필요하고 가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역사적인 요소들, 자연적인 것까지 가미해서 그 지역을 정치화시킵니다. 이런 문제 설정에서 우리나라까지 쭉 오면, 김동완 박사 같은 경우에 호남의 탄생을 가지고 박사논문⁰² 쓸 때 이 문제의식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호남이나 영남이 영역화되기 시작 하는가. 옛날 같으면 굉장히 큰 포인트들 중심으로, 주씨 자 돌림 들어가는 전주라든지 광주라든지 나주라든지 이런 주씨 중심의 포인트 체계가 영토 체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블라슈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영토에 대한 연구를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학파인 아날학파와 같이 싱크가 되면서 결국은 지역전문가 그러면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파게 됩니다. 연구 할당제가 들어가요. “니가 툴루즈Toulouse에 가서 10년 동안 박사논문 쓰면 그 지역의 교수 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보스가 있으면 그 보스가 연구직을 갖고 연구를 시킵니다. 아날의 거두였던 브로델Ferdinand Braudel(1902~1985, 프랑스 역사학자)같은 사람이겠죠. 제자들을 지역별로 파견해서 그 지역의 12세기부터 쭉 연구를 해서 축적을 한 다음에 1000페이지~1500페이지 박사논문을 쓰면 아무도 그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논문을 쓰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 관(공무원) 이런 사람들과 사회적인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지역유지와 학자와의 네트워크 결합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영토화 되면서 모듈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02 김동완, 「국가계획과 지역주의:호남지역주의 형성과정, 1961~71년」, 200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초반부터 20세기 중반 이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비달리안 Vidalian’⁰³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비달 드 라 블라슈의 그 ‘비달리안’인데, 이 비달리안이 아주 강하게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금이 가게 만든 게 베르탱 Jacques Bertin (1918~2010, 프랑스)이라는 사람입니다.

자크 베르탱 같은 경우에는 지리학자라고 하기에는 힘들고 지도를 발전시키는 기호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기호학을 하다 보니까 ‘비달리안’의 문제 설정을 깨뜨리게 됩니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 강조에서 등고선 맵이라든지 아니면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키기 시작해요. 지질과 문화도 하다 보니까 지역이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방언에 대한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투리의 단어들을 지도화해서 만들어놓고 보면 어느 순간 경계가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강원도 같기도 하고 충북 같기도 하고 경상도 같기도 하고 언어들도 계속 다양하게 변질 되죠. 이런 것들이 가만 갈수록 영토가 몇 개의 조건을 쫓을 때는 선이 (뚜렷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이 흐트러지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순대를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막장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를 놓고 보면 선이 달라지는 식이죠. 우리가 영토, 지역 region이라고 해서 둥그라미 치는데 그 면 자체가 굉장히



[그림3. 자크 베르탱]

03 보통 ‘비달학파’라고 불리는 이 ‘Vidalian’은 비달 드 라 블라슈가 1891년 창간한 <지리학연보 Annales de Geographie>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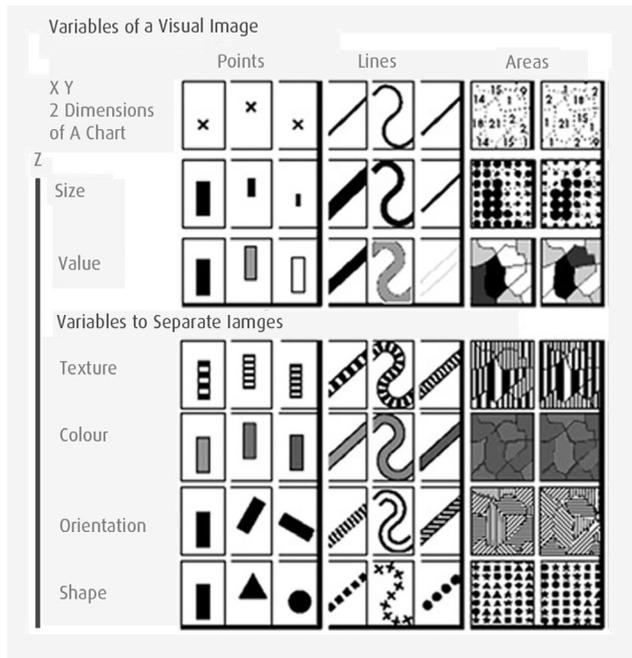
조건화 되어있는 결과물인 거죠. 결국 의존적인dependent 것이지 독립체entity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르탱은 이것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기호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지도들은 대부분 코드화된 기호들로 표현됩니다. 기호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나와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중첩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호가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추상화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 도시 계층화, 계급화 같은 개념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개념어 뒤에 있는 수많은 말들을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내는 거거든요. 기호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징표들, 랜드 마크들 그리고 사건들을 기호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공간에 대한 지식들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점, 선, 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도를 만들 때의 규칙은 점으로 표현할 것과 선으로 표현할 것과 면으로 표현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점, 선, 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이주노동자들이 몰려있다, 아니면 지방에 잘사는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포인트일까요, 라인일까요, 아니면 면일까요?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고방식을 점, 선, 면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독일의 형태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데 어느 순간 점핑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무식하게는 그렇게 출발을 하다보면 질적인 도약이 만들어 집니다. 점일 때하고 라인일 때하고 그 다음에 면일 때하고 통치의 비용과 통치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포인트를 통치하는 방식하고 라인을 통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면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경계가 생기거든요. 프론티어frontier(경계지역)를 통치할 만큼 비용이 땡땡하면 면이 되요.

요즘 나오는 고급아파트 경우에는 담을 치고 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계 부분을 통제하는 겁니다.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라인을 통치합니다. 이쪽 길은 안전하고 나머지 길은 안전하지 않게, 아니면 특정한 길을 중심으로 해서 목을 잡는 거죠. 안 그러면 포인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서, 파출소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공권력이 지켜주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푸코 식으로 따지면 ‘권력의 일반 경제학’에 맞춰서 돈 따라서, 통치의 비용에 따라 방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라든지 지리학적인 현상들이 점, 선, 면으로 나옵니다.

[그림 4. 지도기호 이미지]



또 하나는 사이즈, 가격, 가치, 양입니다. 이제 질감texture, 색깔colour, 방향orientation, 형태shape 이런 것들을 기호화 합니다.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지는데, 전통적으로 지리학에서 지도 만들고 기호화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은 지도에서 기호 하나 잘못 썼다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 지도교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화를 내는데, 왜냐면 군부대를 누가 별표를 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군부대를 별표를 치냐? 별이 가지고 있는 기호가 지리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것으로 의미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로 표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호화 되면서 약호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굉장히 추상화하기 위한 겁니다. 괜히 헛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와 굉장히 비슷해 졌습니다.

1960~70년대 구조주의의 시대

그러다가 이제 구조주의로 들어가죠. 알튀세, 르페브르가 나오는데, 구조주의로 들어가면 이때까지 비달리안이 갖고 있었던 헤게모니가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첫 번째로 관계거든요. 어떤 상황이나면, 누군가가 마르세유Marseille로 가서 1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박사논문을 쓰고 교수가 됐어요. 근데 구조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마르세유를 연구하기 위해 파리와 ‘관계’를 모르면 어떻게 이해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로 구조화 되어있고 관계망 속에서 도시가 있는 것이지 그 도시에 백날 가서 관찰한다고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전혀 얘기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산에 가서 부산만 주구장창 10년, 20년 봤는데, 부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현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과, 오사카와의 관계 속에서 부산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 “너는 한 쪽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비탈리안들이 키웠던 30년 정도의 그 흐름들을 이 구조주의가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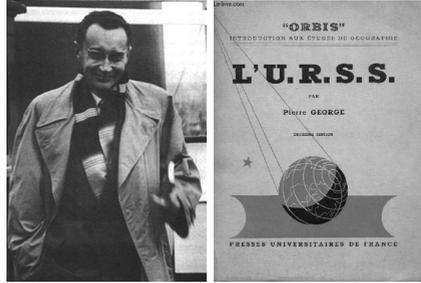
이때까지 지역연구에서 다루는 영토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었기 때문에 지리학의 헤게모니는 ‘농촌지리학’에 있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과 결탁을 해야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부분 농업 지주의 아들들이 지리학자가 돼요. 그랬는데 이 구조주의자들이 관계 속에서 연구를 들어가면서 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산업지리학’입니다. 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입지론이라고 할 만큼 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창업을 하려면 원래 있던 곳 옆에 인접해서 들어가는 게 보통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광산 근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지 그것들을 계획해가지고 여기는 철강, 여기는 섬유, 여기는 화학,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산업이 들어가려면 일단 사회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새로 (기반을) 깔아 입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비용이 초과됩니다. 엄청나게 과다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도로를 활용하고 항구를 활용하고 기존의 다른 산업들을 활용해서 옆에 인접해서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렇게 돼요. 설령탕집만 해도 한 쪽에 설령탕집이 있으면 그 옆에 설령탕이 들어가지 허허벌판에 설령탕집이 들어가면 장소성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공업 생산라인들을 이주해보는 경험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쪽에서는 태평양 전쟁을 한다고 해서 (미국동부) 보스턴 쪽에 있었던 군수시설들이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맨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선^{戰線}이

달라졌으니까요. 옛날에 후방이 지금의 전방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군수시설을 옮겨야 해요.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이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입지 개념이 또 달라져요. 옛날에 있던 산업, 철강 옆에 군수공장이 있다든가 이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쳐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 폭격을 고려해서 지금 에어버스 공장이 있는 (프랑스 남부) 툴루즈로 군사산업이 내려갑니다. 독일에서 미사일을 쏘을 때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비행기를 만들 입지가 아닌데 새로 입지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무지 많은 수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돈으로 다 환산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지역의 상징성, 지역의 자원, 지역의 조건, 자연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맨땅에 만들 거 제일 싸게 만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만드는 게 제일 싸까? 도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싸까? 이게 국토계획의 출발입니다.

소련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원래 소련이 했던 계획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유주의권인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산업과 관련해 좌파계열 구조주의자들이 기존의 지리학자들의 단점이나 맹점들을 파면서 산업지리학을 하게 되죠. 좌파 산업지리학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소련에서 먼저 했던 것들을 2차 세계대전에 다시 받아들이면서 좀 친했던 거죠. 그리고 피에르 조르주 Pierre George (1909~2006, 프랑스)라는 공산당의 거두 지리학자는 실제로 루마니아하고 소련에서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림 5. 피에르 조르주/L' U.R.S.S.]



『L' U.R.S.S.』⁰⁴ 이건 피에르 조르주가 쓴 책입니다. ‘소련’이라는 지리학 책을 쓰기도 하고, 헝가리와 루마니아에 가서 공업단지 계획도 해주고, 40년대 이미 좌파 블록에서(공산주의권에서) 도시계획이나 산업계획을 했던 가락으로 자본주의권에서의 산업지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확장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센터 페리페리 Center-Periphery’, 그러니까 중심하고 주변부 논쟁, 세계 체제론이라든지, 이게 구조주의랑 결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알랭 레이노 Alain Reynaud, 이 사람은 당시에는 너무 복잡하게 이론을 써서 사장死藏이 됐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알랭 레이노의 가장 큰 기여는 ‘흐름 flow를 다시 봐야 한다’입니다. 구조structure와 흐름flow를 구분을 해야 하구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A라는 높은 곳에서 전압이 흐르듯 물이 흐르듯 뭔가 압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필드 field’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르디외의 ‘field theory’, 이

04 피에르 조르주가 1947년 소련의 지리에 대해 쓴 책.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영문 약칭이 U.S.S.R.이라면, U.R.S.S.은 프랑스어로 표기되는 Union des republicues socialistes sovietiques의 약칭이다.

장이론(場理論) 이전에 이미 지리학이나 세계체제론에서 장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랭 레이노가 굉장히 중요시 했던 것은 ‘자본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에너지다, 이 에너지의 흐름들을 가지고 지리학적으로 보겠다. 돈이 어떻게 흐르든 사람이 어떻게 흐르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지리를 통치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회변화를 설명 하는가라는 얘기에서, 통치 권력이 왜 중심부를 케어 하려고 하는가? 앞 강의에서 (김영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city of quartz 처럼, 도시가 벽이 되면서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이 센터들의 치안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이 흐름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 때 알랭 레이노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개념은 ‘중심의 주변부’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쿄가 제국으로 컸던 것도 서구 제국의 주변부였던 것이죠. 서구 센터의 주변부에서 굉장히 희한한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혁명도 마찬가지였죠. 러시아도 서구 자본주의의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역학관계는 중심의 주변부에서 발생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로 나뉘요. 중심의 주변부, 중심의 중심, 주변의 중심, 주변의 주변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거기서 또 나누고 다시 또 나눕니다. 스케일 다운 scale down, 스케일 업 scale up 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디가 주변부냐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 정권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냐고 하면 (중심은) 서울이고 저기는 주변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60년대~7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월러스타인 Immanuel Maurice Wallerstein (1930~) 같이 쪽 흐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학문이 됐어요.

계량지리학의 발전과 시스템 이론

그 다음에 계량지리학Quantitative Geography인데요, 북미 ‘뉴 지오그래피 New Geography’ 쪽입니다. 이쪽은 수학 및 통계를 다루는 젊은 지리학자들이고, 여기에 첫 세대가 스페인 출신의 마누엘 카스텔 Manuel Castells(1942~)같은 사람이예요. 그래서 통계도 좀 다룰 줄 알고 수학도 좀 다룰 줄 압니다. 당시에 천공카드punched card를 쓰기 시작을 하니깐 대량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입지 데이터, 기업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 하거든요.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기업 통계가 별로 없어요. 70년대 들어 기업 통계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경제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가지고 지리학자들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상관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엇과 무엇의 상관성, 인과관계에 있다고. 이 인과관계causality와 상관관계correlation, 두 가지가 과학사,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큰 분기점인데, 이미 20세기 초에 사회과학 쪽에서는 ‘요인분석은 불가능하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관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살면 중산층이다, 중산층이면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들어 가버리면,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을 한 건지, 원인인지 아닌지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는데 상관성은 있어요.

그래서 7, 80년대 아파트 거주자들 통계를 돌려보면 희한하게 대졸 여성들의 반이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가 6% 밖에 안 될 때. 그러니까 거의 여자들만 대졸자면 대부분 다 아파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상관성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요인분석은 결국은 여러 개의 상관 분석들을 패키지로 해서 어떤 요인으로, 원인은 아닙니다, 이 현상이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시간적으로 분석을 잡아 준겁니다. 보통 수학적 같은 경우에는 가역적인 거거든요. 'F=ma' 를 뒤집어버리면 'ma=F'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가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논리실증주의에 기반 하면서도 통계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공간조직, 법칙, 규칙성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중력모델gravity model, 이런 건 20년대에 나온 거구요. 그 이후에 굉장히 복잡한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잡성 연구, 복잡계 연구가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모델링과 비교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부산과 전주를 비교한다고 하면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연결 고리가 뭐가 들어간 거냐 하면, 구조주의라든지 산업지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다 숫자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리학자들이 숫자를 맹신하는 지리학자들을 놀릴 때, “너희는 숫자라는 신을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겐 신이 숫자지?” 그러니까 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성, 장소성 같은 입지 문제에서 다 숫자로 환원되기 때문에, 숫자만 바라볼 뿐이지 실제로 그 지역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산업지리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론이 맨 처음 뭐로부터 만들어 진 거냐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할 때 만든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F=ma' 라는 함수가 깨져버립니다.

함수라는 건 블랙박스거든요. 조건에다가 x , y 집어넣어 버리면 z 값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연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전라도와 경상도에 똑같이 1억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1억이 튀어 나와야 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해서 변수를 설계한 다음에 그 변수에다 값을 집어 넣어버리면 값이 튀어 나와야 하는데, 실제 지리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방법론은 포병이 각도 딱 쟀 다음에 땅 쏘면 (목포지점에) 가서 맞습니다. 똑같이 쏘면 똑같이 들어가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 개의 대기권을 지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공기가 달라져요. 밀도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위에서는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그러면 똑같이 열 발을 쏘도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몇 개가 들어가면서 변수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 변수가 여러 번 설정이 되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가 있고, 이 CPU는 센서가 있어서 풍속을 체크 한 다음에 초기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올라갈 때가 다르고 내려갈 때가 달라요. 그럼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계산식도 다르고 변수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조금 조금씩 가다가 보면 저쪽 갈 때는 엄청나게 옆으로 가 있는데, 다시 저리로 갈려고 하면 추진체부터 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 북한이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쏜다고 얘기 할 때, 올라가는 것까지는 성공했어도 내려가는 것에 성공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풋input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풋이 들어가면 분명히 아웃풋output이 나와야 하는데, 인풋 들어가면 이 시스템 안에서 조건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경기도에 이주 노동자들이 몰려오는데 똑같이 백만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 결과가 똑 같으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영향에 따라서 효과는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미사일 쏘듯이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조건을 만들어 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지리학적 인식론 : 코렘의 고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랑스 지리학자 로제 브뤼네 Roger Brunet(1931~)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좀 더 쉽게 바꿔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코렘Chorem' 입니다. 이 코렘과 관련해서 비사가 많아요. 브뤼네가 피에르 조르주의 제자는 아닌데 전권을 확 잡아버립니다. 임용고시 짱 한 번 먹고 나서 자기네 식으로 문제를 내서 중등·고등 교사들 대부분을 이 사람의 모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헤게모니를 잡게 됐습니다. 10년 갔습니다.

코렘은 일단 장소를 뜻하는 그리스 고어 'chora'에서 왔어요. 그리고 '모델링 문법'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로 교육학 쪽에서 많이 씁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획가, 정책가들이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베르탱의 요소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라인, 면적, 네트워크, 이렇게 네 가지로 잡고 약호들을 만든 겁니다. 브뤼네가 맨 처음에 설계한 것이 알파벳이예요. 언어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시다. 7 곱하기 4 해서 28개의 알파벳을 만든 겁니다. 알파벳을 만들어 놓고 지도에서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문법syntax이 형성이 되면서 문장으로 옵니다.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추상 능력이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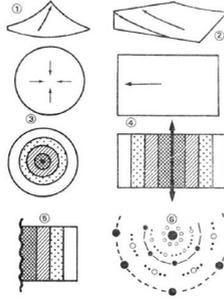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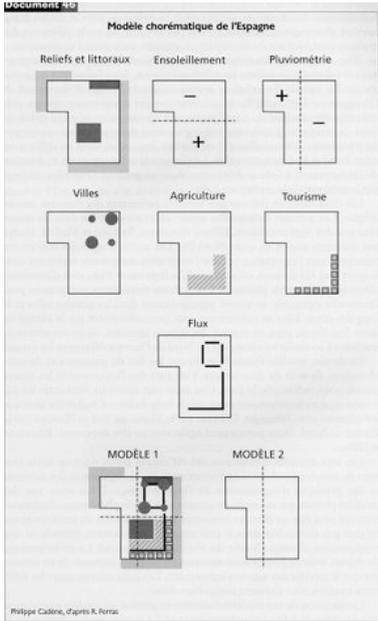
Fig. 6. — GradFests et gradientis.
 1. Chapeau chinois : représentation à trois dimensions d'un gradient continu autour d'un pôle et sa traduction à deux dimensions sur la carte. — 2. Surface de tendance : idem, par rapport à une ligne. — 3. Modèle aureolaire. — 4. Modèle bandé symétrique (par rapport à un axe). — 5. Modèle bandé dissymétrique (par rapport à une interface). — 6. Orbites.

	POINT	LIGNE	ARE	RESEAU
matérialité				
quadrillage				
attraction				
contact				
topologie				
dynamique territoriale				
matérialité				

[그림 6. 로제 브뤼네 / 28개 코렘 알파벳]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 문법을 갖다가 몇 번만 체크를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지도에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건 결국 구조와 역동을 같이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지도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역동을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흐름flow이라든지 장field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의 고준위/저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화 시키기 시작하면서 역동성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쉬어져요.

코렘은 영토적인 형상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구조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상만 되면 되요. 사례를 살펴볼게요.



[그림 7. 레이어의 중첩_스페인 코펜]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레이어들을 중첩시키면서 설명에 들어가요. 처음에 짙은 녹색부분이 산맥이고 옅은 녹색은 연안이에요. 햇볕은 남부가 많고 북부가 적습니다. 비는 대서양 쪽이 많고 지중해 쪽이 적습니다. 도시는 위쪽으로 많고 농업은 아래쪽이 많아요. 아무래도 포도주가 많으니까, 남동부는 날씨가 좋으니까 관광객이 많습니다. 도로망은 9자 형태입니다. 이것 합쳐놓고 보면, 지역이 특징화characterizing됩니다. 이렇게

몇 개의 문장들이 레이어 별로 연쇄가 되면서 순식간에 그 공간을 설명해주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어를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설명의 네러티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A지역이 B라는 지역과 뭐가 다른지를 순식간에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내려와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예전 같은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어서 통계를 돌렸을 텐데 이렇게 지역조사를 해서 던지면, 단순해지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어지고 과도한 추상화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은 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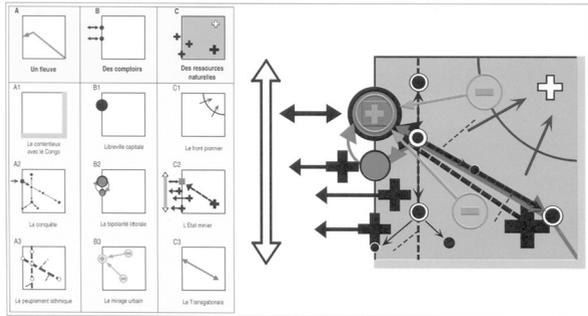
없고, 조선족은 많고, 중국 노동자 많고, 폭력 문제 무슨 얘기 있고, 집값은 어땠고, 다세대가 많고, 뭐가 없고 딱 이래 버리면, 그 지역은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데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렘이 만들어지면서 이데올로기나 언론 같은 데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문적인 결과물로 만들었을 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흐름들이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것은 철저히 도구로서, 직관으로서 우리끼리 스터디 할 때 쓰는 거지 밖으로 내보내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중·고등학교 지리시간에 엄청나게 이것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코렘이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영국 지리학계도 이 코렘이란 모델을 몰라요. 왜냐면 학자들끼리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교육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몇 개를 깔 건지에 대한 합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10~15개를 넘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레이어가 50~60개 들어가면 의미의 연쇄들을 중간에 까먹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추출하게 됩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실제로 코렘 만드는데 요소별로 다 쪼갬 다음 큰 벽에다가 50개 정도의 지도를 막 붙여요. 붙인 다음에 빼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쭉 펼쳐놓고 할 때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실제로 개인이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 일러스트로 합니다. 레이어를 쭉 깔아놓고 꺾다 꺾다를 반복하면서 레이어들의 중첩이나 투명도,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조합되는 형태를 봅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하나의 네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이게 바로 브뤼네가 얘기한 모델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없을 때는 레이어를 많이 쌓아 놓는다고 해 봐야 폭발하지 않습니다. 특징화characterizing에 실패해요. 그래서 일단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 맞춰서 레이어들을 어떻게 조합할건지, 그리고 어떤 네러티브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건 도구일 뿐이지, 이 도구를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도구 자체가 폭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지도를 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고, 비교도 되면서 직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의 네러티브의 입장에서는, 텍스트로 되어있는 네러티브에서는 서론부터 쪽 달려야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까먹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참 모하게도 설명하는 사람이 네러티브를 (다시) 잡아주면 잘 읽히구요. 네러티브를 잘 못 잡으면 그냥 ‘그림’ 입니다. 다이어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도 생겨요. 여기에 12~15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A가 제일 먼저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B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지리부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번 봐도 또 다른 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네러티브를 보는 사람이, 사용자가 알아서 하이퍼텍스트처럼 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직관이 계속 재생산돼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이런 장점들이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똑 같은 일을 가지고 지금은 12개의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1년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집단 연구를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코렘이 만들어 집니다.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에 따라 계속 달라지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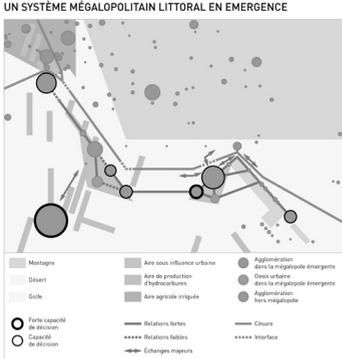
[그림 8. 가봉 코렘]



3. Un modèle d'organisation de l'espace gabonais

[그림 8]은 아프리카 친구가 가봉을 가지고 쓴 건데 비슷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같이 놓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아프리카 수업, 인도 수업이 가능해요. 그러나 결국 코렘은 굉장히 제국주의의 산물이에요. 장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상대방이 공부하는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리학적인 미덕입니다. 내가 그 지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지역 전문가가 와서 코렘으로 발표를 하면, 예를 들면 서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열 장의 코렘을 만들어 와서 발표를 하면, 그 사람은 그 현장에 없지만 저랑 (서울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당신이 만든 네러티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무슨 네러티브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면서 서로 서로 토론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점점 더 지역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만 천착하게 되고, 자기 지역에 갇히는 한계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나온 프랑스 7대학에서 수많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데, 내가 그 지역의 도시 이름도 모르겠고, 사람 이름도 모르겠고, 역사도 모르겠는데 코렘을 사용해 발표해주면 얘기가

되거든요. 서로 서로 토론도 되고 거기서 직관intuition도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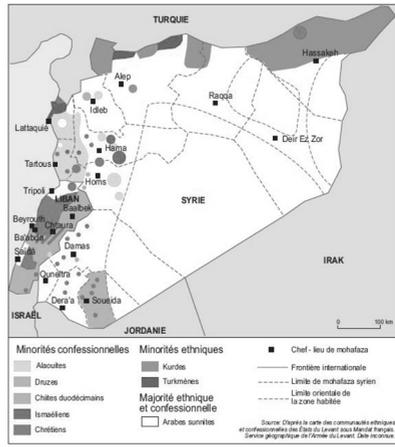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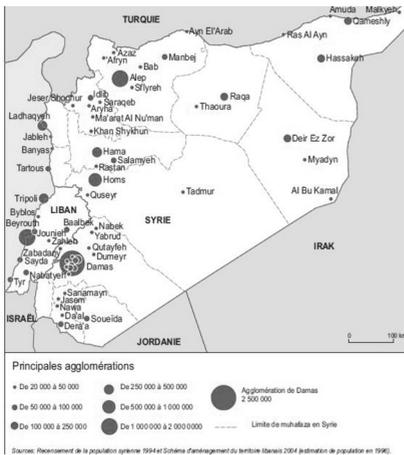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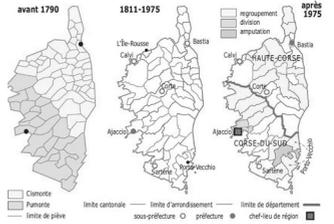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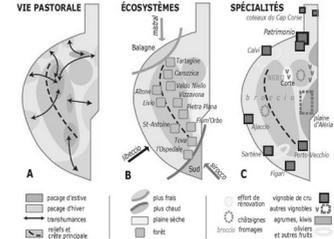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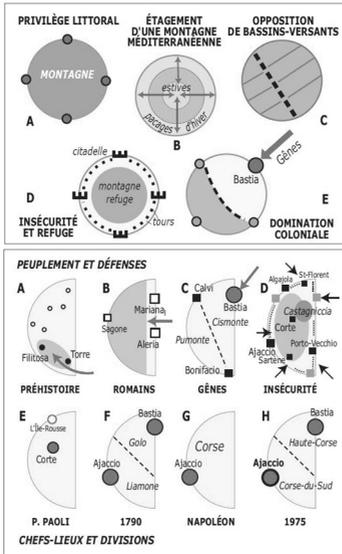


[그림 9. 걸프만 코렘]

[그림 9]은 걸프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두바이가 한참 크니까 코렘 작업을 한 거죠. 두바이가 도대체 왜 큰 거야?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코렘을 들어가는데, 파란색이 메트로폴리스가 없는 대도시입니다. 전통적인 지역은 어디이고, 현재 두바이, 아부다비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합니다. 빨간색은 flow랑 카타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하나의 에세이 같은 것입니다.

[그림10]은 브뤼네가 요즘 직접 만든 것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코르스Corse라는 섬은 나폴레옹과 관련된 지역인데, 니스와 마르세유에서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코렘으로 한 겁니다. 11~12장의 지도로 들어갑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코렘은 결론이 없어요. 계속 코렘을 보고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옛날부터 있었던 장소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안과 산을 설명하고, 경사도를 만들고, 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네바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선사시대 때, 로마시대 때 어떻게 났다는 식으로 레이어들이 계속 중첩이 됩니다. 레이어들은 요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맥을 보다보면, 이런 저런 그림을 제시하면서 계속 설명이 되는 겁니다. 통계 기본 맵도 있고, 맵을 가지고 라인도 그려보고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그림 10, 지중해 코르스 코랜]



[그림 11, 걸프만 코랜]

우리는 어떻게 지역연구에 접근하고, 잇는가

어느 정도에서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브리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만족스럽지 않지요. 그래서 계속 돌립니다. 이런 통계 자료 넣고 저것 넣고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는데, 이 코렘을 쓴 것입니다.

[그림 11]는 요즘 IS가 나오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대도시권을 매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르몽드나 가디언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지도들 중 하나예요. 인종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인종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코렘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산맥들, 기본 도시들, 알렉산드리아부터 연결되는 항구도시들, 인구들을 간단하게 매핑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코렘부터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교역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해 공간적으로 매핑한 겁니다.

어떤 코렘은 (지역의) 화물량을 계속 확대/축소 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종합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다 깔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지도에서 별표 모양이 뭐냐 하면 밀수지역이거든요. 밀수지역의 루트가 11세기부터 해서 계속 있었던 레이어에서 변형되면서 원래의 루트가 막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밀수화되기 시작하고 경계가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런 연구를 누가 돈을 내냐 하면 기업에서 돈을 내요. 어떤 지역에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리학자들을 보내서 이런 연구를 해서, 여기는 이러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프랑스 지리학이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비결입니다. 워낙 잘 하거든요. 먼저 보낸 다음에 지역적으로 브리핑을 딱 해버리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정말 나폴레옹을 위한 학문이 된 거예요.

직관의 지리학

결국은 직관의 지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복잡하고 막연한 지리학적 대상을 어떻게 추상화 할 것인지, 추상화 하면서 어떻게 의미를 전달할 것인지 인데요. 코렘을 몇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케일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넓은 스케일을 볼 필요가 있기도 하고, 작은 스케일을 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중첩되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중첩되어있는 멀티스케일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진행이 된 것이 신자유주의 쪽이거든요. 제 3세계 신자유주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다국적기업이 아프리카의 촌에 가서 휴대폰을 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부터 꼬시겠어요? 우선 로컬 액티local actor부터, 그 다음으로 누구, 이런 식의 연구가 1990년대부터 만들어지는데, 인도 쪽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관광 상품화되고 관광 중소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신자유주의 그룹, 대규모 호텔이 어떻게 카스트제도를 활용해서 로컬 액터들을 고용하고 그 도시를 신자유주의적인 도시로 바꿔버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중소도시연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스케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산물이겠어요? 구조주의에서 왔든 중심-주변부 논의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여기서 폭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소(레이어)들이 어떻게 중첩되는지에 따라서 네러티브가 달라지는데, 지역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작은 이야기부터 풀거든요. 대학원에서 지역학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시키는데, 그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사례 중의 하나가 김해를 가지고 발표를 한 사회학과 학생의 사례였어요.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해 가야사伽倻寺가 노무현 때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걸 보고 싶네요.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서 레이어(요소)를 무식하게 시켰죠. 네러티브를 일단 그렇게 잡으면 무슨 이야기부터 할지 모르니까. 가야사에서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나? 보니까 박물관이지 뭐. 그럼 그것부터 해라. 그래서 레이어를 아주 단순하게 잡니다. 박물관 깔고 뭐 깔고, 나중에는 뭐 까지 깔았나 하면, 표지판 중에 갈색 표지판. 초록색 표지판과 갈색 표지판의 차이는 아시죠? 문화재 들어가 있는 건 갈색 표지판으로 들어가잖아요. 갈색 표지판이 있는 위치까지 맵핑이 들어가요. 렌터카, 역, 모텔 이런 것들이 쪽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엮는 겁니다. 엮어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가냐 하면, 모텔하고 렌터카하고는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그렇게 됐고 박물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로 꿰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 학생에게 가는 거죠. 자기의 아이디어가 공간적으로 들어가면서 브리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면서 방법론methodology이 지도만 가지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지도랑 다른 방법론과 결합됩니다. 뭐냐 하면, 사건사라는 방법론에서 사건을 네러티브로 엮는다는 건,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 사건들과 쪽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가야사 관련해서 돈을 많이 줬다는 거와 렌터카를 타고 어디로 가서 놀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문장들이 계속 결합이 되면서 이어가는 겁니다. 네러티브가 구축이 되는 건데, 네러티브 구축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가 포함관계입니다. 앞에 있는 요소들을 가져다 끌고, 그 요소를 가지고, 그 팀을 가지고 다음 문장을 만들고, 또 만들고, 혹은 하나의 팀에서 여러 개로 나뉘어서 병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하나의 팀으로

끌고 오고, 이런 팀들의 연쇄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팀들의 연쇄작용을 어떤 때는 지도가 굉장히 잘 해 주지만, 어떤 때는 중간에 인터뷰가 끼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방법론을 결합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연결 고리가 지도였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할 때,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하나의 네러티브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해주는 인접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현상-구조-역동’ 인데요. 결국 요즘 구조주의나 아까 말씀하셨던 인간생태, 구조기능주의나 아니면 정치경제학적인 하비나 이런 쪽의 논의들에서 나오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첫 출발이 뭐냐 하면, 시카고학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현상’입니다. 도시학에서는 도시경험과 도시현상이 하나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 현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칸트적인 인식론이죠. 현상과 물物이런 것과 비슷해요. 구조를 바라보는 게 구조주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거의 역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로 넘어가는데, 이런 삼박자(현상-구조-역동)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의 지역학에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기’입니다. 속칭 번역을 정말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비가시성의 가시화’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안 보였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 이걸 ‘장치분석의 공간화’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옛그제 인터뷰 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때까지는 프랑수아 철학자 알튀세르(Louis Althusser(1918~1990))나 이런 쪽에서 구조주의로 들어가면, 대학이 한국의 자본,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포지션이었는데? 하는 구조의 시대인거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했고, 거기서 국가기구니 이데올로기니 이런 식의 기구·장치apparatus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옛날 방식이라고 하면, 푸코 이후에 장치분석의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장치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대학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말들을 결합하게 됩니다. 기계의 메커니즘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육학에서 캠퍼스를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 대학이 뭐가 문제인가에서 캠퍼스 얘기는 안 들어갑니다. 기숙사 문제도 잘 안 들어가요. 강의실 문제 이런 거 조금 들어가고, 도서관 문제 조금 들어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캠퍼스라는 땅, 물, 서틀버스 이런 물적인 장치들, 이데올로기뿐만이 아니라 담론discourse들, 담론도 장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결국은 사학私學이라는 것을 만들고, 고등교육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묘사하게 됩니다. 왜 캠퍼스를 당연시 여기고 ‘캠퍼스 없는 대학’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금의 현상들, 아무도 묻지 않지만, 비가시적인 존재였지만 가시화 되는 것들이 하나 둘 씩 만들어 지는데, 이게 지리학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이라든지 문헌literature으로 들어가 있는 학문들에서 지도로 바꾸는 순간에, 비어 있었던 육하원칙들이 들어나요. 그러니까 매핑을 하려고 하면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한 예로, 저한테는 지금 블루오션 중의 하나가 ‘삼국지 아틀라스’ 인데, 중국에서 삼국지 마니아, 덕후들이 3천만이라요. 중국에는 대학에 삼국지학과가 있습니다. “너 뭐 전공이냐?” 물어보면 “유비 전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가적으로 키워요. 여기서 삼국지의 경우를 보면, 유비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시공간 매핑이 잘 안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을 했다가 어디서 묵었으며, 며칠이 걸렸으며, 이런 걸 추적하기가 무척 힘들습니다. 근데 이게 매핑 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인데, 어디서 빠지는 부분들을

찾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장치분석의 공간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연구와 과정으로서의 지리학’입니다. 코렘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개별 플레이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레이어들을 모으고, 통계를 일러스트로 바꾸고, 통계 데이터를 뽑아 일러스트로 엮는데, 이 엮는 레이어들이 무진장 많고 업데이트도 계속 돼야 하는데, 그걸 혼자 다하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집단연구가 되면 생각보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리교사연수를 해보면, 학교 선생님들끼리 코렘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리교사들이 거의 동시에 특정 요소들에 대해 수집해서 같이 한 번 짚아서 비교해봅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조사를 시킬 때도 굉장히 쉽습니다. 맵핑을 갔을 때, 담배 가게만 조사해서 맵핑 해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학생한테 목욕탕 조사해라고 해서 트레싱페이퍼나 OHP 같은 데에 레이어를 해 놓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끼고 빼고 끼고 빼고 하면서 보면, 순간적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공간적으로 그 지역을 특징화 해버립니다. 공간적인 사고가 굉장히 빨리 되고, 아주 쉽게 연결이 되니까 집단 연구로서는 좋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고등교육과 기초교육이 연결되는 루트가 바로 생겨버립니다. 아이들이 만들어놓은 작은 레이어들도 고등교육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대림동, 부천 쪽에 레이어들을 짚어서 했던 것들을 대학교수가 순간 끌고 와서 몇 개 결합을 해서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고등학교 지리와 중학교 지리와 대학교 지리가 다 괴리가 났었는데,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소통창구가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리학은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고 ‘지리학적인 직관이 있는가와 그 지리학적인 직관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갑니다. 결국은 직관의 문제가 되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설명이 되더라’가 됐을 때 지리학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공간적인 사고방식, 가소성plasticity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주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참한 상태예요. 지금 점점 더.

멘탈 맵이라고 해서 인지도(인식도)를 쪽 돌려보면 신도시 아이들은 공간인지나 공간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잉시티⁰⁵가 작업했던 걸 봐도 그렇고, 애들이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해서 그냥 점, 점, 점이고 나머지는 그냥 워핑warping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의 약도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애들은 503동, 504동 이런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는 선을 쪽 굵고 곧 바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한 8년 됐나요? 용인 죽전지구에 있는 애들을 플라잉시티가 경기문화재단 지원 받아서 했거든요. 한 걸 보면 거의 애들의 머릿속이 우주예요. 그냥 버블이 되어있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있습니다. 그 단지 옆에 쌀가게가 있는지, 구멍가게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다 아빠, 엄마 차타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

05 플라잉시티flyingCity는 미술가 그룹으로 공공공간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공공미술기획 작업을 하고 있다. 2002년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도와 도시계획놀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아이들의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면 공간이 달라지는 거죠. 제일 우스웠던 게, 제가 청계천 사무실에 있을 때 택시를 타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길치 중의 길치예요. 한 다리 건너면 바로 청계천인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뺑 돌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기는 을지로3가 역하고 종로3가 역하고는 지하철로 점핑을 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연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간언어’가 60년대부터 좌파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공간언어가 능력이 될 수 있고, 부르디외 식으로 따지는 ‘문화자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민의 아들보다는 확실히 기업가의 아들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공간을 소비하고 많은 공간에 대해서 자산화 시키고 자본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세습의 문제라든지 다른 자본으로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방금 이런 이유 때문에 남미 같은 지역을 보면 오히려 잘사는 애들의 공간인지空間認知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대한 영토게임은 늘어 가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노점상의 자식들이 제일 잘 알고, 범죄자들의 공간인지가 훨씬 더 뛰어나고 조합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릴라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리학자들이 그 태제를 폐기해버립니다. 그것처럼 지리학적으로 직관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얻어낼 것인지,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인데요, 서울 청계천에 가보시면 쥐가 되게 많아요. 그 뒤 블록에는 고양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혹시 청계천에서 고양이를 보시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고양이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고양이는 공간 네트워크가 청계천같이 라인형태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안 들어갑니다. 청계천 다리 양쪽에서 포획자가 오면 올라가야 되는데 축대는 못 올라가고 반대쪽은 고양이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물이고, 그러면 중간에 갇혀서 자기가 잡힐 걸 알기 때문에 그 루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매치기라든지 지하철역이나 코엑스에서 움직이는 범죄자들의 동선도 결국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네트워크가 되면서 여러 개의 루트를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따라서 공간조합능력이 달라지는데, 이 조합능력이 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매핑을 할 것인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결과물로 비틀어낼 것인지 인데요. 중요한 건 백화점에 있는 동선은 네트워크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점점 더 시장판으로 만들어 버려요. 노점도 비슷해요.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과 노점, 매대와 매대 사이의 폭과 백화점에 있는 매대와 매대 사이의 폭을 비교해보세요.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추analogy를 해서 만들어요. 사람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네트워크가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헤매면 헤맬수록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흐름의 정치에서의 묘한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돌아야 되고 물건이 돌아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계속 도는 것들을 만드는데, 한 쪽으로 도는 것들을 만들면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좋은 쪽의 흐름과 나쁜 쪽의 흐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약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시장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밀수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하나의 순환circulation이 있으면 그 안에는 도둑의 흐름도 있고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실존적인 강화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복수로 존재를 하는데, 이 복수들 사이에서 빈틈들을

어떻게 짚고 이야기를 할 건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알랭 레이노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이 사람은 지리학에서 흐름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구조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부터 흐름의 시대”라고 말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흐름은 매핑이 제일 힘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와 역동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거기서 직관을 어떻게 끌어내 가는가가 지역연구에서 하나의 따끈따끈한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임동근 :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코렘 강의가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PT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코렘 설명이 좀 작아지고 다른 설명이 좀 늘어났습니다. 인식론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 :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어렵고, 어떤 부분들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되게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임동근 소장님의 <팟캐스트 김종배의 시사통>에서 진행하신 <지리통>을 다 들었어요. 오늘 강의에서 정치지리학, 도시지리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지역연구방법론으로서 맵핑이나 모델링,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임동근 : 네, 방법론 methodology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수업을 프랑스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지리학적 인식론 수업을 보통 석사 1학년 때 듣는데, 교수가 자기 얘기만 계속 해요. 자기 논문 어떻게 썼고, 어떤 주제 했고, 뭐 했고 1년 내내 그냥 그 얘기만 계속 듣습니다. 어떨 땐 교수 집에 가서 듣기도 하고, 유럽식으로 그걸 들어가는데, 이게 핵심 코드라는 걸 졸업 할 때쯤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문제설정 problematic, 가설 hypothesis, 방법론 methodology, 이 삼박자를 갖다가 그 쪽에서는 박사과정에서 다 끝내기를 바라는데, 우선 '문제설정'이 다르면 학생을 안 뽑아요. 예를 들면 내가 대중교통 하고 싶다고 대중교통 전문 교수를 찾아가는데, "저는 대중교통의 CCTV에 관심이 많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 나는 대중교통시간표에 관심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소재가 같아도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 문제설정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이 나오는데, CCTV나 치안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잡는가라는 것이죠. "CCTV는 범죄 잡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가설을 내가 잡겠다고 하는데, 그 가설 가지고 논의가 되면 교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나랑 다른 가설을 세웠다고 하면 포지션이 다른 거거든요. 우파와 좌파를 순식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고 나면 '방법론' 인데, "저 통계 돌리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난 니가 가지고 있는 문제설정과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방법론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론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게 인식론 수업인데, 그 중의 하나가 방법론이었던 거죠. 여기는 몇 가지 우회로 넘어간 게 있어요. 하나는 지역전문가라고 해서 그 지역을 반드시 알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일단 비교 가능해야 되고 스케일 점핑하면서 그 지역을 설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한 모델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만 아는, 전문가들만 아는 언어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통계지표만 만들어 내면, 그건 너만의 성을 갖는 거고 그 안에서 갇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문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너의 네러티브가 뭐냐, 너의 직관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어떤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경우에, 박정희 시대 때의 자유주의 통치성이 엄청나게 썩었다. 이때까지 박정희라고 하면 권위주의 정권, 독재주의 정권, 독재권력 하면서 들어가는데 제 논문에서는 주민등록 통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유주의 통치성이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살짝 바꿔주는, 이러한 자기만의 독창성, 특이성이 있어야지만 '너(만)의 방법론' 으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학파처럼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학제를 한 30년 동안 해본 결과예요.

다학제를 했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 도시과학, 이런 것들은, 특히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파가 되려면 여러 명의 교수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지역학' 이라고 해서 '부산학' 이 됐든 '서울학' 이 됐든, 역사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학문들이 들어가는데, 학문적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수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똑같이 마스터 되도록 하려면, 커리큘럼이 한 20년 돼야 되요. 역사도 한 번 해야 되죠, 경제도 한

번 해야 돼, 그러면 학생들이 못 쫓아옵니다. 이게 영국 논리실증주의 학파들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학생이 똑똑해도 훨씬 더 똑똑한 교수들, 아무리 학생이 책을 많이 읽어도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은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안 가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대학원 애들이 전부 안가요. 갔다가 교수들한테 놀릴 텐데, 맨날 읽다가 끝나고, 그 교수들 밑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그 안에서 마스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학문이 힘들어 지는 것들, 다학제가 만들어 지면서, 특히 '융복합' 이 만들어지면서 힘들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적인 고민들 속에서 결국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쉬워야 된다, 직관만 보여줘라. 일단 그게 중요하지 그 다음부터 알아서 채워 나가는 식의 아카데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없이 쓰레기 같은 논문도 튀어 나오고, 한 없이 어려운 논문도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임동근 강연〉, 2015, photo by 고상석



김영미_서울대학교 국사학 박사. 한국현대사회사 라는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였으며 인류학과 역사학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저서로는 도시 주민사회사로 접근한 『동원과 저항 - 해방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2009, 푸른역사), 농촌 주민사회사로 접근한 『그들의 새마을운동』(2009, 푸른역사)가 있다. 현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ym6102@kookmin.ac.kr

농민의 시선으로 본 새마을운동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국사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예술가분들이 초빙을 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구요. 이런 기회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에 두 시간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학문의 소비 패턴이랄까요. 연구자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 그러니까 좀 진정성 중심으로 소통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교 바깥에서 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과 만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만나는 자리는 꼭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관점

제가 『그들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책을 발간했던 때가 2009년이고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저의 박사논문이었던 『동원과 저항』이라는 책도 발간이 되었는데, ‘해방 후 서울의 주민사회사’를 다룬 도시지역 얘기였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을 다룬 새마을 운동이 특별히 관심을 받았던 것은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뒤집어엮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점은 첫째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라는 것이죠.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새마을운동의 업적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72년 당시 유신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 민주적인 질서를 후퇴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상당히 악화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새마을운동의 이전과 이후를 살펴봤더니, 이걸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유신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실추되었던 박정희 정부의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그 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나? 하는 것은 농민의 관점에서의 평가이고, 실제 박정희 정부의 관점에서는 이 운동이 국제정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오면 제일 먼저 ‘새마을 모범부락’을 시찰하도록 해서, 이렇게 한국이 바뀌고 있으니 외국의 원조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쓰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변화·발전상을 바로 즉각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손님들이 모범마을에 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손님 접대를 굉장히 잘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정치적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박정희 정부의 ‘찬란한 영광의 발자취’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10년사》(1980, 내부부 발간)를 정리한 책을 보면, “우리의 한반도 역사는 새마을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뭔가 발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던 마을이 새마을운동 결과로 뭔가 해 보려고 하고

환경적으로도 바뀌고, 정신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5천년의 역사를 새마을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할 정도로 새마을운동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어지고 있는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가나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새마을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나에 가도 새마을 깃발이 날리고 있고 새마을 우물, 새마을 학교, 이렇게 ‘새마을’이 수출되고 있고 정신적 한류의 첫 번째인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80년대 진보적인 시각들,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 학생운동, 그 외 시민운동 측에서는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유신체제와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주민동원 행위였던 것이지 그것 자체가 농촌을 잘 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죠. 새마을운동의 강제동원의 성격들, 권위적인 동원체제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새마을운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저의 결론은 뭐였느냐? ‘서로 다른 새마을운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새마을운동을 했던 농촌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의 주체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부가 생각했던 새마을운동은 서로 다른 새마을운동이었고, 서로를 활용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또 서로 배신하기도 하는, 그렇게 서로 다른 결들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둘러싸고 교차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970년대 농촌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하는 보수적인 시각과 박정희 정부가 농촌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는 진보적인 시각, 그 양자의 시각 모두가 ‘국가결정론’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가가 ‘좋은 국가’였기 때문에 농민들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라는 부분과, 하나는 국가권력이 굉장히

독재적이었기 때문에 농촌을 그렇게 붕괴시켰다, 재생 불가능하게 자율성을 완전히 실종시켰다고 하면서, 그 모든 변화에 어떤 동력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떠한 전지전능한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도 역사를 좌우할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상식적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바꾼다고 했을 때, 미국은 뭐 세계 역사를 다 바꾸나? 그 다음에 뭐 이승만 정부는? 박정희 정부는? 근데 한국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국가권력이 혹은 정치권력이, 전능한 정치권력이 혹은 나쁜 권력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권위적인 결정론에 보수적인 시각이나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 둘 다 그 결정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 역사결정(론), 엘리트주의적 역사해석, 그런 관점에서 서 있다는 게 저의 결론인 거죠. 그럼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그게 제 연구인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그 기원과 출발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꽤 재미있는 것은 그 기원과 출발인데요. 현재 4월 22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새마을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국가기념일로 은근슬쩍 만들어놨어서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럼 왜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이냐? 새마을운동이 출발 할 때 박정희 정부가 뭔가 플랜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조하는 마을은 빨리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마을은 5천년이 지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앞으로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일을 구상하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부락이

총 동원되어 하면서 힘이 모자라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말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얘기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주목이 되는 건데, 이 4월 22일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 박정희 정부는 60년대 ‘부락민 자조개발 6개년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했었거든요. 농촌 32,000개의 마을을 동시적으로 개발한다는 플랜을 만들어 냈는데, 실제로 60년대 경제개발에서 박정희 정부의 모델은 공업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공장을 짓는데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농촌에서 32,000개 부락에 길을 닦고 지붕 개량하고 거기에서 무슨 과수원 조성하고 축사 조성하고 하수도 개선하고 하는 데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매 번 보류를 하고 있으니까 60년대 말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도농都農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진 거죠.

지금 중국이 도농격차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앓고 있잖아요. 중국이 새마을운동 ‘수입1호’예요. 중국의 ‘신농촌건설新農村建設운동’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거죠. 중국 농촌에 가 보면 기와집 비슷한 새로운 주택을 왕창 조성해 놓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신농촌’,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만들어 놓은 마을이에요. 근데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들어가는(입주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농사짓기 너무 불편하네요.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박정희 정부는 60년대 말에 당면하게 되는데 도농격차의 심각성이거든요. 50년대 말에는 서울의 경기도 같은 명문 고등학교를 나와서, 혹은

대학을 나와서 농촌(농업)을 선택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가족문화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시에서 취직하기보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50년대 말까지만 해도 농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간 친구와 농촌을 선택한 친구가 60년대 말이 딱 되니까, 은행에 취직한 친구는 월급을 상당히 많이 받고 거기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농촌은 계속 담보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들 사이에서 도농격차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박정희 정부도 10년 동안 미뤄왔던 농촌개발에 대한 압박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게 바로 7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습니다. 71년 대선에서 누가 떴어요? 김대중이 돌풍을 일으켰던 대선이었죠.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있었는데 공화당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죠.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던 이유가 '삼선개헌'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도농격차에 대한 불만이 농촌에서 공화당 표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리더로서 어떤 식으로든 최선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70년 4월 22일 발표의 배경을 보면, 박정희가 농촌의 가뭄피해로 시찰을 갔어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 도로도 잘 뚫려 있고 지붕도 개량이 되어 있고 뭔가 이걸 일본농촌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을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마을에 1950년대 후반에 뜻있는 (마을)지도자가 있어서, 제대를 하자마자 와서는 새로운 영농법을 실험해서 과수도 재배하고 길도 좀 넓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단합하고 노력해서 소득도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니깐, 박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들고는 뭔가 반짝하고 떠올랐던 거예요. 저런 마을은 조금만 도와줘도 금방 잘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4월 22일, 박 대통령이 말했던 게 뭐냐 하면, 32,000개의 모든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겠다는 마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안 하겠다는 마을은 안 도와준다, 그래서 하겠다는 마을에서 플랜을 제시하면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새마을운동 기념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마을을 보고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느냐고 했을 때,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리가 발상지로 처음 주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포항의 문성리가 우리 마을이 모델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또 조금 있다가는 (경남) 기장의 만하리가 우리 마을엔 ‘새마을운동중(새마을중)’ 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일제 때부터 ‘심훈의 『상록수』의 배경이 우리 마을인데 우리 마을이 바로 ‘원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 라고 하면서, ‘새마을운동 원조 발상지 논쟁’이 막 붙었거든요. ‘누가 원조면 어때서, 왜 저 난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조 마을에 막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죠. 지금 (청도) 신도리에 가보면, 굉장히 치장한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성역화가 이뤄지면 지자체에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니까, 경상북도 도지사가 나서서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경상북도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포항도 청도도 다 경상북도니까, 경상남도 기장 만하리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경상북도, 발상지는 신도리, 발생지는 문성리,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문성리에 가면 새마을운동 발생지를 알리는 기념물이 만들어져 있고, 신도리에 가보면 발생지 기념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게, 바로 4월 22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마을을 보고 이 생각을 했는지가 지금도 미스터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문제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의 확대

어쨌든 4월 22일, 그 날 이 얘기를 했을 때,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별로 안 벌어져요. 대통령의 지시가 한두 번 있었나? 이승만 대통령 이래, 일제 강점기 이후 국가의 지시는 늘 있었죠. 좋은 말들 늘 했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움직일 동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동력이 됐던 게,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대학교의 쌍용재단인데요, 그 때 김성곤 씨가 그 해에 만든 ‘쌍용시멘트’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각하, 큰일 났습니다. 시멘트가 수출이 안 되가지고, 시멘트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지지부진한 새마을운동의 동력으로 이 시멘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32,000개의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를 싣 보내라. 그래서 그 시멘트를 잘 쓴 마을은 내년에도 또 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전국 33,267개 동·리에 335포대의 시멘트를 무상지원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1년 후 사업성과를 보니까, 16,600개의 마을이 그 시멘트를 가지고 잘 쓴 거죠. 그런데 농촌에 내려가서 인터뷰를 해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나면, 시멘트를 준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멘트만 가지고 뭐하겠어요. 시멘트를 가지고 뭐 우물이라도 만들거나 뭐라도 개수를 하려면 모래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자갈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건비. 그거 사람들이 전부 노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딱 줬더니 그 시멘트를 가지고 절반의 마을에서 인근 군부대에 가서 배합 비율도 물어가며 (사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건어서 모래와 자갈을 마련해서 훌륭하게 사업을 완수 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멘트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마을의 중요한 10가지의 용도를 지정하라는 겁니다. 절대 개인에게 n분의 1로 못 나눈다. 팔아서 안 된다. 마을의 숙원사업에 쓰라. 그러면서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0개를 지정해 주면서 그 중 한 가지(사업)에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16,600개의 마을에서 그걸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 값이 비싸겠어요? 모래-자갈-인건비 합한 것이 비싸겠어요? 세 배는 더 비싸죠. 모래-자갈-인건비가. 그러니까 동원이라 그런 거야. 시멘트 한 부대를 주니까 시멘트 세 부대의 비용을 마을이 내놓은 셈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전의 '부락 자조개발 6개년 사업'은 인건비까지 국가에서 다 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모래, 철근, 자갈 값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젠 시멘트만 딱 주고 다 쓰면 또 준다고 해 놓으니까, 시멘트 가격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마을이 내서 무상노동으로 그걸 다 한 거예요.

이런 성과를 보고 박정희 정권이 놀란 거예요. '되는구나.' 이걸 뭐냐 하면, '주체'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지요. 마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운동을 1972년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0년, 71년을 거치면서 마을의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것을 박정희 정부의 농촌개발의 종합정책으로서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1972년에 실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을 농촌새마을운동(환경개선, 정신개발, 생산소득사업), 그 다음에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도시, 공장, 직장, 학교 새마을운동이 추진됩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총화단결을 목표로 하는데 주로 정신적인, 주로 청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1971년에서 78년까지 새마을운동의 주민부담액은 정부투자의 약 세 배, 투하된 총 자원은 1조 9,919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투자액수는 전체의 28% 552억이라는 거예요. 정부투자액수가 28%고 나머지 72%는 지역사회와 성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정부에서 왜 새마을운동을 수입하려고 난리냐? 국가경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28%의 재원만 줬는데, 나머지 72%를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다 내서 완수를 하게 되니까 국가투자자본의 세 배의 효과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국가경영 혹은 공공경영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웃기는 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 대한 평가인가라는 것인데, 국가경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낙후된 농촌에 최소한의 자본을 이용해서 그 몇 배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총동원체제가, 농촌개발을 위한 총동원체제가 바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도농격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박정희가 그렇게 자기네들과 똑 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농촌 낙후문제를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달성 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과가 뭐냐 하면, 농촌이 일정하게 발전을 해야지 근대화된 산업에 대한 소비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농촌이 계속

낙후되어 있으면 아무리 산업을 발전시켜도 누가 사줄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촌이 일정하게 구매력을 확보해서 도시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을 소비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비주체의 창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위해서라도 도농격차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런 면에서 새마을운동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하는 게 바로 새마을운동을 보는 긍정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새마을운동의 동력과 주체

새마을운동이 왜 그렇게 잘 됐느냐고 했을 때, 정부는 촉발을 시켰고 방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에서는 농촌 엘리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멘트를 주면서 새마을운동을 하라고 했을 때, 농촌에서는 거기에 손뼉을 마주쳐준 동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남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도 농촌을 선택 했는데 도시는 지금 좋은 집,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냐, 그런 불만이 있었던 농촌 엘리트들의 소외감이나 서운했던 부분들을 정부가 주목을 해주니까 그들이 농촌 근대화, 잘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거죠. 그래서 농촌 엘리트들의 농촌 근대화에 대한 욕망이 분출이 되었다는 거죠. 농민이 정부(지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새마을운동 양상을 보면, 잘 사는 마을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 마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엘리트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 가서 제발 우리 마을에 지원을 해 달라 얘기를 하니깐, 대표적으로 평택에 있는 칠원마을 경우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예요. 그 마을 경우에는 '시범목축단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지원 받으면 돈이 되겠거든. 지붕개량은 돈이 안 되잖아요. 목축시범단지 조성을 하면 용자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유를 생산하게 되면, 그건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니까. 그 마을 엘리트들이 평택군청에 찾아 가서 그거 우리 달라 얘기를 하니까, 평택군에서 현장시찰을 하더니 사진이 안 나온다는 거야. 뭔가 전시 효과가 중요한데, 이 마을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마을도 아니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마을은 우선 지원대상이거든요. 시각적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 집들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처럼 전형적인 목축단지의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의 엘리트들이 “아니, 목축을 하는데 마을이 밀집되어 있으면,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면서, “우리 마을처럼 드문드문 있어야지. 여기에서 소들을 키우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 실제로는 우리 마을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찾아갑니다. 결국 따내는 거죠. 그렇게 지역의 엘리트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건 되는 거다.”라고 설득을 해서 농민들의 동의를 받아 (새마을운동을) 해나갔던 것이죠.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부도 농민을 이용을 한 것이지만 농민의 정부동원, 정부가 뭔가를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있어서 자금을 설득해서 따와서 자기 마을의 근대화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중강연을 할 때 과거 ‘새마을지도자’ 였던 분이 와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고맙다는 거냐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박정희에 대한 비판론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박정희 시기에 했던 모든 사업들이 다 평가절하되면서, 본인들이 박정희랑 똑같이 매도되는 걸 보고, 사실 자기들은 공화당을 위해서 뛰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을을 위해서 뛰었는데, 또 새마을운동 실적 나쁜 공무원들 일제히 다 잘라버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 하면 자기 농사는 다 망가지거든요. 마을 일 맨날 해야 되는데 언제 농사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을의 지도자들이 뛰느냐? 고향이니까, 자기 아버지, 할머니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곳에 선산이 있고, 내가 그 곳에 묻힐 것이고, 우리 삼촌, 큰 아버지, 다 혈연집단이잖아요, 시골이. 그렇기 때문에 향촌애가 그들을 뛰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지도자로 활동한 것을 마치 자신을 박정희 꼬나풀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독재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폄하한 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지도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분의 관점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뛰었던 동력 자체는 상당히 이질적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왜 동원되었나?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가?

반면, 실제 마을에는 엘리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새마을운동 때문에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손해 본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무 마지기 정도의 농토가 있으면 농촌에서는 잘 사는 농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논 한 서마지기 정도밖에 없으면서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읍내 가게에 나가서 일하는 이런 영세민들의 경우에는 이 마을의 발전이 자기 발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아미리 마을에서 한 어르신, 그 분은 굉장히 하층민이죠. “어르신,

새마을운동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뭐냐?” 라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요.” 했더니, “그게 뭐냐?” 라고, 그래서 “길 넓히고 포장하고 지붕개량하고 했잖아요.” 하니까, 그런 일은 했대요. 왜냐면 어떤 집에 고용되어 있는 농업노동자였으니까. ‘종’은 없어졌지만, 실제 ‘머슴’ 이라고 하는 단어는 70년대까지 쓰였거든요. 70년대까지 머슴을 두고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집 머슴이기 때문에 그냥 일하러 간 거예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길을 닦으러 간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니까 일을 하러 간 겁니다. 그 어르신의 기억은 ‘새마을운동’ 으로 기억된 게 아니라, 그냥 ‘일’ 인 거죠. 만일 그 마을이 아니라 읍내에 영세민으로 일을 하러 나가는, 다른 마을에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사람도 부역에 나갈 수밖에, 나가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거거든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굉장히 위해주고 그럴 것 같지만 그 공동체가 행사하는 폭력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주민들을 동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골 마을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결집력, 그리고 마을 엘리트들은 마을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동체 단위로 묶여있는 마을의 특징이 바로 주민동원을 성공적으로 보장했다는 얘기죠.

역으로 도시나 공장이나 학교나, 여기는 공동체가 결집되어 있지 않잖아요. 도시에서도 73년부터 계속 도시 새마을, 도시 새마을이라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도시에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떠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도시 새마을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왜 새마을운동이 농촌에서 성공을 했느냐? 사업 단위를 정확하게 잘 잡은 거예요. 그 공동체,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마을이잖아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역사상으로 볼 때 마을은 신석기시대부터

있었어요. 특히 동족촌⁰¹이 약 300~400년 전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틀을 잡고 조상의 묘소가 대대로 존재하고 있는 마을, 그 마을에서 높은 사람들의 눈 밖에 나면 살 수가 없고 추방되어야 하는, 일제강점기까지 마을 대표는 추방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마을공동체의 결집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걸 박정희 정부가 잘 포착을 한 거죠. 만약 시멘트를 면단위나 군단위로 보내서 뭉하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움직였겠어요? 군청에 나가서 누가 일하겠어요? 그런데 대면사회^{對面社會}인 마을로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정부의 역할이 있죠. 촉발과 방향을 주도하고, 농촌 엘리트들은 억압된 농촌의 근대화에 대한 욕망을 분출할 기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농촌공동체 동원의 기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욕망과 농촌 엘리트들의 욕망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의한 농민동원,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1978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129개 군 전부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지금 UN에서도 파견되고 국제기구에서도 파견이 돼서 한국 농촌 새마을운동은 왜 이렇게 잘 됐는지 조사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새마을운동으로 정부가 국제기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왜 성공했느냐, 문제는 뭐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면담조사를 들어갔어요. “왜 열심히 참여 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응답에 첫 번째가 ‘우리 마을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서(64.5%)’ 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뛰었다는 사람 없어요. 그 얘기는 역으로 새마을운동은 개인의 발전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마을이, 마을 환경이 바뀌는 거지 내가 잘 사는 사업은 별로 없거든요.

01 동족촌(同族村)은 동성동본의 씨족이 한 지역에 모여 생활하는 자연 촌락의 형태를 말한다.

두 번째로 ‘이웃 마을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13.4%).’ 이게 뭐냐 하면 마을들은 응집력이 강하니까 옆 마을과는 안 친해요. 굉장히 이상한데, 농촌 마을에 가보면 옆 마을과 사이가 나빠요. 한마디로 배 아픈 거죠. 사촌이랑 똑같이. 공동체가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옆 마을이 잘하니까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을도) 열심히 하자! 그게 상당한 유발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의 독려 때문에(4.6%).’ 이것은 마을 권력이 구성원들한테 행사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마을 사람의 이목과 체면 때문에(4.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마을운동 참여에 공동체 유발 요인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어서.’ 11.6%, ‘관청의 계속되는 지시와 독려 때문에.’ 2.4%예요. 아무리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라도 정부가 지시한다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새마을운동 때 농번기에 새마을 청소시키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열심히 하느냐? 면 직원(공무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합니다. 왜? 면 직원은 정부가 자를 수 있지만 농민은 못 자릅니다. 어떻게 잘라요? 농민은 자기 땅 농사를 짓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농민을 컨트롤할 기제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으로 컨트롤하겠어요. 용자 안 준다? 그 전에 용자 받았나? 주는 용자도 없는데 농토 뺏을 수 있나요? 사유재산 어떻게 침해해요.

그러니까 농민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 이장을 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장도 마을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서 됐다?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려요. 정부의 정책이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을 자릅니다. 하위 몇 프로 군수, 면장 다 해지시켜버리기 때문에 군수, 면장이 안달이 나서 마을로 출근을 하는 거죠. 공무원들을 닦달하는 겁니다. 농민이 농번기에 누가 청소하러 가요. 농번기에 새마을 모목 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빨리 벼 안 심으면 그 해 농사 망치는데 “미친놈들이야.” 그러면서 안가요.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해주고 ‘우수 마을’ 됐다고 표창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일기 자료를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변화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를 얘기 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마을에 들어간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원래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문헌만 봤다가 실제 문헌에서 얘기하지 않는 농민의 역사, 농민의 경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류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⁰²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새마을운동』의 주인공이 된 한 마을입니다.

1999년 마을로 처음에 들어갔더니 마을회관이 있어요. 굉장히 큰 마을회관인 거예요. 회관에 들어갔더니 1층은 전부 할아버지들의 공간, 2층은 전부 할머니들의 공간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게 한 5억 정도 주고 지은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골 마을에 5억짜리 건물이라면 이게 다 공유지인 거예요. 이게 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지었던 마을회관, 마을 정미소, 새마을운동 때 운영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02 경기도 이천의 아미리 마을을 말한다. 김영미의 『그들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 모범마을로 선정되어 두 차례나 포상을 받은 이천 아미리 마을과 새마을운동의 기수였던 농촌운동가 이재영, 즉 ‘한 마을’과 ‘한 농촌운동가’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마을이 옛날에 어땠는지 얘기해주세요.” 절대로 이러면 안돼요. 그러면 대개가 “뭐 어땠어? 그냥 그랬지. 다른 마을이랑 똑같지 뭐.” 이렇게 밖에 안 나오거든요. 갔더니 비석이 두 개 있어요. 마을조사의 기본 원칙은 들어가서 항상 기념물, 마을의 기념물이 뭐가 있느냐를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 이거 무슨 비석이에요? 의미심장한데.” 그러면 “아, 그건 노구장⁰³님 비석이에요. 노구장님 비석과 하나는 신구장 비석이에요.” 그래서 “노구장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일제시기에 새마을운동 지도자였지.” 그러는 거예요. 일제시기 새마을운동? 이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있는 만큼의 개념이 없던 때예요. ‘어? 새마을운동이 일제 때 뻘어?’ 일제시기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고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가로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연을 듣는 거죠. “이 노구장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이장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노구장의 전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노구장님 비석이 조그마했는데 50년대 신이장 비석이 세워지고, 우리 노구장님이 신이장보다 더 작은 비석일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커다랗게 신이장 비석과 똑같이 새운 거라고.

제 1기. 식민지 경험 : 농촌진흥운동의 신화

이 노구장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사진들도 우리가 수집해야죠. 항상 자료에 얽힌 이야기를 수집해야 구체적인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새마을운동기간에 지어진 마을회관이야.” 1935년경에 지었던

03 구장[區長]은 지금의 이장[里長]과 같은 역할로, 시골 마을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불렀다.

이 마을의 공회당⁰⁴ 건물이에요. 이 공회당을 지을 때 노구장님이 이 터를 마을에 회사를 했고, 공회당 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자’ 라는 문구도 적어 놓고 이 분이 근면성실을 주장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 최초로 공회당을 건립했고, 노름을 금지했고, 금주운동, 단연(금연)운동,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피지 말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구장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애들이 술을 받으러 가잖아요. 술독, 주전자에 술을 받으러 가면 우물 뒤에 노구장님이 숨어 있다가 딱 나와 가지고 “이리 와봐라.” 돈을 뺏고, 그 다음에 그 술 주전자에다 우물물을 길어주면서 “조상님은 잘 사는 마을에서 술대접 받길 원하시지, 이렇게 못 사는 데서 술 먹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 이거 저축해라.” 그래서 그 돈은 저축하고 제사상에는 맹물을 올리게 하는, 그렇게 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실질적인 관념들을 어린애들부터 심어 줬다는 거예요. 공동노동으로 부녀회에서 면화 밭도 경작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비축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쌀을 융자해 주고, 그런 식의 활동이 우리 마을의 새마을운동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운동의 정체가 뭐냐? 그 마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인 ‘농촌진흥운동’⁰⁵이에요. “새마을운동은 일본의 30년대 농촌진흥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이다.”라고 학계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죠. 원래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농촌진흥운동기에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그 학교가 농촌진흥운동을 담당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04 공회당(公會堂)은 대중 집회와 강연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일제시기에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회관,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05 농진운동(농촌진흥운동)에 대해서는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 운동』 자세히 읽기1. <새마을운동과 농촌진흥운동>을 참조할 것.

문경보통학교 분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할 때 나팔을 굉장히 잘 불었거든요. 나팔을 불면서 <농촌진흥가>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다는 게 할머니들 인터뷰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농촌진흥운동을 했고, 그 농촌진흥운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마을에 개별 방문을 해서 가가호호 ‘농가갱생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이후 박정희 때)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농촌진흥운동이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새마을운동은 일제시기에 이미 있었다고, 노구장님은 새마을운동 지도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아미리 마을은 박정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 상을 두 번이나 받습니다. 굉장한 모범 새마을이었고, 이걸 당시에 추진했던 지도자들은 전부 노구장이 농촌진흥운동을 벌일 때 태어나서 (이런 운동의 형태를) 다 봤던 세대들인 거예요. 새마을운동 했던 세대들의 나이가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생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촌진흥운동 시작기에 태어나서, 노구장이 언제 죽었냐면 45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노구장이 하는 것을 다 보고 마을회관에서 ‘근면성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 자체도 자신의 역할 모델로서 노구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구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을을 발전시켜보자. 그 때 처럼.’

그런데 노구장이란 사람을 ‘친일파’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을의 발전을 위하기도 했지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총독부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노구장이, 굉장히 다행인 것이 45년 해방되기 전에 죽어요. 그때 일본인 면장이 마을에 와서 추도사를 읽었고 만장이 펼렸다고 하는데, 그때가 전시체제(戰時體制)라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못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노구장이 면에서도 굉장히 대접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노구장의 아들은 면사무소에

면서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피살돼요. 마을 사람들은 공모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보복으로 이 마을에서는 덮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노구장이 최씨인데 이 최씨의 권력은 계속되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어도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2기. 1950년대의 변화 : 자율적 마을 공동체의 재건립

다음은 전후의 아미리와 신이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왜 비석을 세워줬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이후 마을이 뭔가 공공적으로 바뀌 보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전쟁이 철저히 좌우라는 이념에 입각해서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되는지를 여실히 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50년대에 마을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패배감이에요. 엄청난 패배감 속에서 공공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것은 없어지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씨족 조직들이 활성화됩니다. 해방 당시에는 씨족들이 많이 해체되고 마을 공동적인 뭔가를 조직하고 농민/노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것이 열풍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겪고 나면서 오히려 성씨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씨족 선거야. 신씨 짝을래, 김씨 짝을래, 박씨 짝을래. 씨족간의 투표가 벌어지게 되는데, 아미리 마을에서도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신씨와 임씨의 대결입니다.

이 마을은 신씨 · 임씨 · 최씨, 세 성씨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에요. 최씨는 노구장을 지냈는데 일제시기에 권력이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는 조용히 지내는 거죠. 그러면 남은 두 성씨는 임씨와 신씨예요. 50년대 지방자치단체 면의원 선거를 하니까, 이 마을에서는 신씨 대표로 신구장이 나갔고 임씨 대표가 나갔어요.

마을 주민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 막 싸우고 있었는데, 50년대 농촌에서 돈 되는 게 뭐냐 하면 ‘방아’ 예요. 50년대 이전까지는 방아는 전부 연자방아예요. 그러다가 50년대 발동기로 퐁퐁 돌리는 기계방아(퐁퐁방아)가 나오면서 농촌생산력의 혁혁한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방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계방아를 들여오는 사람은 돈을 상당히 벌 수 있었죠. 50년대 농촌에서 방앗간 주인은 돈 버는 거예요. 당시 아미리 마을에서 신씨와 임씨, 둘 다 기계방아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신씨방아, 임씨방아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면의원 선거에 신씨와 임씨 둘이 면대표로 나갔어요. 선거결과 신씨가 지고 임씨가 면의원이 됐어요. 선거에서 진 신씨가 열 받아서 화김에 방아를 마을에 기증을 합니다. “내가 이 방아 가지고 뭐하겠나.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임씨방아는 (마을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씨가 (마을 공동의 것으로) 희사를 했기 때문에 임씨방아는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되잖아요. 임씨방아는 동네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동네에 방아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게 되니까, 방아를 여섯 번 찧으면 한 번은 동네 기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년대 이 마을에 동네기금이 축적이 된 거죠. 이 마을이 왜 우수 마을이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앗간을 둘러싸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신구장은 노구장 처럼 권위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구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서 방아를 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임씨랑 (선거로) 싸우다가 방아를 내놨고 그 사람이 그렇게 청렴결백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신씨 비석이 세워지니까 옆에 노구장 비도 크게 다시 세운 거죠.

이 때 50년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역연구에 있어서 50년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라는 게 굉장히 미약하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했죠. 반공청년조직 같은 것은 막 활성화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했던 것이 50년대 사회거든요. 그러면서 60년대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50년대 이승만 정권과 비교했을 때)건강성,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50년대 그러한 국가의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마을이 자생적으로 자기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 경험, 그걸 우리는 50년대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대에 농촌 마을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자율적 ‘정미조합’의 결성이라는 것이에요. 돈과 땅이 아무리 많아도 방앗간에는 한 구좌 밖에 못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농가가 70호잖아요. 그러면 70호는 공평하게 방앗간 한 구좌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앗간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윤도 딱 그 구좌 당 배분을 해서 연말에 이익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선시대의 농촌 마을에서도 양반이 어떤 상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계급관계를 마을 내에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양반이든 평민이든 누구나 다 동네에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기 노구장이 마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의 ‘농촌진흥운동’이라는 후광 속에서 행사되는 권력이지만, 50년대의 자율적 정미조합의 결성은 아무런 국가 개입 없이 마을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자기 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自治’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경험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3기. 1960년대의 변화 : 마을권력의 세대교체

60년대에는 마을 권력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데, 60년대 이 마을에 나타나는 특징은 일단 이장이 전부 30대로 바뀝니다. 왜 60년대 이장이 30대로 바뀌게 되느냐? 마을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의 어떤 행정정책에 마을이 대응을 잘하지 않으면 부채를 막 지게 됩니다. 특히 50년대에 농민들에게 가장 귀했던 게 뭐냐 하면 비료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료를 농민들한테 하나하나 계산해서 나눠주면,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농협이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비료를 어떻게 주냐 하면 마을 할당제로 줍니다. 그래서 선이자까지 받아요. 이장이 50근을 가지고 와요. 두 달구지, 세 달구지 가지고 오면 이제 신청을 해요. A호는 몇 키로, B호는 몇 키로. (장부에) 적고 이자는 얼마가 붙었는지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학(漢學)했던 구장은 일일이 장부 정리를 못하죠. 근데 농협에서는 마을 부채로 이것을 총액으로 매겨버리니까 마을이 어때요? 부채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마을 부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장은 부채를 너무나 많이 지고 파산을 해서 촌을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어요.

행정 권력은 근대화되어 가지만 근대화된 행정 권력이 아직까지 근대화되지 않은 농촌 마을에 대한 착취구조가 형성되는 게 50년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그것에 영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장들은 이자를 받아요. 예를 들어 추수기에 한 쌀 2.5말 이렇게 받으니까 돈이 되잖아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이장이 되면 매 호당 2.5말씩 돈을 받으니까 이장을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채를 잔뜩 지게 되는 거죠, 행정능력은 없이 대대로 이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60년대라는 시점, 왜 새마을운동이 70년대에 성공하게 되느냐? 새마을운동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농촌에 근대교육이 확산되는 게 30년대 후반이에요. 20년대까지 엄청 잘사는 사람들만 보통학교 다니고 농촌에서는 학교 잘 못 가요. 그러다가 30년대 중반 가면 일제가 조선인들을 의식화 시켜야 그 다음 단계로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만들었고 간이학교나 강습소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근대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뭐고, 근대라는 것이 뭐고, 미신을 타파해야 되고,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근대 교육을 받게 되는데,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반 농촌에서는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제가 조사한 이전에서는 부발초등학교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30년대 후반에 학교를 가게 되죠. 그러면 30년대 후반에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해방 무렵에는 이 사람들 어디를 가게 되나요? 중학교를 가게 되죠.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이력을 한 번 보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중학교를 가게 되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의식’ 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뭐가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950년 12월에 징집 제도가 실시가 되잖아요. 한국전쟁 때 군대 가서 3년 혹은 8년, 공병대는 8년 동안 제대를 안 시키거든요. 그렇게 군사교육을 받고 마을에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근대화된 새 농민인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랑 완전히 다른 인간형의 새 농민들,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세대교체가 60년대 됐다는 거예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일제 말에 초등학교를 나오고 해방 이후에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한국전쟁에 징집이 되는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 군대에서 신체에 각인되는 규율들을 몸소 체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철저한 시간관념으로 5시, 6시 일어나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하고 마을에 와서 풍경을 보니까 노인네들이 시간관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배만 부르면 되고 뭐 할 의지라는 건 없고 지저분하고, 군대 같았으면 난리 나지.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마을)부채는 많고 장부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수확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이장이랍시고 막 나와 가지고, 기가 막힌 상황 인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제 4기.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의 조우

그래서 새마을운동들의 성공사례라고 하는 마을을 보면 대체적으로 50년대 후반부터 제대 군인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할 때 군가를 많이 불러요. 새마을운동이란 굉장히 남성적이거든요. 여자들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50년대 후반부터 마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칠원 마을의 한 어르신 의 자료에 의하면, 이 분이 논산 훈련소에서 근무했고 훈장까지 받으신 어르신인데,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마을에 왔더니 부채가 엄청나고 서로 이장하겠다고 난리고 그래서 “제가 그럼 총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마을 총무를 맡아서 1년 동안 장부정리 짝 해서 비료대금 해가지고 농협에 가서 일괄 타협을 했대요. 내가 일괄적으로 줄 테니까 부채를 20% 깎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20% 부채를 깎고 5년 만에 흑자로 만든 거예요. 고등학교 출신에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음 구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로서 행정업무를 잘 해서 바로 ‘청년이장’이 됐고, 이전에 마을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서 우수한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들이 바로 새 농민들인데 그 역할모델이 노구장이고 그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했던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다 30년대 말부터

40년대까지 부발초등학교 동창들이구요.

한국의 전체 마을현상을 보면 1960년대부터 30대 초반의 ‘청년이장’ 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되고, 이 청년들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신학문, 근대교육을 받은 ‘새농민’이라는 겁니다. 근대교육 1세대, 징병 1세대, 농촌 출신, 애항심, 농촌에 미래를 건 엘리트들 그리고 외지 경험까지, 전부 다 도시에 가봤던 거예요. 왜냐면 농촌에 중·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외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만 낙후되어 있다. 도시를 따라 잡아야 겠다’는 도시화에 확실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농민잡지>를 받아 봅니다. 선진국 모델, 농촌 근대화 운동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때 칠원 마을에서 나오는 구호가 ‘새마을을 이룩하여 덴마크를 앞지르자’ 이런 것이거든요. 박대통령은 ‘덴마크’가 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럽의 선진) 농업국모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르트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우리도 덴마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덴마크 대통령이 이 마을에 방문을 해서 “우리 덴마크를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들의 새마을 운동

시간 관계상 다른 거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제가 『그들의 새마을운동』 책을 썼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새마을운동은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냈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좌천을 당했는데 죽기 직전에 역사에 바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보가 온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뛰어 갔어요. 충주에 사시는데, 갔더니 이 사람이 경기도에 엽연초(잎담배, 잎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말린 담배)농사를 지도하는 지도원이었는데, 당시 마을길이 안 닦여 있고 하니까, 연초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조시설이거든요, 담배 건조요, 그 건조 시설에 석탄을 떼야 되는데 석탄차가 큰 도로에 새벽 3시에 오면 지게 지고 2km 가서 석탄을 지고 마을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농사 지도를 해보니까 영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강하게 느낀 거죠. 그리고 (초가)지붕을 해마다 이잖아요. 지붕을 개량하는 그 일손을 다른 데 투여를 해야지, 그 짚들은 소를 먹인다든지 다른데 활용을 해야 한다고.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응집력이 있는 마을을 단위로 해야 된다. 어느 날 평택 칠원마을에 가서 그런 얘기로 막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마을)지도자가 그걸 녹음해서 평택군에 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택군에서 나와서 다시 묻고 가더니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대십시오!”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반드시 집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 중에 치매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속장소에) 하루 종일 12시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금방 나갈게, 금방 나갈게, 그래서 12시간이 지나는데도 (약속장소)에 안 나와서 알고 봤더니 그 분이 치매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쑥스럽지만 꼭 그 분의 집에 가서, 안방에 가서, 기록물을 같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1]을 봤더니, 진짜야! 엽연초 생산조합, 엽연초 지도원수료증도 있고, 자기가 엽연초 조합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평택군에서) 이 배지를 새마을 도안으로 써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새마을의 새싹(도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분의 도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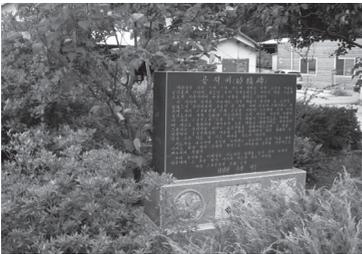
[자료 1. 제보자의 증거물]



이렇게 갔다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 역사에 남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니까 칠원마을에 가면 그 사람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택 조사를 위해 갔더니, 그걸 들었다는 한 사람, 노인은 치매에 걸려서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녹음해 갔다는 김기호라는 분은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허탈한 마음에 김치찌개를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좀 괜찮은 식당에 가면 대부분이 토박이예요. 마을에서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는 토박이들한테 영업을 허가하기 때문이죠. 식당에 갔더니 놀랍게도 이 칠원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엄청난 마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김기호라는 분은 마을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분의 딸이 지금 평택문화원장으로 있더라구요. 그럼 그 김기호 씨가 왜 녹음을 해 갔느냐? 이 사람은 준비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엽연초 지도원이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하면 마을이 발전할 것 같거든. 그래서 녹음을 해서 평택군에 가서 이런 식으로 농촌사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김기호 씨는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의,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논산훈련소에서 행정을 봤던 그 분이 살아 계셨어요. 지금 파킨슨병에 걸려서 상태는 별로 안 좋으셨는데, 이 마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을의 새마을운동은 1945년에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증거를 대시라 그랬더니, ‘새마을 공적비’가 마을에 건립돼 있는데, [자료 2] 공적비의 내용을 보면, 이 마을에서 48년도에 ‘소년단’이라는 초등학생들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마을은 조선시대 주막거리였다가 근대화 과정에서 도로변에서 소외되면서 굉장히 가난한 마을로 전락하게 된 마을인 거죠. 이 마을의 기념물에 적혀 있어요. ‘소년단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그 때 보리이삭줍기를 해서 스무 말이라는 곶보리를 만들어 냈는데, 6.25 전쟁이 터져서 (피난)갔다 왔더니 그것이 도정을 안 한 보리여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한국전쟁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농촌고리대’라는 게 유행을 할 때 보리를 갖다가 소년단들이 고리대를 놓은 거지요. 그래서 고리대가 10년 동안 붙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마을기금이 사전에 축적되어 있었던 거죠.



[자료 2. 칠원마을 새마을공적비]

이 때 사진[사진 2]을 확인한 거예요. ‘64년 2월 5일, 원칠원 청년단’ 이죠. 이 사진에 사람들이 전부 다 꽃을 꽂고 있어요. 군복을 입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소년단이에요. 일제 말기 혹은 해방 이후에 보통학교를 나와서 60년대 청년으로 성장해서 이름을 (소년단에서) ‘원칠원 청년단’ 으로 개명을 하고, 그 소년단 기금으로



[자료 3. 1964년 원철원 청년단 단체사진]

64년도에 수원인가에 가서 마을상여를 사가지고, 그 당시에 상여 빌리는 게 그렇게 설움이었네요. (마을에) 노인이 죽었는데 마을이 가난해서 상여가 없어 남의 마을 상여를 빌려다 쓰니까 노인들의 설움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해요. 수원에서 꽃상여를 사서 (마을에) 들어오는 날 이발을 싹 하고 꽃을 꽂고 흰 장갑을 끼고 ‘소년단’ 이름을 ‘청년단’으로 바꾸고 기념촬영을 한 거죠.

이 청년단들이 그렇게 60년대 대부(貸付)일도 하고 있다가 새마을운동 때 시멘트를 즉각 받아와서 (공동)우물을 개수하고 목축단지사업을 따오고 그러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성공을 이루죠. 여기서 구호로 세운 게 ‘새마을 이룩하여 덴마크를 앞서자’ [자료 3]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사례가 특히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외부동향보고를 했던 그러한 성공사례들은 전부다 그 주체들이 사전에 다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한계

이걸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동안의 담론은 (새마을운동은) 다 국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은 뭐 했냐? 죽어라고 농민들이 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죽어라고 모색했던 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는 (새마을운동의) 주체를 보게 됐고, 그러한 주체들의 욕망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됐고, 그 사업에 농민들이 열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농민들이 원했던 것은 ‘덴마크’ 였고 박정희 정부가 원했던 것은 그냥 심각했던 도농격차를 좀 해소시켜주는 정도? 왜냐면 (농업국이 아닌) 공업국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화당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로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더 중요했던 거거든요. 토목공사만큼 가시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원했던 것은 다리 놓고 지붕 고치고 길 닦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난 이후인 1976년부터 새마을운동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가거든요. 길은 다 닦고 지붕개량 다 했고 다리 다 닦았는데,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오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농촌에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새마을운동이 소득배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은 새마을운동이 잘 된 마을일수록 지도자에게 “당신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도시 사람이



[그림 3. 새마을 이룩하여 덴마크를 앞서자]

와서 천 원 더 준다고 하면 팔겠느냐? 아니면 천 원 덜 주는 이웃에게 팔겠느냐?” 그랬더니 천 원 더 주는 도시 사람한테 팔겠대요. 왜? 영리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신은 도시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고향을 지키겠느냐? 도시로 나가겠느냐?” 도시로 나간다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식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마을 공동체단위로 투입이 되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가운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마을기업형태의 소득증대를 일으키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예술영역에서도 이런 공동체 단위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들을 예술로 표현하는 활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금의 마을만들기가) “새마을운동과 굉장히 유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렇게 비교 할 수 있는 사례라든가 연구가 좀 부족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문제점.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의 새마을운동과 도시에서의 새마을운동이 있었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형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분위기는 농촌보다는, 대부분의, 인구의 90% 정도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의 (마을공동체)사업들도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 공동체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마을운동의 경험 속에서 지금 현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라든지 커뮤니티아트 이런 사업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혹시 교수님께서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것이 잘 하고 있는 방향이다, 아니면 이런 점이 좀 잘 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김영미 : 글썄요, 제가 '새마을운동이 뭐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정의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마을을 바꾸고, 인간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역할을 만들고, 뭔가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뭔가 나쁜 부분을 개선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고, 그런 과정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도 중단된 적이 없는 게 그러한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나는 느긋하게 살고 싶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저축해서 해외여행 가는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하나의 목표를 쫓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고유명사로서 이름을 붙인 것. 제가 "새마을운동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명사로서 새마을운동인데, 마을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운동은 다 새마을운동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당시에 했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자조·자립·근면·협동이라고 해서 스스로 서는 건데 너무 스스로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조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정부는 '지도' 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지도예요. 지도자 연수, 지도자 교육원, 지도자 역할. 그래서 지도의 일괄, 정부가 요구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든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이 4박5일, 6박7일, 10박 이렇게 연수를 시켜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확실적인 목표를 부여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것이 고유명사로서 새마을운동의 방향이었죠. 그게 토목건축에서는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를 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실패하게 되는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던 요인을 살펴보면 주체의 욕망을 잘 수렴 한 거거든요. 농촌 마을의 공동체가 지금 낙후되어 있고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만해 있는데, 뭔가 구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봉쇄되어 있던 구조 속에서 시멘트 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대출도 해주고 농촌이 좋지 도시는 뭐 그러면서 도시를 70년대 얼마나 비판하는데요, 왜 그랬겠어요? 공화당 지지율이 도시에서 바닥을 치잖아요. "도시는 퇴폐의 온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농촌을 부추겨 주면서, 그 점에서 성공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다스리기 위한 욕망은

잘 읽었는데, 그 욕망을 특정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지속불가능성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는 오히려 도시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도시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동체의 구심이 되어야 된다고. 어쨌든 교육 문제가 도시에서는 공동체로서 가장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건 역사적으로도, 제가 『그들의 새마을운동』에서는 농촌을 다뤘지만 『동원과 저항』에서는 일제시기에 농민들이 서울로 막 오잖아. 그랬을 때 아현동이라든지 지금은 잘 살지만 예전에 굉장히 못 살았던 동부이촌동이라든지 이런 마을에서의, 도시에서의 공동체들이 일제 때 굉장히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가는 핵심에 뭐가 있냐? 반드시 마을학교가 있어요. 조선시대도 마을에 학계^{학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또 마을에 지식인들이 그 학교에 가서 야학 같은 것도 하고 방과 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제시기에 이 (도시)마을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잘 운영된 데서 저항운동도 나오는 거예요. 학교 교육비가 비싸고 애들이 멀리 가야 되니까, 동부이촌동에서 운영되었던 그 마을학교는 예전에 있었던 (마을)정자를 마을 사람들이 학교로 개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까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교사가 편찮으면 주민들이 다 가서 일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학교가 또 그 마을 공동체의 운영공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동부이촌동이 범람지역이잖아요. 한강의 홍수가 일제시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본인이 제방을 동부이촌동 바깥에 지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인들은 죽으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동부이촌동에 제방을 건립해달라는 주민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운동의 주체를 딱 보니까 학교를 운영했던 그 마을 공동체가 총독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주민운동의 구심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부촌이지만 옛날에 성북구도 굉장히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성북구도 학교가 있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아이들이 공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과 그 학교에 유치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육아와 노인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공동체의 구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생활 내에서의 어떤 방법들이 건강하게

모색될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 지금 성미산마을 같은 경우에도 반찬 가게도 식당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끈끈하잖아요. 지금 지역운동이 살아있는 데가 과천, 과천도 공동육아가 있고 대안학교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육'과 '교육'이 도시에서는 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돈이 너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공이다 실패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공동체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실패 하더라도 또 만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는 매 순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 필요한 주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방식.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도시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 교육 부분, 육아,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를 확대시켜서 지역 노인들을 돌보면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쪽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은 새마을운동의 발생과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문화에 대한 측면들, 아까 사진에서 칠원마을인가, 거기서 상여를 가지고 왔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연행(演行), 상여나 제사를 통해서 연행을 했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인식했던 것 중 하나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미신타파나 아니면 놀이문화를 상당히 억누르고 개발사업이 많이 요구 되면서 그런 놀이문화나 마을의 굿 같은 것들이 많이 밀려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진에서 상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을 단위의 어떤 연행 행위들도 계속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적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이 주는 폐해를 생각해보면 제가 약간 혼란이 생겨서요.

김영미 : 주목해 봐야 할 새마을운동의 딜레마가 이런 것이예요. 새마을운동에서 마을의 결집력을 만들어내는 그 구심에는 '운명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속학 쪽

조사보고서나, 여러분들 마을에 가서 보시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의 신화공동체예요. 그래서 마을에는 반드시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산이나 나무나 우물. 이렇게 해서 항상 담론이 붙어요. 그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었네, 모든 마을에 다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조, 생각을 해보세요. 미신을 왜 타파 하려고 했나. 마을 사람들이 믿는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냐면, 동제를 지낼 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 씻고 새벽에 산을 올라가 제주祭主를 정하잖아요. 그 제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동제 제주로 정해지면 그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게 동제를 지내거든요. 신이 노여우면 흉년이 들거나 질병이 든다고 마을사람들은 믿었거든요. 1920년 당시 콜레라로 1천명이 죽거든요. 질병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시대였기 때문에 신을 노하게 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였죠. 지금은 동제하면 놀이지만, 그 때는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근데 일제 시기 총독부가 마을로 들어가서 총독부가 무섭니, 동네 신이 무섭니? 당연히 동네 신이 더 무섭죠. 동네 신만 있나? 집에는 터줏대감 있고 부엌에는 조왕신 있고 화장실에는 뒷간신 있고 뭐, 아무튼 집에 수십 개의 신이 있고 마을에 신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마을신의 권위에 총독부의 권위가 안 서기 때문에 미신타파부터 하는 거예요. 미신을 일단 없애고 내가 더 무서운 거 알겠지? 그래야 국가의 명령을 듣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미신과의 싸움을 하게 되요. 이천 아미리에도 마을신이 머문다고 믿었던 '장등' 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시기) 노구장이 장등을 깎아버려요. 거기다 공회당을 지어요. 그 다음에 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장등을 다 깎아버려요. 거기에 마을회관을 이전시켜서 새로 짓는 거예요. 그게 되게 상징적인 거죠. 이제 신성과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도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저거 베었다가는 죽는데' 하는 불안감이 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마을 사람들의 공동운명체라는 결집의 구심이 신앙인 건데, 장등을 없애고 사당나무를 베 버리고 결국은 그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실제로 새마을운동을 만들어냈던 구심점을 역으로 그 운동이 해체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속학자들, 사회학자들의 보고서에 하나같이 미신타파에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한 번은

경찰서의 명령으로 모든 마을의 당산나무 없애라는 명령이 나갔다가, 학계의 강력한 반발로 명령을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짝 보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예요. 기독교 세력이 구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일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고, 마을에서도 교회와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이제 연구가 시작 되는 건데 저는 예술, 문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미 그런 시대잖아요. 저희 국민대학교 맞은편에서 <월월축제>⁰⁶라는 것을 해요. 그 맞은편 동네가 성북구의 북정동이라는 가난한 산동네예요. 저도 거기 가서 마을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예술대 선생님들이 할머니 초상화도 그리고 벽화도 그리고 공연도 하고 제가 가서 이 북정동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마을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구요. 으리으리한 집에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오래된 좁은 골목길을 정돈을 하면서 살 때, 그것이 주는 또 다른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뭔가 소비하지 않으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제 새마을운동이 다시 조명이 돼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포before/애프터after가 나오면, 비포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개천인데 애프터는 시멘트를 짹짹 발라놓고 사업 잘 했다고 얘기를 하죠. 마을 경관을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꾸고 소재를 흙과 돌에서 시멘트로 딱 다 바꿔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경관 자체를 굉장히 훼손시키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행복감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앗아간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현재 그것의 역은(다시 뒤엎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마을운동 때 지었던 건물들을 찾기가

06 성북동 북정길 성곽마을에서 2009년부터 매년 10월 열리고 있는 마을축제이다. '월월'이라는 축제 명칭은 성곽과 달빛(Wall-月) 아래에서 세대 간 벽과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越-Wall)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북구와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주민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국민대학교 교수와 학생들,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멘트로 지어놓은 창고가 이제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싹 없애버리고 벽돌로 해 버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군사문화적인 건축양식을 오히려 예술품으로 (역)이용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공존하는 거죠. 지금 동대문이 그렇잖아요. 동대문을 저렇게 복원한 게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 자체도 예술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아픈 기억도 예술의 대상으로서 다시 활용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1차적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70년대 건물들이.



〈김영미 강연〉, 2015, photo by 고상석



위경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논문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지방의 영화 상영과 ‘극장가기’ 경험」(2010)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광주의 극장문화사』(2005, 다지리), 『호남의 극장문화사:영화수용의 지역성』(2007, 다함미디어)이 있다. 논문으로는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비도시 지역 순회 영화 상영 - 국민국가 형성과 영화산업의 발전」(2008), 「식민지 근대문화의 혼종성 - 1920년대 목포극장과 동춘서커스」(2013) 외 다수가 있다. ghwee@hanmail.net

한국전쟁 이후 극장문화 로컬리티

안녕하세요. 외부에서 강의를 요청을 하면 항상 고민이 돼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제목을 <한국전쟁 이후 극장문화 로컬리티>라고 붙였지만 제가 고민해 왔던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지금 지역에서 예술을 화두 삼아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 때문에 저를 부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 작업을 할 때, 나는 무엇을 고민했는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보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 영화사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 방법,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이제까지 해왔는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뭐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할게요.

어제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정말 듣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왔거든요. ‘지역’과 ‘지방’ 또는 ‘로컬’, 아주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인 규정은 내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성’, 또는 ‘지방성’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서, ‘로컬리티 locality’라는 외래어를 가져다 썼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영화를 선택했어요. 그 이후 저는 영화연구자로서 쫓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중심에 놓고 사회, 문화 현상이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1. 지역 영화사 연구 문제의식

근대성, 토착적 모더니즘, 로컬리티

영화의 시작이 1895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1895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랑카페 grand café’라는 곳에서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상영했다고 영화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1895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회죠. 영화라고 하는 것도 근대사회가 경험하는 하나의 근대성modernity이겠죠.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저의 영화연구가) 출발했습니다.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신분사회와 차별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되고, 기계매체가 그 이전의 생산방식을 완전히 대체를 해버렸고, 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순전히 계급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때 ‘그것이 같은 모양으로 펼쳐졌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착적 모더니즘vernacular modernism’.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미리엄 한센Miriam Hansen(1949~2011)이라고 하는 (독일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영화학자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옮기기가 참 애매한데,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vernacular’ 예요. ‘버네쿨라’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기반한 어떤 문화가 전개될 때,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변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전개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대세계라고 하는 것이 ‘토착적 모더니즘’의 성격을 갖고 전개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가 생성되고 전파되어 갈 때, 그 지역의 (문화에) 어떤 색깔들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로컬리티에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필름 역사 vs 시네마 역사

1895년 12월, 1986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프랑스 파리 그랑카페에서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러면서 “영화의 아버지는 루미에르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1895년에 영화가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벌써 영화는 1894년, 1893년에도 상영이 됐어요.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이 벌써 영화를 상영합니다. 미국에서 영화를 상영했어요. 에디슨의 모든 근대적인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강릉 경포대에 가보시면 축음기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만들었던 게 뭐냐 하면, 그냥 (영화)기계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이’ 영화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에디슨이 영화를 발명을 해놓고서도 ‘영화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뭘까요? 루미에르가 영화를 상영했다는 그 카페, 그랑카페는 아직 파리에 있습니다. 카페라고 하는 대중적인 공간에서 다중을 상대로 영화가 상영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에디슨도 돈을 받았지만 그건 개인에게 받는 거였고, 루미에르 형제가 했던 것은 카페라는 공간에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화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 영화의 역사에 있어서, 영화학자들이 영화를 연구를 할 때 영화의

텍스트에 집중을 했는데요. 영화의 텍스트는 ‘필름’ 이죠. 우리가 영화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무비movie, 필름film, 그리고 시네마cinema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용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무비는 뭐고, 필름은 뭐고, 시네마는 뭘까요?

무비는 사진과는 다르게 움직임이라고 하는 운동성을 강조해서 만든 말이고,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셀룰로이드 필름의 물질성을 강조한 데서 왔고, 시네마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성이나 물질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관객이 속해 있는 지역, 관객이 속해 있는 사회와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놓고 시네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영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로서 시, 연극, 미술, 소설을 보는 것처럼 필름의 역사를 다뤘다면, 그게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시네마의 역사’이다. 즉, 그것은 영화를 보는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게 영화라는 것이죠.

제가 시네마의 역사적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제가 영화를 처음 접했던 곳이 영화를 만드는 제작현장이 아니라 영화를 봤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시이긴 하지만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영화를 처음 접하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에도, 글썄요 지금은 디지털이라 달라지긴 했지만 디지털의 시기는 거의 10~15년 역사밖에 안되죠. 그런데 이 필름의 역사는 약 120년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접하는 것은 바로 영화를 관람하는 환경, 영화를 상영하는 곳, 영화를 관람했던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네마의 측면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관객수) 1,000만이다, 아니면 1,700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인기 있는 영화가 만들어 지는 것은 실은 대중들의 무의식을 드러내죠. 가장 인상적인 게 <친구>라는 영화였어요. 국민 다섯 명 중 한 사람이 꼭 봤던 영화가,

제가 태어나서 온 가족이 봤던 영화가 바로 <친구>였어요. ‘이 영화는 왜 그렇게 인기 있었을까?’라는 거죠. <친구>이후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여자배우들은 사라지고 남자배우들이 중심을 차지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대중들의 집단 무의식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IMF 이후에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과거) 한참 잘 나갔을 때의 강인한 지도자, 강인한 남성, 그 시기에 대한 노스텔지아로서 <친구>가 사람들에게 많이 소구가 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무의식적 측면에서 본다면요.

하지만 시네마 역사의 측면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영화의 텍스트와 이미지 보다는, 영화가 어떻게 배급이 되고 어떻게 그 영화가 상영이 돼서 어떤 환경에서 보여 지느냐 또는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영화라 하더라도 그 영화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강의실에서 보는 영화와 멀티플렉스에서 보는 영화, 아니면 해변가나 운동장에서 보는 영화는 달라요. 같은 영화라도 다릅니다. 또한, 관객은 그냥 관객이 아니죠. 어느 지역의 관객이냐는 거예요. 멀티플렉스 시기에도 그게 먹힐까요? 여전히 멀티플렉스 시기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액션영화가 잘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멜로가 잘 된다더라, 이런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지금은 멀티플렉스에 동시 개봉해서 동시 종료를 하지만, 사실은 지역마다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집중하는 것은 멀티플렉스(복합관) 등장 이전, 스크린이 한 개 있는 단관극장이예요.

지역 극장문화사 연구의 문제의식

그래서 지역 극장문화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앞서 강연하신 김영미 선생님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들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역사를 이해할 때 전체사^{total history}, 다시 말하면 국가사적

입장에서 기술을 해왔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역사’였기 때문에 중앙, 국가의 수도라고 설정이 되어있는 중앙의 역사만을 공식적인 역사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것은 역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뛰어난 지도자나 뛰어난 영웅에 의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미세한, 미시적인 수준에서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실은 역사를 만들어 왔죠. 다시 말해 이름 없이 묻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국가사 관점에서 기존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서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한국 전체에 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예요.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제 관점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영화가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관람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비서울, 통칭 지방이라고 불리는,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저는 영화연구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부터 지역에 있는 극장들은 찾아다니며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모한 일이긴 한데 전수조사를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전수조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일이 (지역극장을) 방문했어요. 그 조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개별적 문화연구를 검토하고, 지역문화 간 공통성과 개별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던 한국사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의 차별이나 연관성을 토대로 서울이라는 곳을 다시 한 번 바라보자.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상영되고 관람되고 수용되는가를 보니까, 우리가 극장을 생각할 때 건물의 형태가 고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공간, 그러니까 상설극장만을

생각하는데, 실은 ‘가설극장假設劇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극장이라고 하면 ‘이동영사移動映寫’를 하는 극장으로, 지금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가설극장이 있어요. 예전처럼 마당에 포장을 치는 것은 아니고,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개인업자들이 직접 영사기를 준비해가서 상영을 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 만났던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극장이,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인, 그 장소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하면서 지역별, 시기별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극장을 한 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연구는, 제가 집중해서 본 시기가 한국전쟁 이후 50~60년대까지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70년대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있거든요. 반면 50, 60년대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70년대가 되면 전국적으로 TV가 보급이 되고, 물론 TV가 보급되었다 하더라도 전국을 다 아울렀던 것은 아니고, 실은 80년대 컬러TV가 등장하면서 영화를 대체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2. 연구내용

영화를 상영했던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앞 강연에서도 말했던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지역의 ‘문화인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지역의 문화인력의 인적 네트워크가 (영화 상영에 있어)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보통은 지역유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힘 꽤나 쓴다는 분들이죠. 저는 ‘지역 엘리트’, ‘로컬 엘리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까 (김영미 교수의 강연) 질문 중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전개된 국민운동인데, 곳이라고 하는 것, 전근대적인 형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라는 것이 근대 기계매체 혹은 복사매체인데, 영화가 상영되고 수용되어가는 과정에서 근대 이전에 향유했던 방식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역에) 극장이 개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단순히 어떤 엔터테인먼트, 유흥산업이 확장됐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극장이 문을 연 것을 보면, 일단 극장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막대한 자본이 듭니다. 그러면 ‘그 (극장건립)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열었겠죠. 흥미로운 건 그 사람들이 단지 돈이 많아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정 정도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극장을 개관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극장을 개관을 하거든요. 김영미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저도 궁금했던 것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흥미로웠던 게 ‘학교’ 를 얘기했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식민지시기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단관극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극장[자료1]입니다. 이 극장이 올해 2015년 10월 1일이 되면 80주년을 맞아요. 극장이 1935년에 개관을 하는데 조선인이 만들었어요. 일본인이 세웠던 제국관이라는 극장이 이미 있었어요. 현재 (광주극장)설립자는 돌아가시고 그 덕의 후손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극장을 왜 만들었는지 들어보면,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극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식민지 시기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일제 통치하에서 자주권이 없었던 조선인들이 모일 수 있었던, 정당한 방법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일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조선인에게도



[자료 1. <광주극장> 현재 모습 (극장의 외관과 내부)]

곳(영화)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고 (조선인이) 극장을 설립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때 다양한 맥락들이 있었죠. 그 지역에서 여론과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영화만 틀었던 게 아니라 일본영화도 상영해요. 일본은 스튜디오 시스템이 일찍 확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세운 극장이) 단지 조선인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극장이 등장했던 시기에 어떤 게 작용을 하나면, 일본의 영화산업이 확대 되는 시기, 1927년 무렵에는 할리우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세계적으로) 직접 필름 배급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영화를 배급하는 극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극장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극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도시도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도 연관시킬 수 있었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연극, 창극, 국극도 상연하고 심지어 권투시합도 극장에서 열렸어요. 실제로 해방 이후까지도 있었습니까. 극장의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영화 말고 다양한 대중문화들이 배정 되었는데 보면, 극장이라는 공간이 그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상영주체는 극장주가 될 것이고 가설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동영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다양해요. 사업가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로컬 엘리트’라 불리는 지역 엘리트, 지역 유지, 새마을운동 할 때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원이 있는데 이 문화원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뒤에 문화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청년 단체들이 있습니다. 관객의 영화 관람의 형태에서 ‘영화관람 film viewing’을 포함해서

‘극장가기^{cinema-going}’, 그러니까 “극장 구경하러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극장을 가는 거야. 아니, 영화를 보러 가지 왜 극장을 구경하러 갑니까? 영화를 보는 행위를 포함해서 극장을 갔던 경험을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이 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부가적인 것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극장건축물이예요. (극장들을 보면) 극장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요즘 지어진 건물들은 단단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전 극장건물을 보면서 ‘극장이라는 건축양식에 투사된 대중의 욕망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3. 연구방법

저의 경우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첫 번째로 문헌자료로서 한국영화사 연구결과물을 보구요. 그 다음으로 지역에 가서 지역행정기관 발행도서, 대부분 자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원을 찾아가요. 각 지역에 가면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의 발행도서를 보고, 지역신문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연구를 시작해서 10여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역에 가면 이야기가 없어요. 서울 빼고는 다 없어요. 주요 큰 도시를 가더라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국립아카이브나 국가기록원 이런 게 생기는데, 이제야 기록의 어떤 보전·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적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가) 정말 없어요. ‘내가 왜 50년대 이후부터의 극장문화를 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극장을 살펴보려는데 문헌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이게 ‘구술’ 인데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5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이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1930년대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일제시기 농촌계몽운동을 했던 때에 태어나서 소위 일제 강점기 말기와 해방과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이후에 한국의 영화산업이 막 중흥기로 올라가던 그 시기에 영화 사업에 뛰어들었거나 아니면 영화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0년, 12년 전 구술인터뷰를 위해서 만났던 분들이 이제는 거의 돌아가시고, 1940년대(출생자)로 넘어오더라고요. 심지어는 50년대생까지 넘어와요. 그러다보니 구술 작업을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역에서 극장관련 인터뷰를 했던 분들이 아주 다양해요. 극장 운영자, 영사기사, 번사-서울에서 활동했었던 번사들 말고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번사들, 전문적인 번사도 있지만 대부분 이동영사를 하면서 번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필름배급 했던 분, 정식 필름회사에 있으면서 배급을 했던 사람들, 필름배급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서도 영화 필름을 사고팔고 했던 사람들을 '홍행사'라고 하거든요. 홍행사들도 만났고요. 또는 간판장인, '간판장이' 보다 '간판장인'이 맞는 표현 같은데요, 간판을 그렸던 사람들. 또는 이동영사 홍행업자들, 문화원 종사자들, 향토사가, 심지어는 종친회 회장들, 종친회 관련 인물들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을 답사합니다. 주요 (극장 주변)장소를 걸어 봐요. 그러니까 극장의 장소성이라고 하는 게 극장에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극장 주변에서 뭔가를 향유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장이 세워진 공간이 도시의 변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 그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게 됩니다.

지역 현장 답사 사례⁰¹

강원도를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 북부는 수복지역이라고 하죠. 강원도의 도시지역은 강릉, 속초, 춘천, 원주예요. 그런데 강릉을 빼놓고 나머지 도시는 한국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시들이예요, 강릉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 옛날 강릉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과거에 응시하러 가는 일 외에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강릉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일단 강릉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극장들이 생겨요. 강릉극장이 1938년에 생기고, 이어 신영극장이 생깁니다.

속초는 양양군보다 작은 규모였다가 한국전쟁 때 속초 앞바다에 미군의 배가 들어오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휴전이 되자 전쟁으로 월남했던 분들이 통일이 되면 좀 더 빨리 이북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분들이 모여 형성한 마을이 청호동 ‘아바이 마을’ 이죠. 속초의 극장은 미군의 배가 도착했던 곳을 중심으로 중앙극장, 대원극장, 제일극장, 동보극장이 형성됩니다.

원주 지역에서는 원주역에서 시작된 도로 변으로 극장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군인극장이 있어요. 군인극장을 빼고 문화극장, 원주극장은 사라지고 중앙극장이 생겨요. 아카데미극장이나 시공관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 네 개 극장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 극장주는 전쟁으로 월남을 한 사람으로 원주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

01 2월 13일 강연에 위경혜 교수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지역 극장의 사례를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조만간 지역의 영화극장 관련 사진집이 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자료집에 사진을 같이 실을 수 없어 텍스트만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몇 개의 지역은 편집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강원 지역의 사례는 논문 「한국전쟁 이후 극장문화 로컬리티-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전쟁 후 많은 강원도 지역들이 ‘군사도시화’ 되고, 미군 부대가 들어서고, 반공이라는 사회질서가 출범하는 가운데 침투한 영화라는 매체와 극장문화의 복잡한 전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전남과 광주 지역의 극장문화사는 두 권의 책 『광주의 극장문화사』(2005, 다지리), 『호남의 극장문화사』(2007, 다할미디어)를 참조하기 바란다.



당시 전국극장연합회 회장하고 월남민의 관계를 잘 알아요. 그리고 원주에 군부대가 많이 있거든요. 군부대 때문에 이 사람이 원주에 오면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네 개 극장을 운영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었고요. 군인극장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만든 건데 강원도 군 단위 극장하고 관련시켜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춘천의 극장입니다. 1950년대 춘천을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면,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춘천을 다양한 사람들의 각축장 같은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곳이 춘천역이에요. 춘천역 앞에는 2005년까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라는 굉장히 큰 미군 부대⁰²가 있었어요. 지금은 옮겨갔죠. 미군

02 캠프 페이지는 한국전쟁 당시 춘천에 유도탄기지 사령부와 주한 미군 군사 고문단 등이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주한 미군 주둔지다. 2005년 춘천시민에게 반환되었으나, 고엽제 배립의혹과 1972년 핵무기 사고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부대의 주둔으로 전후에 춘천에서 극장문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춘천 시내를 한번 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천은 완전히 재건도시³예요. 한국전쟁 직후 춘천 시내를 찍은 사진을 보면 도시가 다 파괴됐어요. 도시를 다시 재건하면서 강원도청에서 춘천시청까지 쭉 이어진 길에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언론사, 전기 관련된 관공서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도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극장들도 시청과 도청 사이에 포진되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축을 하면서 극장을 운영했던 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춘천시청 앞 피카디리극장³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캠프 페이지 기지 바로 앞에 신도극장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극장의 관람 방식이 정말 재미있는 게 시내에 있는 피카디리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극장에서의)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봤다면, 상대적으로 미군기지 앞 신도극장에서는 훨씬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봤다고 이야기해요. 신도극장 주변에 미군을 상대하는 소위 ‘양색시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의 유흥업소가 많았죠. 그래서 신도극장은 이 여성들이 관객의 다수를 차지했고, 관람문화가 시내 중심에 있는 소양극장에 비해 자유로웠겠죠.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양동시장 일대에 1960년대 어떻게 극장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양동시장은 호남지방을 아우르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시장을 중심으로 극장들이 생성된 것이죠. 그리고 광주극장 주변이 있는데, 광주극장은 1935년에 생긴 극장이에요. 무등극장은 식민지 시기에 제국관이었고

03 <피카디리극장>은 옛 <소양극장>이다. 1956년 개관한 <소양극장>은 전후 춘천의 극장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피카디리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유지 되었으나, 2011년 휴관과 함께 폐관되었다.

04 <신도극장>은 1958년 캠프 페이지 미군 부대 앞에 작은 극장으로 문을 연다. 부대 앞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겨냥한 영화가 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폐관된다.

해방되고 나서는 동방극장으로, 그리고 지금의 무등극장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전라남도 도청은 현재 전남 무안으로 옮겨갔지만, 일제 강점기에 전남 도청 주변으로 총장로 1, 2, 3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의 거리였거든요. 일본이 세운 극장이 여기 일대에 있었죠. 이 거리를 건너게 되면 총장로 4, 5가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거리가 형성이 되요. 이곳은 양동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포목상, 도매상, 금은방 같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극장이 지역에 형성됩니다.

1980년대 광주광역시 소극장들의 경우 약 28개 극장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요, 80년대쯤 되면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작은 사이즈의 극장도 개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삼호, 로얄, 라인, 뉴코아, 스카라, 다모아, 중앙, 럭키, 한성, 허리우드, 피카디리 이렇게 극장들이 등장하게 되죠.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 광주 시외버스종합터미널(구 터미널은 지금의 서구 광천동이 아닌 동구 대인동에 있었다) 주변으로 생겨납니다. 터미널 주변으로 주말에는 인구가 5만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버시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가까운 소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가면서 극장이 어떻게 위치되는가를 제가 한 번 그려봤던 겁니다.

연구방법으로서 구술사

전체사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술하다 보면 비교적 많은 문헌들이 남아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을 벗어난 지역은 문헌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술사(oral history)인데요, 사적私的 기억을 통해서 공적公的 역사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구술사라고 하는 것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역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written history’라고

하는 것도 실은 말을 적은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글로 써서 역사를 기술한다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죠?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역사 기록에서 다 사라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권력자의 역사나 승리자의 역사, 또는 영웅들의 역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형성되었다고 했을 때, 이들을 역사로 부각시킬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구술이거든요.

또 남아있는 공적 기록이 정말 맞는 역사인가라는 의문을 구술이 풀어줘요.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공식기록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어떤 지역을 내려가 보면, 거기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6월 25일에 안 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 28일이라고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전쟁과는 다른 방식의 경험이었던 것이죠. 자기한테는 바로 28일 날, 어떤 특정한 사건들과 함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술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방법으로 구술사를 택했을 때,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사적 기억을 통해서 공적 역사를 보완하는 시도가 성립 가능한가라는 것이 초기에 구술사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인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기록(written history)에서 빠져 있는 것을 구술(oral history)이 채워준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구술을 앞에다 놓고, 역사기록을 이야기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마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게 있죠. “당신이 말한 게 그게 맞아?” 이런 거 있죠. 근데 맞느냐고 자꾸 물어보면 안돼요, 왜냐면 당사자는 그랬으니까. 정말 그러한 것인가는 차후에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문헌 기록 보충 및 역사적 사실 발굴’이라는 건데, 저는 이 두 개가 혼합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헌 기록에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사적으로 기억하는 것, 사적 기억이 공식 기록과 충돌 할 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그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역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주관성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사람이 혼자 헛소리 하지 않아요. 앞에 누군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과 면담자 사이에 어떤 현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정말 배가 고팠는데 지금은 그 말하기 싫으니까 “아,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연구자들은 포착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술자를 발견하는 문제예요. 구술자를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지역에서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상영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군 단위에 있는 문화원을 찾아갔어요. 지금 문화원이야 각 도시마다 있지만, 60-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원이 각 군 단위로 있었어요. 문화원에 가면 대부분 그 지역 엘리트, 지역 유지라는 분들이 문화원 원장으로 계시거든요. 제가 이래저래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럼 또 그 (소개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10년이 딱 지나면서 보니까,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문화원 원장도 세대가 바뀌고 있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구술 채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풀어서 써야죠. 그럼 연구자(채록자)는 구술자가 말했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는데, 지금은 별 고생 안 했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 했을까, 그 사람의 심성에는 어떤 것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마지막으로 구술자가 이후에 “이거는 적지 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개할 때는 “이 부분은 구술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양반은 나한테는 이야기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말이 나가는 것을 꺼리는 걸까?’, ‘도대체 이 마을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때, 이 양반은 다른 마을에 있는 그 사람하고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상상력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사회학적인 상상력이나 아니면 영화적 상상력이나 다양한 것이 되겠죠.

4. 연구 수행 및 진행 현황

연구지역

왜 (연구를) 광주·전남부터 시작했을까?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10살부터 한 20년 동안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익숙했던 거예요. 광주를 조사하다 보니까 광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라도 전체를 조사하게 되었어요. 이 지역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하는데, 전라도만 소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전쟁 이후를 집중하는 이유는, 우연히 구술한 사람들의 생애적 연대기가 그 때문 것도 있지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흐트러 놓은 가장 큰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해방이라는 사건도 있지만, 특히

지역에서의 한국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아까 김영미 선생님도 발표하셨던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의 마을 지도자, 아니면 지역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전쟁 이전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거나 또는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 기간 동안에 월북하거나 살해당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소위 지역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걸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또는 지역 발전에 대한, 자기 마을을 잘 살게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의 유지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강원도를 조사 하면서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인 도시, 근대적인 사회의 등장과 함께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근대도시란 어디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을 조사하게 되었죠. 군산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산업화 과정에서 비껴 가서 소위 말하는 일제 강점기 시기 근대도시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하고 목포를 조사하게 되었죠. 또 개항도시가 거기만 있었나? 인천도 있잖아요. 인천도 조사하고, 현재는 충청도 충북을 조사하고 있어요. 경상도 지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영역의 확장

제가 조사를 하면서 어떤 욕심이 생기냐 하면, 지역의 문화사 혹은 지역사에서 영화를 상영했던 사람들, 영화를 관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mentality, 심성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갔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지역에 지역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사’로 확장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새마을운동 연구하신 분도 그렇고 구술사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까지 좀 확장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그려보고 싶은 그림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사를 재구성하는 건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과 그 외 기타도시’가 아니라 ‘기타 도시와 서울’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냉전시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탈냉전의 시기나, 근데 지금이 탈냉전인가? 진짜 요즘 궁금하긴 해요.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합쳐서 글로컬^{globa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 내에서 발현하는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한국전쟁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극장의 역사를 보면, 전쟁 이후 극장 숫자가 확 늘어나거든요. 54년에서 65년 사이 거의 9년 사이에 7배가 늘어납니다. 영화 제작도 37편에서 150편으로 거의 다섯 배로 확 넘어가죠. 이렇게 극장과 영화(제작편수)가 확 증가를 하는데 ‘아, 영화가 많이 생겼으니까, 극장이 늘었겠지’가 아니에요. 영화가 늘었다 하더라도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확 늘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극장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고 영사(장비)시설을 갖추야 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확 끌어올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극장들이 새로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공회당^{公會堂}이라고 하는 건물을 극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공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김영미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930년대에 농촌계몽운동을 할 때 지어졌던 일종의 홀^{hall}이에요. 마을에서의 공론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극장으로 전환되어 극장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장이라고 하는 게 해방 이후엔 적산^{敵産}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일본인이 버리고 간 극장을 누가 차지할



[자료 2. 군산극장(1954년)의 설명]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죠. 누가 차지하느냐면 미군정의 권력과 결탁되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극장을 인수해요. 또 하나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부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료 2]는 1954년에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군산극장을 찍은 사진입니다.⁰⁵ 이 극장은 1920년대에 생겼어요. 1930년대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극장 간판을 보면 사람들 크기에 비해서 두 세배는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한복 차림의 사람도 있고 꼬맹이들이 놀고 있고, 애는 불량 청소년처럼 보이는데 꺾렁 꺾렁 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간판 뒤쪽에는 꼬맹이들이 앉아서 딱지 따먹기를 하든지 구슬치기를 하든지

05 위경혜,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2010) 참조.

모르겠네요. 간판에는 <네바다 동굴>인지 좌우지간 공포나 호러 장르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인부대>나 <지상 최대의 쇼>같은 영화간판도 그려져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할리우드에서 1954년에 개봉한 영화가 여기에 걸려요. 분명히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영화 배급이 됐을 텐데, 보통 (당시에) 할리우드 영화는 1년 내지 2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상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과 동시개봉 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자기 식민국에, 일단 우리도 미군정을 경험 했으니까요, 미군정으로 통치했던 지역에 미국 할리우드에서 상영 했던 영화를 좀 더 빠르게 상영한 경우가 있거든요. 해방 이후 여기 군산에는 미 공군부대가 가까이 생겨요. 그 당시 이 극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인터뷰해 보면, 미군부대에서 영화 필름을 빼가지고 와서 몰래 상영을 하고 다시 갖다 돌려놓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어요.

비도시-가설극장

도시의 반대말을 농촌, 어촌, 산촌도 아니고 저는 그냥 '비도시(非都市)'라고 봐요. 비도시를 보통 군 단위라고 행정 단위로 얘기하지요. 군 단위에는 60년대에 영화극장이 생기는데, 읍내에 기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가설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왜냐면 읍내에 극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읍내까지 오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또한 비도시라고 하는 곳은 근대의 시간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개념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읍내)극장에 가서 영화 볼 틈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비가 오면 눈독도 막고 햇볕이 좋으면 고추도 말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른바 '찾아가는 영화관'이 바로 가설극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이동영사하시던 분의 인터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를) 굿쟁이라 그래. 사람들이 영화, 로텐바리(露天張り)라 않고, 로텐바리라 그러면 받아주고 좋잖아?! 우리보고 ‘남사당패 왔다. 굿쟁이 왔다!’ 그런다 말이여. 그때만도 굿쟁이라 허믈 상놈 대우를 했어. 어디를 가도 대우는 못 받았어. 그럼 참 자존심이 상해.” 그 말 한마디하고 “로텐바리는 주먹이 없으면 안돼요.” 이러는 거예요. ‘로텐바리’는 일본어로 ‘이동영사’를 말해요. ‘로텐’은 ‘노천’에다가, ‘바리’는 일본어로 ‘포장을 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노천에 포장을 쳤다’ 해서 ‘로텐바리’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전라북도에서 가설극장을 하던 때가 60년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영화를 상영하면 동네에 이동영사 차량들이 등장할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 8명에서 10명이 이동을 합니다. 포장도 쳐야 되고 말뚝도 박고 앞에서 돈 받고 이런 사람까지 다 하면 7, 8명이 기본적으로 한 팀이 되어서 운영을 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아, 굿쟁이 왔다. 남사당패 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남사당패는 예전에 유랑 예인들이 일원이 죽으면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버렸어요. 천민 집단이었죠. 그렇지만 근대 이전 사회에 유흥을 쫓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사당패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속으로 ‘나는 근대 매체라고 하는 영화를 가져와서 상영을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데’라고 생각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막상 동네에 가면 “굿쟁이 왔다”라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상했다는 거예요.

이 구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도시 지역에 수용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대 이전의 놀이문화 유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화라는 것을 이해를 했던 거죠. 왜 영화가 사람들에게 근대 매체로 인식이 되냐 하면, 영사기에서 빛이 막 나오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영사기를 (신기한 듯) 만져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영화가 나오는지 참 신기하게 본봤다는 거지요.

제가 김영미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50~60년대까지도 참 농촌이 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영화를 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설극장 안으로) 공짜로 막 들어가려는 거죠.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의 영역이 컸기 때문에, 힘깨나 쓰는 청년단체라든지 이장이랄지 이런 힘 있는 사람들도 무료로 영화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제를 해야 하고 영화 상영을 해야 되니까, 힘깨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본어로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문지기-기도라는 사람은 대부분 예전에 당수 좀 했거나 힘 좀 쓰면서 폼 잡고 있어야만 무단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로텐바리는 주먹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또 하나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군수품들을 경매에 붙이거든요. 경매에 잡동사니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잡동사니들을 가져다가 자동차도 만들고, 발전기도 갖다 써요. 왜냐면 빛이 있어야 영화를 상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미군이 버리는 군수품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자원이었어요. 그 자원들을 경매로 붙이는데, 실은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결국 낙찰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제 말기부터 깡패였던 조직들이 낙찰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가설극장)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텐바리는 주먹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게, 전라남도 쪽에서는 “굿 보러 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굿’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인데요. 신기하고 새롭고, 마을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에 ‘굿’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영화를 상영했던 사람들이나 영화를 봤던 사람들에게 “예전에 혹시 영화를 보러 가면서 ‘굿 보러 간다’는 말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했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왜 이 동네에는 굿 보러 간다고 얘기를 안 하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근대 이전의 문화와 관련성이 아닐까. 평야지역에서는 구술문화가 발달해요. 말로 재미있게 주고받는 놀이문화가 발달을 해요. 그런데 강원도 속초, 북쪽으로 갈수록 구술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가설입니다.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철원, 화천 등 거기 가면 60~70년대 10년에서 한 15년 기간 동안에 각 군단^{軍團}에서, 군부대에서 극장을 운영을 합니다. 이름이 그냥 ‘군인극장’이예요. 군인들이 운영을 해요. 그렇다 해서 군인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상대해서 돈을 받아요. 군인들이 극장을 관리하지만 민간인이 ‘기도’ (검표원)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종족의 공간으로서 극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침략자 일본인/ 피해자 조선인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한 공간에 이 둘이 섞여 영화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게 발성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발성영화가 1935년부터 나오니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하나의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27년도에 생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춘서커스>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동춘서커스의 예를 보면서 그것과 극장 운영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글⁰⁶이 있어요.

06 위경혜, 「식민지 근대문화의 혼종성: 1920년대 목포극장과 동춘서커스」 (2013).

미국공보원과 문화원의 활동

또 하나 영화 상영 주체 별로 보고 있는 게 미국공보원(USIS)이에요. 아까 김영미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진 중에 ‘새마을을 이룩하여 덴마크를 앞서자’는 표어를 생각해 보면, (당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덴마크라는 데를 가봤을까요? 덴마크와 관련된 영화를 봤을까요?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을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일본도 북한도 아니고 덴마크를 이야기 했던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전쟁 이후 미국공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에서 대외적으로 해외에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는 일종의 공보 차원에서 만든 기관인데, 미국공보원이 각 지역에 문화원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해요. 지역 문화원의 원장들은 주로 누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 받고 타지에 나가서 근대도시의 풍경을 경험했던 사람, 우리 마을도 좀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엘리트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영화를 많이 상영해요. 그러니까 미국공보원이 각 지역에 문화원을 만들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문화원을 만들어서 미국 영화를 가져가서 상영을 해요. 미국영화라고 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도 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 낸 일종의 뉴스영화, 다큐멘터리, 문화영화예요. 문화영화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문화)을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덴마크의 낙농업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렇게 잘 정착하면서 미국사회에서 성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영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영화를 상영하는데 사업자나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원 원장들이 직접 16mm 영사기를 들고, 16mm 카메라는 작고 가벼워요, 광목천을 딱 펼치면 이게 다 스크린이 되거든요. (스크린)천을 푹푹푹 말아가지고 혼자 다닙니다. 가까운 곳은 혼자 걸어서도 가고, 좀 더 먼 곳은 군청 차를

언어 타고 가요. 그리고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국공보원에서 만들어낸 <리버티 뉴스>⁰⁷라고 하는 것을 1967년까지 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곳은 어딜까. 바로 보편적 세계 질서 모델로서 미국이 끊임없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1년만 보더라도 각종 도에서 이동영사 영화가 42% 상영이 돼요. 문화원 원장들이 정말 열성을 가지고 지역 구석구석 다 돌아요. 한 달에 전체 마을을 다 돕니다.

또한 61년에는 <대한 뉴스>와 <문화 영화>를 제작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들이 국가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문화원, 문화원 원장만 상영을 한 게 아니라, 개인 흥행업자가 일반 극장에서 상영하게 되는데, 반드시 (본 영화 상영 전에) 먼저 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동영사

또한 이동영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공적 기록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대한 뉴스>나 <문화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현장에 있는 지역의 소식을 수집하는 정보통, 소식통이 된다는 점이에요. 공적 기록과 사적 경험을 전달하는 문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가설극장을 가게 되면, 도시에서는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지정좌석제’를 강화시켜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앉게끔 해서 영화를 봐요. 즉 새로운 관람 규율에 몸을 맞춰 가는데, 이동영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07 <리버티 뉴스>는 공보매체로서의 뉴스영화이다. 한국전쟁 이후 영화인들은 군 영화 제작활동에 투입됐는데, 미군 502부대의 <리버티 뉴스>, 부산 정훈국의 <국방 뉴스>와 <백만인의 별>, 공보처가 제작한 <대한 뉴스> 등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소산이다. 1960~1970년대 군사 정권 하에서 국정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제작됐다. 김미현, 『한국영화역사』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참조.

저녁 6시에 영화 상영합니다. 하지만 밥 먹고 좀 늦었어요. 그러면 7시에 상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동영사는 소리가 바깥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밖에서 영화를 봐요. 소리는 다 들리죠. 바깥 천막에는 화상이 거꾸로 보이지만 영화는 다 보는 것이죠. 그만큼 가설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이 주도하는 영화 관람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의 관객은 스펙테이터spectator, 어떤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관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능동적) 청중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영사를 둘러싸고 재미있는 사건도 많죠. ‘보리밭 연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동영사가 왔다 간 다음 날 동네에서는 보리밭에 큰 난리가 납니다. 보리의 키가 잘 자라면 한 2m 정도 되거든요. 밖에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간다면 당시 부모들이 심하게 막지 않았어요. 영화는 신문물이었고 배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 남녀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천막극장에서는 한 편 영화는 돌아가고 있지만, 보리밭에서는 자기들끼리 사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밭 연애 사건이 되게 재미있는데, 비도시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이동영사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 마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이런 양가적 감정이 이들의 구술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적 민족주의와 적극적 공감인데요. 이동영사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이동영사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마을에 가면 마을의 대표라고 하는 양반들이 와서 무슨 영화 좀 갖다 주라고. 그게 뭐냐고 물으면, <퀴바디스>같은 종교 영화 있죠. “그거 참 좋다는 데, 좀 가져다 줘” 한다는 거예요. 원래의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국가 권력이 장악할 때, 기존의

자연신을 타파하려는 국가나, 유일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마을 지도자들 중에도 기독교 신자가 많았고, 종교적 민족주의가 그 때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퀴바디스>라는 영화는 기독교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벤허> 같은 영화도 그렇죠. 근데 이런 영화들이 왜 먹혔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가 식민의 기간, 해방되고 나서의 무질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남북의 찢어짐, 혈육 간에 서로 죽이고 어제 “아제, 아제” 했던 사람이 오늘은 “너는 죽어야 된다.” 적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영화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군 단위에서는 목사님하고 영화를 보시던 할머니가 <퀴바디스>를 보다가 네로 황제가 폭행을 하니까 낫을 들고 가서 (스크린을) 짹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론 1. 지역사 연구와 아카이빙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보론>으로 붙였습니다. 지역사 연구와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술자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박물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다 죽어요. 물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자료들) 좀 모으기도 하지만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술을 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생존해 있을 경우 이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채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아, 우리 집 장롱에 있을 걸, 내가 좀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연구나 작업이 되면 모을 수가 있지만, 실은 저도 많아 봤자 서너 번 아니고는 다른 데

하느라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재된 자료를 수집하고 총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또 개인 소장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에 떠든 사진을 보고 사진 속의 인물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속초문화원 활동 가운데 <장룡 사진전>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사진을 다 가져와라. 가져다주면 선정을 해서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까 사진을 다 겁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몸만 얼굴만 찍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찍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음식을 놓거나 좋은 풍경을 배경에 넣거나, 반드시 뭔가를 같이 찍어요. 그게 바로 역사를 이야기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찍은 사진을 가져온 것이거나, 아니면 취미나 사업 목적으로 보관된 자료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있었는데, 충남 부여에 가면 <백제원>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박물관이에요. 거기를 갔더니, 한 쪽에 음악에 관련된 모든 잡다한 걸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한 쪽에는 영화에 관련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5000원 내고 개인이 들어가서 봅니다. 자료는 정말 잘 모아놨고, 잘 보관해 놨어요. 그 물건 중에 어떤 극장의 <홍행일지>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아, 이 당시에 충청도에서는 영화라는 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그 박물관 운영자는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잘 정리만 해놨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포스터도 보관 잘 해놨어요. 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걸 그냥 놔두지 말고, 이걸 어떻게 잘 분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할 만큼 자신의 재산적인 여력이 없고, 자료를 다시 분류를 하고 재구성을 하려면 적어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봐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저도 고민이었죠.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영화에 관한 자료다

그러면 영화과 학생들이나 기록학과 학생들이 가서,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자료를 분류해 보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대학에서의 협동 과정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저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할 때 뭔가 발견되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이걸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사에 있어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끌어갔던 기관으로는 문화원이 유일했거든요. 왜냐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 소멸 되어 버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던 그런 상황에서, 소위 근대적인 문화를 막 끌어왔던 영화를 상영 했던 공간이 문화원인데, 그 문화원들이 60~70년대 (문화적)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각 지역마다 문화단체가 많지요. 경기문화재단이 있는 것처럼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의 집, 문화예술협회,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많이 있기는 한데, 이 기관들이 얼마나 지역에 있는 문화원 자료를 활용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원 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서 대전 원도심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사람들이 어떤 일상생활을 누렸는가를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건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여기 문화원을 안 와요. 그럼 젊은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기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원도심 활성화’ 이런 작업(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문화원의 자료를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보론 2. 지역연구 결과 활용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연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구조 변동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커리큘럼화 혹은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극장 공간을 답사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단관극장이 다 사라져버리고 멀티플렉스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영화를 많이 못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보죠. 스마트폰, 인터넷으로도 봐요. 그러나 노인인구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잘 못해요. 그들이 다시 극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 말고 비도시에 있는 지역들에는 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비도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 극장이 없는 상황에서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멀티플렉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영화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 안 돼도, 보고 싶은 영화는 정말 많죠. 내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화도 같이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자랑도 할 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극장을 만들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전라북도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지역 극장을 만들었어요. ‘시네마

커뮤니티’, ‘커뮤니티 시네마’ 라고 할까요.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어요.⁰⁸ 또 다른 예로 강릉에 신영극장이 있어요. 강릉극장을 만들었던 집안에서 문화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또 극장도 소유하는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영극장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면, 지역에서의 ‘시네마테크’ 라고 해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극장을 임대하기도 해요.

이런 단관 극장들을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지역에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8 <한누리시네마>를 말한다. <한누리시네마>는 2010년 11월 장수군청의 문화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공익적 개봉영화관을 자칭한다. 총 2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진행 :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극장들이 (지금의) 문화원의 전신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위경혜 : 어떤 지역에서는 문화원이 극장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문화원이 제 기능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행 :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문화원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시초가 1950년대 초 미국공보원에서 출발이 돼요. 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한 사설기관으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대전과 밀양 지역이 미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초기에는 미문화원이라고 하다가 그냥 지역명을 단 문화원이 된 거죠. 당연히 초기에는 미공보처를 통한 프로그램들이 전면 이루어져요. 영화상영이 대표적이었구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역의 예술단체, 각종 협회들이 문화원으로 집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중앙의 문화예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문화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의 역사와 문화원은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70대, 지역의 나이가 있으신 예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 때 지역 문화원을 통해서 미국 영화를 봤다고 이야기 하세요. 말씀하셨던 가설극장이 극장메커니즘을 표방했던 것처럼, 문화원도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위경혜 : 네, 그러니까 문화원 역할이 굉장히 커요. 아직 연구가 안 된 분야인데, 굉장히 역할이 큼니다.

진행 : 지금의 문화원이 초기에 그렇게 미공보원 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 :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을 지역 단위까지 내려 보내서, 프로파간다로 활용했던 이 문화정책 루트들, 확산 경로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오늘 극장 이야기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위경혜 : 그러니까 30년대 생들, 그 양반들이 50년대가 되면 20살이 되잖아요. 60년대에는 30살이 되잖아요. 그 때에 문화원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을, 동네를 발전시켜보자’ 해서 영화를 상영했던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런 활동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 혹시, <엑트 오브 킬링 Act of Killing>(조슈아 오웬하이머 감독, 2013년 작)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내전, 반공, 학살이 있었는데, 주요 세력이 프리맨이라는 세력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로 영화(극장) ‘기도’ 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기도들이 주도가 되어 반공, 공산주의 세력들을 학살하고 다닌 거예요. 공적 권력은 아니었지만 사적 권력을 행사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로텐바리는 주먹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신 거나, 일제 말기 깡패였던 사람들이 영화관을 장악했던 과정들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어떤 공통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슷한 환경의 나라들도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위경혜 : 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남) 해남군이 있어요. 해남군은 전국 군 단위 중에서 지역이 넓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로텐바리’ 하셨던 분인데, 그 사람은 빨치산 토벌에 참가하거든요. 그런데 토벌에 참가를 했다가 총을 맞아요. 총탄이 입을 뚫고 나가서 입이 뺄어져서요. 그래서 누가 딱 봐도 (총탄)상처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 후에 이동영사를 하는데요, 해남에서 이동영사로 돈을 많이 벌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거죠. 상처도 나고

그랬으니까, 뭐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아보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빨치산 토벌을) 한 건데, 무슨 상을 받아!” 라고, 이런 사람인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영화를 상영하는 일도 국가를 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60년대에 접어들어 돈을 벌어서 35mm(필름영사)로 빨리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6mm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에 비해 이득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돈을 벌어요. 나중에는 극장도 사게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반민반관(半民半官)’으로 부르죠. 공무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실은 관의 영향력을 많이 받죠. 쉽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었고, 딱 봐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경찰 서장이나, 군수와 다 형님, 동생 하는 거죠.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상영했었던 거죠.



라운드 테이블

우리는 어떻게 지역연구에 접근하는가?

01.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 대구의 재발견, 14년의 과정과 경험

02. 조주연 사회적기업 티팟 : 싸움의 기술

03. 이명훈 예술공간돈키호테 : 리서처가 된 예술가

04. 김경만 다큐멘터리 : 아카이브 푸티지 영화

05. 최재희 기록연구원 : 기록관리의 흐름과 민주적 비전



권상구(시간과공간연구소) 2011년 5월 대구근대골목을 개발한 시민운동가와 건축디자인어, 도시사학자, 건축시공자, 서양화 화가, 갤러리 큐레이터 6인이 발의하여 만든 연구소로 도시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의 궤적을 '기억과 기록'을 매개로 연구하고 있다. <대구 근대골목 프로젝트>에 이어 2011년부터 <카페삼탁사회>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을 시민들이 직접 소유해서 리노베이션하는 사업을 가이드하고 있다.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쓰는 도시' 보다 '고쳐쓰는 도시'가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중이다. arthub@hanmail.net

라운드테이블 01

권상구 (시간과공간 연구소 이사)

대구의 재발견, 14년의 과정과 경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마이너한데요.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구지역에서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 옆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언제부터인가 혼자 하고 있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기 힘들어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국내를 다니면서 비슷한 유형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최근 교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지난 14년 동안 해왔던 어떤 '작은 실험' 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작은 실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실험이라고 하면 실패에 대해서 열려 있게 되더라고요. 대구를 최근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구골목투어>를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해왔던 일이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로 발생돼 왔던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즈음에, 어떻게 하면 멋지게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을 빼지 못하고 14년째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93년에 들어갔어요. 사춘기 시절 서태지가 가요순위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랐죠. 그래서 “너는 어떤 세대냐?” 그렇게 물어보면, ‘서태지세대’ 라고 이야기

합니다. 서태지세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나는 운동권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에서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남자인데요. 오늘 지역연구와 관련 된 자리이기 때문에 ‘대구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진하게 이야기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대구 남자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도 대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대구가 문제적 인간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대구출신 정치인들이 그렇죠. 대구에서 나고 자란 남자와는 대화가 잘 안돼요. 정말입니다. 희한하게 대구라는 지역에서 사춘기-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면 어떤 뭔가가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 지,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 뭔가가 문화적 자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대구 남자에 비하면 ‘대구 여자’는 상당히 인기가 좋죠. 맞죠? 특히 “대구 여자들이 미인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대구 여자들이 어떻게 미인이 됐는지는 아시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과죠. 사과를 많이 먹기 때문에 미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여자들이 말하지 않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960~70년대, 미스코리아가 크게 화제가 되었던 시기에 대구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먹던 게 있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먹는 보톡스’라고 하죠.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돼지껍데기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제 성장기에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후라이팬에 볶아서, 밥처럼 퍼먹었던 게 돼지껍데기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분들한테 돼지껍데기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별로 안 좋은 추억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털이 있더라, 딱딱하더라, 이러시는데, 만약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대구에 내려 오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진짜 돼지 껍데기가 어떤 것인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에 들어가면 녹는 거죠. 여기에서 ‘사과’가 공개된 사실이라면, 대구 여자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돼지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면서 이런 얘기를 늘 들어 왔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재해석해서 어떻게 대구라고 하는 도시를 재발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왔어요.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대구꿀묵투어>가 시작됐던 곳이 동성로 지역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이죠. 이곳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1, 2학년 후배들이랑 자주 놀던 곳이에요. 한 십 몇 년 노니까 재미가 없어서, 최근에는 북성로 쪽으로 옮겼어요. 현재 북성로 지역의 근대건축물을 시민들이 직접 사고 고쳐서 사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온 일을 제 입으로 설명 한다는 게 다소 웃길 것 같아서, 다른 분의 표현을 좀 빌려 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이병준 교수님은 제가 해왔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기억의 문화적 창조.”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유네스코에서 크리에이티브 시티 Creative city, 세계 창조도시를 선정하는데,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어플라이를 하고 심사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99%의 도시들이 내세우는 콘텐츠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도자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비주얼한 것들이지요. 반면에 대구에서 저희가 해온 일련의 작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매개로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리뷰를 해주셨어요.

어떤 시간여행자

저희가 도시를 만났던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도는, 어떻게 그린다고 하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서 누구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가장 쉽게 도시를 만날 수 있었던 방법, 혹은 도시를 기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지도그리기’ 였던 것이죠. 그 작업을 꾸준히 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재생 혹은 도시정체성과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단계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중요한 몇 가지 과정을 소개하기에 앞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제가 북성로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느낌이라든가, 혹은 역사적인 요소들이 활용되지 않고 단순히 스페이스, 몇



[자료 1. 삼덕상회와 북성로의 재발견]

평의 면적 정도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계시죠. 북성로에 ‘삼덕상회’ 라는 건물이 있어요. 제가 이 건물을 처음 지어진 시기로 되돌리면 어떤 반응들이 생길까 궁금해서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북성로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을 걸고 건물 안에서 똑딱거리 봤어요. 동네 주민들이 가림막을 치고 건물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두 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이었죠. 공사 기간이 한 3~4개월 정도 되니까, “그냥 깨끗하게 허물고 새로 세우지, 왜 저래 놓느냐?” 그런 평들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어떤 건물이 처음 지어진 시간대로 되돌려 보는 것을 저는 ‘시간여행’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화에서 시간여행의 장면들을 보시면, 타임머신과 여행자가 있어요. 타임머신을 작동시키게 되면 주변이 일그러지게 되죠. 시각적이든 물리적이든. 그것처럼 만약에 건물이 태어났던 시간대로 되돌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호기심으로 한 며칠을 기다려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주민 반응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옆 건물은 왜 나뒀느냐?” 그래서 지금은 붙어 있는 옆 공간도 누군가가 리노베이션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흥미로운 것인데요. “내가 여기 2층 다다미방에서, 이 집 애기들이랑 놀았어.” 하시면서 접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말해 건물이 원래의 시간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니까, 2014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의 시간여행에 접속을 하시는 거죠.

이 집을 방문했던 아주 낯선 여행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 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녁 7시 즈음에, 제가 이 건물 앞에서 거리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이 걸어오시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 오세요. 한국말을 하시는데 말투가 어색했어요. 북성로는 대구역 건너 편에 있어요. 역전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아직도 성매매가 대낮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 거리를 걷기 싫어서 다른 길로 피해가죠. 낡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복잡한 지역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상점들의 대다수가 문을 닫는데, 그 이후 시간에는 거리가 주차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픈하는 거 알고 오셨냐고 했더니,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 공간이 좀 센스가 있어 보여서 들어 왔습니다." 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에 교수로 계시는 도미 마사노리라는 분이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서툰 한국말로, 대구에 오게 되면, 북성로에서 숙박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구에 살지 않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북성로에서 묵는다' 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목조 여관에 묵고 가신다는 의미예요. 북성로에는 그런 여관 외에는 별다른 숙박시설이 없거든요. 좁고, 냄새나고 특별한 시설도 없고,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는 여관이죠. 흔히 일용직 노동자 분들 아니라면 그런 곳에서 묵고 갈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 분 역시 '시간여행자' 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팸플릿을 하나 주시면서, 북성로에 있는 여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2010년경에 이 분이 <경성 1930>이라는 전시를 기획 하셨대요. 서울 종로구를 중심으로 일제시기 도시아카이브를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 간판을 찍은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을 엑셀 파일로 만들고 사진에 찍혀있는 주소에 일제 강점기 때



[자료 2. 북성로의 시간여행자 도미 마사노 교수]

주소를 기록하고, 광고지에 나오는 이 간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서울, 동경, 요코하마 세 군데서 전시를 하셨답니다. 흥미로웠던 얘기가 서울에서는 전시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는데, 동경과 요코하마에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흔이 넘는 노신사가 찾아 와서는 도미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네 아는가? 내가 나이 서른에 경성에 있었다네.” 1930년대 경성(서울)에 살았던 30대 한 청년을 전시를 통해 동경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옛 사진 속 시계상점에서 산 회중시계를 꺼내 드시면서 이야기를 시작 하는데, “내가 그 때 경성에 살았는데, 그 때 동경과 비교를 하자면 동경이 촌스러웠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930년대의 서울(경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사실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접근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간 제가 해온 활동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14년 동안 제가 대구에서 해왔던 작은 실험들, 그것을 정리하게 된 언어들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에서 골목지도를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구 구도심에 ‘약전골목’이라는 신작로가 있어요, 어느날 선배가 이 길을 지나면서, “상구야, 여기가 3대째 약을 팔고 있는 곳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라고 하는 것이 ‘장소’ 라고 하는 것이고, ‘3대’ 라고 하면 보통 한 100년 정도의 시간으로 치고, 우리가 히스토리history의 영역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100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역사’ 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역사를 수용해온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역사를 어디에서 배우니까? 역사책에서 배우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역사를 책으로 수용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죠, 한반도 역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99%를 책으로 배워 왔는데, 이걸 뭐지? 책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수용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면서 원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때 선배한테 들었던 그 말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이고, 제가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은 또 다시

누군가에게 리바이벌하는, 그런 모종의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대구 근대골목을 시민들한테 안내하면서 해왔던 많은 활동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됐어요. 화자話者와 청자聽者가 이야기의 사이클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잘 몰랐던 마이너한 이야기들이 메이저한 이야기로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지난 14년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구 약전골목 주변 옛날 골목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골목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도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더라고요. 어떤 아이러니냐 하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그린 지도가 있다고 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만 있으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신대륙에 가본 사람이 자기의 항해법을 기록하고 설명해 뒀을 거예요. 이처럼 지도라는 것은 어떤 동선의 정보 체계일 텐데요. 그렇다면 신대륙 발견처럼 저희는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 내면 되겠죠. 누가 누가 제작한 지도를 보고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동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연쇄적인 지도그리기를 ‘지도의 아이러니’로 표현하는데요. 저희들이 만들었던 골목지도들이 시민들에 의해 새로운 어떤 동선과 행위들이 만들어 졌던 것 같아요.

골목투어 : 듣기, 걸으면서 이야기하기

그래서 한 100일 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골목지도를 그리고 나니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그 지도를 구할 수 있나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지도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한 학교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들이 그린 그림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안내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골목투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골목투어는 걸으면서 두 세 시간 저희가 읽었던 도시에 대해서 리바이벌하는 방식인데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문화적 표현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매력적인 행위더라구요. 저희와 함께 골목투어를 한 두 시간 정도 다닌 분들의 피드백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옛날에는 이 도시에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시간의 흔적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공분야도 아니고,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를 바라보는 전문적인 시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주었던 피드백들이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혹은 ‘걷는 속도’가 사람이 ‘생각하는 속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걸으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걸으면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행위가 전달이라든가 혹은 접근에 있어서 효과를 더 잘 발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걸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것들의 역동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두 명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던 것이 이야기하고, 다시 듣고 이야기하면서 시민 다수가 알게 되는 이야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이란 일테면 이런 것입니다. ‘약전골목에서 한약을 3대째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종이도 3대째 팔고 있어요. 이 약藥과 한지韓紙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을 0.1%정도가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약을 팔려면 약을 무엇에 싸야 되잖아요.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약이 팔리는 것만큼 종이도 팔렸고, 그에 따라 도배상塗裨商의 성장이 있었던 것만큼 한지상韓紙商의 성장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약재 시장을 좀 더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수용하시기 시작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스님 옷을 만드는 곳도 3대 째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봤더니 스님들이 대구 약령시장의 가장 큰 딜러였더라는 겁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약을 재배해서 내다 팔고 절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령시에 오게 되면 옷 한 벌 해 입기 힘들니까 승복사僧服社에서 옷을 해 입는 소비패턴이 대구의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주거나 받거나, 사이클들을 만들어 내면서 성장을 해 온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시민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동안 해온 활동이란 시민들의 생활 세계, 시민들이 도시를 형성해 온 그 생활 세계에 힘을 줘 왔던 방식 ‘empower the people’ 등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려 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도시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게 없었어요. 최근에 건축 혹은 도시, 조경, 인류학 이런 것처럼 어떤 전문적 지식베이스가 있는 팀들이 도시를 바라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 무학無學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를 새롭게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도시를 새롭게 봤던 것 같아요. 보행자의 위치에서 파사드(건물입면)나 아케이드의 모양을 저희들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뭐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 집은 할머니가 연세가 좀 많아 보이시던데, 첫 번째 가게는 어땠을까?’ 이런 식의 과정들을 짚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문화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오브제로부터의 거리두기’, ‘메인스트림-주류로부터 차별된 것들’ 또는 ‘타자화하기’, ‘낯설게 보기’, 그런 문화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베이지들을 저희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도를 그리고 이야기하고 안내하고 다시 지도 그리고 이야기하고 안내하는 사이클을 통해 성장하게 됐습니다. 2007년부터는 대구시가 이 지역의 탐방인프라들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8년 째 지자체와 작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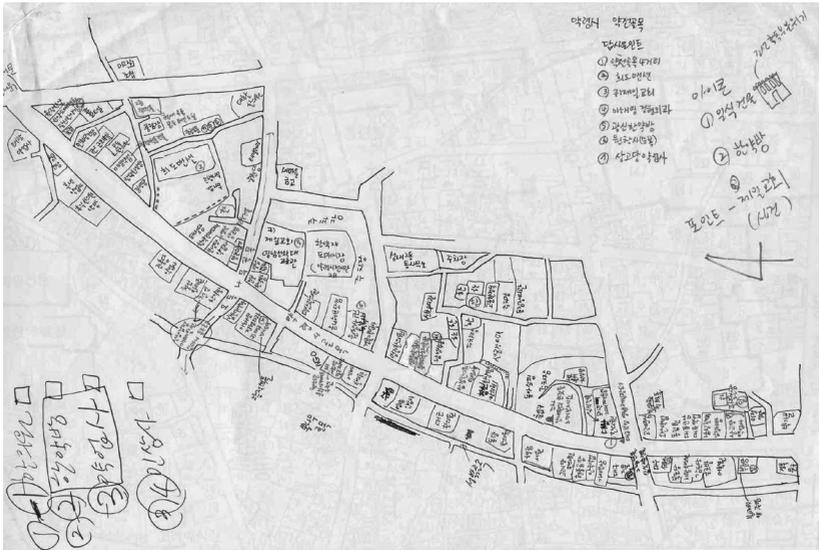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어떤 한 사이클이 지나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약전골목에 있는 일제 때 건물에 대해, 초기에는 ‘이 건물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 혹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건물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 공간이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구의 구도심 지역은 옥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나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의 북촌, 전주의 한옥마을, 군산의 조계계지역, 이런 공간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옥망들을 가장 극대화 시켜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옥망들이 결집되는 공간들인데요, 그런 것처럼 대구에서도 보수적인 대구 사람들의 도시적인 습관을 뛰어 넘어서 뭔가 도시를 옥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도그리기 1

[자료 3] 2001년에 그렸던 약령시장 지도인데요, 그 때는 '향측도' (1:5,000 지형도)라고 하는 단어도 몰랐던 시기라서 막 돌아다니면서 원가를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약령시 할아버지들에게 기존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혹시 뭐 있었는지 아시냐 물었더니, 저희가 건넌 지도를 우선 보시더니 지도 방향을 돌려 세우시는 거예요, 약령시 입구를 찾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연구자들은 보통 동서남북 방향이 표시된 지도를 읽고 정보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자기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지리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입구를 기준으로 공간을 기억하시는 거죠.

이런 지도 작업들을 2001년~2002년경에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술작가와 작업을 같이 해보기도 했어요, 지도를 한 번 그려 와 보라고 했더니 좀 이상하게 그려 왔더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개념이 없게 그려 오신 거예요, 그림에 뷰포인트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 건물은 저 쪽에서 바라보고 이 건물은 이쪽에서 바라 본 거고, 아주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그려 오라고 했는데 좁은 골목을 대로로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그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시 그려 오셨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깐 길은 잘 안드러나고 면적을 강조해 오신 거예요, 길이 부각되면 좋겠다고 해서 고치기는 했지만, 건물을 표현하는 시선이 일관되지 않고 초현실적으로 그려오셨어요, 결국 작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인공위성 사진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직관적으로 우리의 정보를



[자료 3. 2001 지도그리기 : 약령시장 지도그리기]

기록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지금처럼 구글어스 같은 위성지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때여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마추어였고 전문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 당시 저희의 슬로건은 ‘지금 현재, 이 도시의 돈의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른들이겠지만, 우리가 그 지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용맹함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그리기 2 : 지도를 지도 그리다

그러면서 저희 지도가 좀 더 축적을 고려하고, 조금 더 거리를 신경 쓰는 단계까지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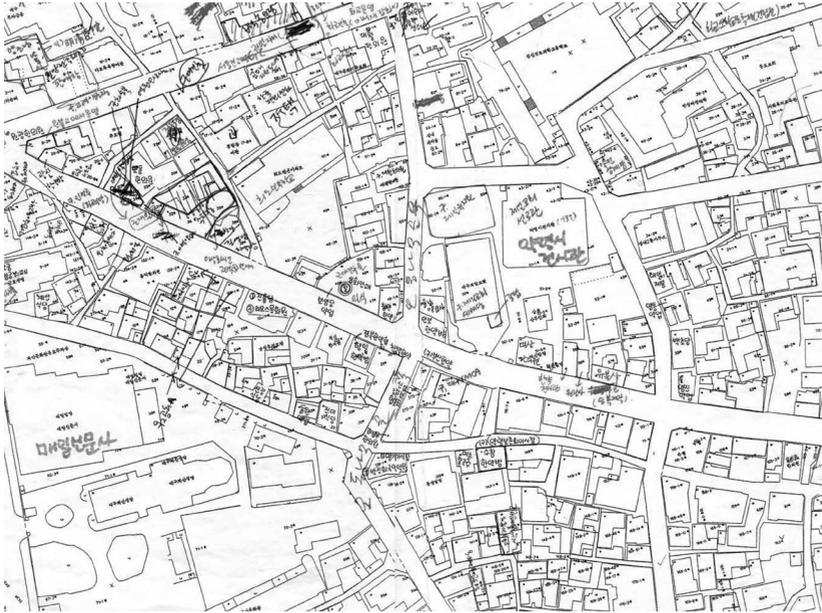
어느 날 지적도地籍圖⁰¹를 알게 됐어요. 번지수가 적혀있는 지도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모든 번지수가 다 적혀 있으니, 걸어가면서 건물의 번지수를 자동으로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번지수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도를 지도 그리다’라는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기존의 지도에 새로운 정보를 얹어서 뭔가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적도 말고도 ‘향측도’도 알게 됐어요. 향측도를 ‘수치지형도’라고도 하는데, CAD파일에 중요한 정보들이 실려 있는 지도죠. 심지어 맨홀, 가스배관의 정보나 건물이 몇 층인지, 콘크리트인지 나무인지 벽돌인지 하는 정보들까지 향측도만 출력 받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죠. 이 지도정보 위에 우리가 조사한 새로운 정보를 담아보자 하면서 2005년 신나게 그렸던 겁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지도가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손대기 시작했어요. 한자와 일본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이버 한자, 일본어 사전에 사용해서 한 자 한 자 번역해서 재출간하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진 것들을 강조시켜서 막 적어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상실감’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근대 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 인식들을 좀 만들어서 근대 건축물들이 왜 중요한지를 역으로 설명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 지도가 <근대 건축물 지도>입니다.

북성로의 재발견 프로젝트

이런 경험으로 저희들이 기록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성로에 상당히 넓은 필지가 있었어요. ‘필지筆地’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구요. ‘미니까이백화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조선시대 때 ‘감영화약창’이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동경까지 지점을 났던 미니까이백화점의 본점이었던 곳이에요. 일본이 전쟁에 지고 물러나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적산관리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세무서’가

01 지적도 : 토지가 있는 곳이나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표지 평면도를 가리킨다.



[자료 4. 약령시장 항공도]

되고, 이곳을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데, 대우그룹이 이 땅을 사게 됩니다. 대우그룹이 소유하고 있었다가 대우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우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대학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10년 단위로 바뀌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시·공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시·공간이란 것이 혹시 '지층처럼 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북성로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니 '쌓인다'는 말을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만큼 오래된 시대가 있는 것이죠. 한국사에서 인류학을 개척해 오신 한 노학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선시대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니, “조선시대는 1미터 땅 밑에 있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1미터 아래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시를 보는 시각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북성로에 일제 강점기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기초석들을 파보니까, 한 4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가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러면 1907~1910년경에 일제가 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때의 기초석들은 그 정도 포인트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대구읍성의 북쪽 성곽이었던 북성로에 조선시대 층은 한 1미터 밑에 있겠다고 상상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계속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경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땅을 긁어 내기 시작하는데, 땅 속에 파묻혀 있던 돌들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땅을 더 파보았더니 대구읍성 성곽돌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대구가 이런 도시라는 거죠. 그냥 버려 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과연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것은 인문학적 표현일까, 과학적인 표현일까, 여태까지는 좀 인문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에 대해 알아 봤지만, ‘시간이 켜켜이 쌓인다’ 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물리적이고 실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 아카이브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읍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료 6] 지도는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폐쇄지적도> 위에 대구읍성의 궤적들을 담기 시작한 작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업들을 시민들이 전부 했다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상식수준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읍성 성돌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성돌을 다시 찾아오는 프로젝트가 201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재미난 게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스마트폰에 담는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이죠. 어떤 곳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일제 강점기 당시의 북성로 모습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 우선 보이고, 그 다음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축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자료 5. 공사현장에서 나온 대구읍성 성곽돌]



[자료 6. 대구읍성 폐쇄지적도 작업]

time travel

태국 시간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933복성로에서
2012년 복성로를 만나다



[자료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작업]

구축 해 온 많은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해 보았어요.

이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다른 실험도 구상하게 되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카이뷰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1950년대에 찍힌 항공사진이 스카이뷰잖아요. 그래서 포털에서 1950년대 스카이뷰를 클릭하면 보이는 방식, 그런 서비스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그만 뒀는데요.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시민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구요. 저희 팀이 이런 자료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가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좀 해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아카이브 놀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해당 전문가들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봅니다. 전문가 분들도 저희 의견을 묻는 일이 지역 내에서 생겨나게 됐어요.

현재는 그런 표현들을 해주시는 분들과 저희가 해온 작업들을 계속 공유하고 노하우를 나누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많이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서태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서태지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가장 바닥에서 1등을 해본 경험을 가진 친구' 라고 해야 하나요. 그 경험을 지켜본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지역에 살면서 솔직히 제대로 된 것들을 잘 못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엘리트분도 많으시고, 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만,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수도권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스스로 '도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유형들의 실제적인 작업들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부자카이 이베누 교수님의 '학교의 외부에서 어떤 도시적 지식을 만들어 냈다' 라는 표현처럼 흘러 왔던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작업이 또 다른 발표를 해주실 다른 분들과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연(사회적기업 티팻)_티팻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동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와 과정을 기획한다. '왜 그 문제에 집중하는가'를 숙고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공적경험을 디자인한다. gan5@naver.com

라운드 테이블 02

조 주 연 (사회적기업 티팟)

싸움의 기술

지역연구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 보신 거죠? 발제를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되물어봤죠. 티팟이 한 걸 얘기 하는 거냐, 아니면 제가 한 것을 얘기 하는 거냐라고, 티팟이 한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아 본 것 같아요. 조주연이나, 티팟이냐? 티팟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다르다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티팟은 지역연구를 왜 그렇게 접근하게 됐는지,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디자인 베이스에서 소위 지역연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왜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권상구 선생님보다는 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여주 출신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수도권 중에서도 한강 동쪽은 굉장히 나중에서야 발전이 됐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저에게 농사짓고 살지 말아라, 부모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때는 자식을 공부 시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정말 옛날 얘기처럼 들리죠.

제가 자라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직장생활은 1~2년 밖에 안 했어요. 디자인회사를 거의 10년 하고 티팟을 10년, 이렇게 사업만 20년을 했어요. 권상구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1년에 제가 간텍스트라는 디자인 회사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만드는

대안교과서에 대구 골목이야기를 실기 위해 대구에 내려 갔는데, 그날 눈이 내려 쌓였어요. 그래서 그날 사진 촬영을 못하고 얘기만 듣고 올라왔었죠. 다시 내려가 작업을 했었는데, 그 때 제가 교육 디자인 작업을 했었죠. 그 무렵 저는 디자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간택스트에서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다가 티팟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나도 그렇지만, 그 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디자인을 하는지, 무엇을 디자인할 것인지, 무엇을 기획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라든지 문화판이라든지 디자인판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것들은 선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일부이죠. 디자인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기업만을 위한 디자인 범위를 절대로 넘어 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그런 주체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대변하는가, 이 범주를 넘어서려 하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없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기획의 주체가 누군인가? 이 도시, 이 세계의 기획의 주체가 누구냐, 보통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마리를 풀 수 없는 혼돈의 세상을 꽤 오래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안 풀렸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저는,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공공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공공영역 작업이 훨씬 더 어렵다는 분들도 있는데, 한 마디로 주인이 확실히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말이지요. 과거에 이 공공영역에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있어 왔어요. 그게 좀 이분화되어 있었죠. '권력'이나 '정치'가 공공영역에서 실제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주체에 해당되죠. 아무튼 이해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얽혀있는 복잡한 영역인거죠. 공공영역에서는 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주체의 문제, 지역에 관한 문제, 어떤 디자인과 예술에 관한 문제를 이런 영역에서 판을 한 번 벌려 볼만 한 거예요. 자발적인 어떤 것들을 주제로 설정하면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고, 굉장히 미시적인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영역에서 뭔가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실천해 볼만 판을 형성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기획은 현재도 자본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과거에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뭘 하든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큰 벽이 확실히 존재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돌파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생각한 범주의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계획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말 무식하게, 관상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데, 계획 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실패했지만 한두 가지 잘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무계획 프로젝트’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2007년에 티팟 일을 시작하면서, 전북 진안에 간판프로젝트를 했어요.

[자료 1] 사진을 보시죠.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어머니는 (원춘)정육점을 하고 아들은 포크레인, 중장비 이런 것을 해요. 간판을 새로 해야겠다 해서 간판시안을 준비해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왜 정육점을 하시게 됐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간판디자인에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방문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나서 디자인 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희의 간판 시안을 보시고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이야기나 의견이 얽치라뒤치라 하는 거죠. 이것 하나를 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자료 1, 백운면 간판 디자인 사례]



[자료 2, 백운면 간판 디자인 사례]

거죠. 아버님께서서는 평생 매사냥을 하셨던 분이예요. 집에서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하셨던 것이죠. 가게 간판에 당신의 존재감이 없어서 내심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속마음을 진작 앞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잖아요. 디자인 시안이 얹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간판에 아버님의 매사냥을 작게라도 넣는 것에 최종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게 2007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응방'이라는 하나의 간판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의 권위를 찾은 것이죠. 매사냥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이 분이 어쨌든 매사냥으로 돈을 실제 버는지 모르겠지만 존재감이 높아졌어요.

다음 간판사례 [자료 2] 도 비슷한데, 마을에 건강원이 오랫동안 운영되다가 없어졌는데 마을에 계신 분이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요청으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간판을 한 것이죠. 처음엔 무식하게,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도 그래요. 이 마을에 <마을조사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한 번 해보자고 생각했죠. <마을조사단>이 2년 동안 마을조사 활동을 하면서 『백운』이라는 마을지를 만들었어요. 조사의 힘인데, 이 책 안에는 가족사항을 조사한 자료도 들어 있어요. 거의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 마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조사팀들과 티팟이 같이 <백운마을 에코뮤지엄> 작업을 했어요. 전혀 이런 경험이 없었고

01 응방鷹坊은 고려 시대 때 설치된 매의 사냥과 사육을 담당했던 곳이다.



[자료 3. 백운면 마을조사단의 마을조사집]



[자료 4. 원촌면 마을지도]

마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시작했던 것이 협업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료 4]는 면 소재지인 원촌 마을지도입니다. 왼쪽 게 백운면 전체 지도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지도 그리는 작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행정단위 리북이 9개 있는데 면장님이 회의를 하면 마을 대표자가 9명이 아니고 22명이 모여요. 과거의 리(법정리)와 행정리가 다른 거죠. 실제로 면장이 이상님하고 무슨 마을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상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분들만 모이는게 아니예요. 22명의 이상님이 마을에서 일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소개하면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거죠. 50명과 같이 이 지도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50명 각자의 기억으로 그리면 어쨌든 행정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분들과 이 지도 하나를 그려 나가는데, 간판시안을 바꾸는 과정처럼 고단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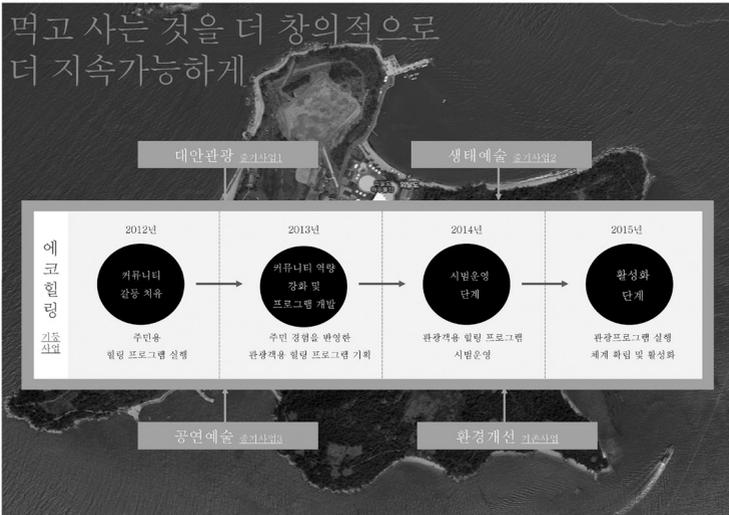
실패의 경험 : 목포 외달도

다음은 실패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의 백운면 경험을 통해 뭔가 좀 알게 됐어요. 지역에서 객관적인 과거의 사실 등을 리서치하고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리서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끌어내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우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리서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덤빉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참패’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외달도⁰²라고 전남 목포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백사장이 있고 조그마한 무인도도 있어요. 이런 작은 섬에 해수풀장과 야외 화훼단지를 만들어 졌어요. 김대중 정부 때, 이런 사업들을 내려 준 거죠. 한 20~3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인구수가 30명도 안돼요. 이런 작은 섬에 300억 정도를 투입해 해수풀장과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관광섬이 되게끔 했죠. 섬 주민의 대부분이 70~80대 되는 노인 분들이세요. 섬에서 논을 ‘논금’이라고 불렀는데 금처럼 귀하다는 뜻이죠. 이런 논을 평당 5천 원 썩에 목포시가 사들여서 300억을 투자해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굉장히 잘 살게 될 거라고 만들어 놔는데 관리가 안 됐죠. 여기 주민들은 고작 해박야 민박, 식당 이런 것을 해요. 형편이 좀 나아졌을까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겠죠. 이 시설과 주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고 주민들과 목포시 간 갈등이 터지고 하면서 주민들 안에서도 갈등이 생겼어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저희가 섬에 들어간 것이죠. 민과 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목포시가 섬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권리 자체도 없는 땅을 사들이다 보니까, 논을 뺏겼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시가 매입하기 이전까지, 섬 주민들은 집안 대대로 물려 받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살아왔던 것인데, 매입 과정에서 보니까 땅 소유자가 행정적으로 확실치 않았던

02 외달도 外達島 Oedaldo, 전라남도 목포시의 유달동에 속하는 섬이다. 목포 시가지의 서쪽 해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의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달리도(達里島)와 마주보고 있다. 해안선은 단조로우며, 북서쪽으로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있다. 근해는 조류가 빨라 어로가 어려워 주로 김 등의 양식업이 이루어진다.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서북쪽 해안가는 1925년부터 해수욕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부속 무인도로 별도가 있다. 『대동여지도』에 섬이 기재되어 있다. 고려 시대부터 주민들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1700년대에 달리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해 와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외름개 떠 있는 섬이라 하여 외달도라고 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달리도 바깥쪽에 있는 섬이라고 하여 외달도(밖다리섬)라고도 한다. (조주연, 발표 자료에서)



[자료 5, 외달도 프로젝트 로드맵]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커진 거예요. 갈등의 정도가 집단우울증의 수준입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업을 해보았지만 외달도 같은 공공사업 처럼 지역의 커뮤니티나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이렇게까지 파괴시킨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목포시는 이후에도 여러 공공사업을 계속 하는데, 주민들은 그냥 너희가 망쳐 놔오니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사업을 늘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니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먼저 주민을 치유해 보자는 사업을 세운 거예요. 시장님까지 만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개선을 해보자 했는데, 됐을까요? 사업비도 30억이나 있어요. 예산도 다 만들어져 있고 추진하면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결론적으로 공공적인 피해가 너무나 확실하고 그 피해가 어떤 것인지도 심리학적, 임상학적, 문화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지요. 어떤 방식일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돌연변이 : 안양, 서울, 인천송도 디자인리서치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벽에 의해 안 된다는 것도 알겠던 것이죠. 그럼 이런 벽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우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혼자서는 어렵다. 동지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디자인이나 문화판에는 지적 허영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현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무척 재미있는 일이라고 꼬시는 것이죠.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 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관찮은 돌연변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나면, 대부분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는데, 리서치의 중요성은 '왜, 어떻게'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커뮤니티 리서치는 어떤 장소에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2006~2008년 사이에 우연하게 <안양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양의 신도심 평촌과 구도심 박달동을 공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었어요. 60년대 박정희 때 박달동에 큰 물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공장지대 옆에 있는 주거단지 지역인데 인명피해도 많았고 수해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죠. 그로 인해 단독주택의 새주거단지계획을 세워요. 그때 다 같이 집을 지은 거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을과 주택들의 변화를 조사한 것입니다. 권상구 선생님이 얘기한 '시간의 켜'가 한 마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이 안양 리서치 경험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홍대 앞 상삼마당에서 <디자인 리서치 학교>라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물이 『특별한 도시공부』입니다. 개인별로 도시에 관한 관심사를 각자의 리서치 주제로 삼아 지역의 이슈와 보이지 않는 맥락을

도시 디자인리서치 안양

구도심과 신도심의 관계를 안양 시민의 구체적 일상 문제를 세세하게 알고, 문고 숨겨진 맥락을 드러내 보았다.
안양시의 도시문화정책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시도한 이 프로젝트는 교통, 소음, 주거, 가족, 아이덴티티, 사진 도큐먼트 등 여섯 개의 디자인리서치로 진행하였다.



추적하고 리서치를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천변풍경〉 작업은 정릉천과 신도림 도림천을 비교한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정릉천 지역은 천과 동네가 결합을 하면서 발전을 한 거예요. 도림천은 물을 막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물을 다시 흘려보낸 계획 하천인거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언더월드 여행법〉은 땅 아래 지하철로 연결된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룬 작업입니다. 지하철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한다고 전제하고 리서처가 사람들을 미행 해보는 거예요. 랜덤하게 ‘오늘은 빨간 치마의 30대 여자를 미행하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를 미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리서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인하대에서 〈지역사회와 디자인〉 수업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 중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인천 송도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10개 팀이 리서치를 했는데, 그 중 한 팀의 작업이 흥미로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돌연변이’ 얘기 했잖아요. 발칙한 돌연변이 같은 친구들을 키워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인천 송도를 가보면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리다가 유령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현장을 리서치했습니다. 송도가 개발 추진율이 19.9%라고 해요. 9,

서울
특별한 도시공부

개인별 도시관찰서를 각각의 리서치 주제로 삼아서 지역의 이슈와 보이지 않는 역학을 추적하고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디자인 열풍입니다.



[자료 6. 언더월드 여행법]

10, 11공구는 아직 개발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1, 2, 4 공구는 100% 개발 되었다고 송도개발구역청에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 개발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무식하게 한 번 알아보는 거죠. 과연 100% 다 됐을까? 그래서 현장을 발품 팔아가면서 리서치를 하는데, 빈 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빈 부지가 왜 이렇게 많을까? 공터의 정체는 뭘까? 이것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어떤 곳은 갈대밭이고, 공원이고, 꽃밭이고, 어떤 건 완공 된 것이고 어떤 건 건축 중이고, 이런 현장성을 하나하나 지도에 그려가며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떼서 소유주가 누군지 파악해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골 때리게 분양을 시켜 놓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양 되었다고 하는 건 IFEZ⁰³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누구한테 분양을 시킨 거예요. 현대에서 샀거나 누가 산거지요. 그런데 대기업이 사서 개발을 안 하고 딴 데다 넘기고, 분양조건 자체가 내가 받았다가 나중에 되팔 수도 있는 구조로 분양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조들, 신탁회사 소유라든지, 은행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체를 파악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비어있는 부지예요. 100% 개발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터들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송도는 국제도시가 아니라 텃밭도시인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보 이미지는 화려한 도시죠.

정리해보자면 송도의 3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계획 속 송도, 광고 속 송도, 그리고 직접 본 송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본 송도는 도대체 누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팀은 송도의 현실의 모습을 한 번 드러내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송도리째 프로젝트>는 송도의 현실을 폭로하고 공유한다는 콘셉트로 잡고 '송도리째' 폭로해보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저격수'가 한 번 되어 보겠다, 저격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총알은 리서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총이라고 하는 것은 SNS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죠. 리서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런 것들을 폭로 하는 것, 어쩌면 똑똑한 거죠. 혼자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에 마중물을 넣어 확산하는 것들, 보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03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 구역/이 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을 말한다. 사이트 www.ifez.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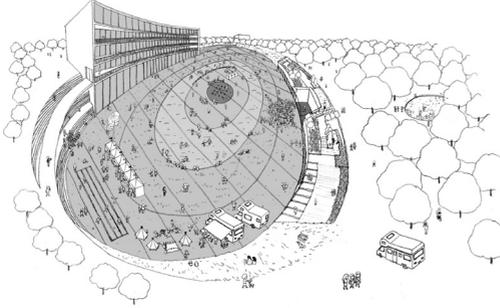
[자료 7. 송도리제 디자인리서치]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거죠. 여기는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현대텃밭>, 이런 식으로 꽃말을 제작한다거나, '추진율 20%' 라고 적은 스티커를 만들어 기존 송도광고판에 슬쩍 붙이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와 액션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는 공공부문에 이런 것을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역연구=싸움의 기술 : 정치 리서치 디자인

우리에게 지역연구라는 것이 무엇이나? 이것을 저는 '싸움의 기술'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한해서 어떤 것들을 좀 바꾸는, 요만큼이라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연구라고 하는 어떤 틀, 데이터, 다른 관점의 제시, 이런 것들은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기획하는 주체가 자본이라면 자본과 싸워야하고, 그 주체가 정치라면 그들과도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조금 더 변화시키기 위해 싸움을 설계하는 기술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 리서치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리서치 디자인이란 이런 겁니다. <놀라운 경기도청>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따끈따끈한 싸움인데요. 경기도청이 지어질 지 꽤 오래 됐죠. 신청사 건립을 안 한다고 했다가 남경필

권위를 높이고, 경기도를 보는 눈높이를 맞춰서, 협치를 연습하는 마당 “경기장”



지사가 당선되면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이미 과거의 용도대로 거의 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도시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쓰임을 고려한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를 넣어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 그것을 <놀라운 도청>이라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자료인데,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티팟의 제안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참여를 했고 전문가들, 여기는 행정 공무원들도 참여를 했어요.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코디네이팅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죠. 이게 리서치의 힘, 싸움의 기술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21세기 속의 경기도청’이라고 했는데, ‘경기·장場’의 개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31개 경기도 시·군을 다니면서 포스트잇 붙이는 것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모았죠. 오픈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모임들을 모아서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공무원들의 의견도 모아서 키워드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죠. 신청사가 워낙 큰 공간이니까, 이런 의견(아이디어)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의 앞마당’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남지사가 협치協治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만 협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협치도 연습이 필요한데, 정치적으로만 하지 말고 시민들과 같이 협치 할 수 있는 공간, 그러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한다, 행정-의회-민간 3개 주체의 혁신을

구분	실문조사-포스트잇 댓글	소셜 디스커션1 오븐데이일	소셜 디스커션2 소셜믹션	경기도 공무원 수요조사	전문가 워크숍 1차 창의성	전문가 워크숍 2차 쓰임새	키워드
문제 이유	-도민 소통 공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곳	-외관상의 아름다움 -기능, 서비스, 편의, 공명화, 편의 등을 위한 공간	-편도미 될 수 있는 곳 -민원(이) 아니라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경기도민과 공민-아이들 키우듯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도정	-담당 있는 도청 -조직 내부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청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위한 공간 -공공과 협업이 가능 하는 소통 공간 -부동산(도시)의 도청	-단계별 계층을 통해 '참여'와 '자발성'을 연습하는 공간이 되도록	소통의 앞마당 감정 없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참여, 자발성, 앞마당
행정-민간의 관계	-외관적인 등산, 한 눈에 파악되는 구조 -연속하고 명확한 할피, 활기차고 친절한 분위기와 서비스 -도민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잘 마련된 청사	-누구나 편린이 있어도 즐거워 찾고 배려 찾을 수 있는 공간 -도민 서비스 공간 -고객 중심의 민원실 -착취적인 홍보 및 안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공간 -노형, 다양화 인구 배려	-주최시설, 확장실, 상업 시설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 시설 공간 확보	-원칙 가능한 공간 운영 -주요의 커뮤니케이션 -민원 종류 분석 통해, 자주 찾는 부서의 접근성 높이기	-기타 공공사업의 차별화 -다양한 수준별 -소통을 위한 공간화 -다채롭고 다양한 대안 모색	허용감을 주는 서비스, 시설, 접근성, 편안한, 국민적인, 다양한, 확장성
행정-행정간의 관계		-관리자의 실무자의 소통 촉진하는 공간 -회의실 확대 -직원을 위한 공간	-플렉시블한 사무공간 (예: 온/오프라인이 병행 가능) -스타, 카페, 산책로 등 -온/오프믹스 (온은 부서와 오프는 민원)	-소통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업무수행 공간 -직원 복지 공간 -복합형 혹은 남부형 출장 시 대기를 및 임시 업무공간 필요	-행정 혁신의 공간 -유사업무가 가깝게 -상업과 연계 커뮤니케이션이	-경기도 관청에서 고려된 스타미트 오피스 및 회의실 공간 -클라우드 개념 도입	가능한 변화 복지, 휴식, 창의성, 소통, 가변적, 장기적, 혁신, IT
민간-민간의 관계	-문화예술 함유 공간과 프로그램이 다양함	-문화공간 개발 (음악당, 공연장, 동아리실)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 -교육 및 체험공간	-생활 편의가 자리하는 공간 (편의점, 휴식, 산책과 운동) -어린이의 기숙, 운동, 노년 등 다양한 민간의 체험공간, 다목적 공간 -재능기부자 배움이 연결 되는 곳	-문화, 여가 공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의 원과 도민이 만나는 공간	-일상 속에 녹아 드는 공간(편의점, 카페, 휴양 시설 등) -일상 속에서 변화용 창출하는 공간	-사회적 관계 주체들의 성장 경험 및 대중 감성을 열어주는 '시장'	민간의 공간 문화, 휴식, 문화, 체험, 예술, 민원, 연금, 시장
경기도 전체-도청의 관계	북부 도민이 소통공간 느끼지 않는 서비스나 공간	먼거리의 주민 배려-서울 등 교통편 마련-아트센터 지역-미디어 기능-공간적 지원 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 공간	북부청 실각별 사무공간 필요	경기남부청, 북부청 균형 발전 -업무(주요) 배후로 각 부서의 전이 -노역	-각 지역세 반영, 분명한 유인책 필요 -“미움의 거리”를 줄이는 노력	지역의 존중 “미움의 거리”, 친근감, 균형, 지역색의 인정, 교통, 미디어기술
공간 개념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는 공간	-도민이 참여하는 건축-직원 참여할 기회 제공-이름 세기기 -빈 공간을 직접 만들어 가도록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는 공간 -복합적인 공간 -연방하는 과정	-직원 및 도민 등 사용자가 만족하는 편의, 배려 공간	-감호하지 않고, 노숙하게 연결하는 -도민공간과 행정공간의 면적이 1:1이 되도록	-Buffer (빈-공 사이 중간지대) 필요 -‘화랑과 아고라’의 절충한 배치, 직각 표현의 공간	만들어가는 공간 공간지대, 다양한 사용자, 참여하는, 직접 만들어가는, 빈 공간

[자료 8. <놀라운 경기동행> 리서치를 통한 키워드 도출]

동시에 촉발시키는 협력의 연습장,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왜 건물 높이가 36층인가 했더니 신청사 주위에 서 있는 아파트들이 고층인 것이죠. 도청이 더 높아야 된다는 생각에 36층 높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깐, 25층으로 줄여 놔주세요. 일테면 25층 정도가 최후의 자존심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25층이어도 35층 아파트랑 실제 같은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 도민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건물이 높고 권위가 세워지냐, 권위를 높히자! 경기도를 눈높이를 맞춰서 협치를 연습하는 마당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모아냈는가라고 하는 '리서치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 건축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청 자문단이거든요. 공간건축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간건축에서 (설계)팀을 짜서 자문단에 넣고, 자문단이 공간건축을 어쨌든 뽑아 주고, 이러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단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저걸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넣는 것을 주장하고 나와서 2차전이 됐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 전문가들과 회사들, 또 공무원들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가지고 꼭 이겨 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요. 초반에 질문한 것이 있잖아요.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다' 고요. 그런데 티팟이, 또는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 돌아가는 구조, 거기서 계속 싸움을 하면서 뭔가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저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고, 오늘의 저나 여러분이 크고 작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을 하면서 어떤 적정선까지, 사람들이 살만한 어떤 가치들이 죽지 않고 계속 쌓여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만큼의 가능성 같은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약 100년 전에 윌리엄 모리스 William Morris(영국의 작가, 건축가, 1834~1896)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구요. "사람들은 전투를 하고 전투에서 지지만,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얻기 위해 싸웠던 것들을 얻는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의도했던 것이 아님이 밝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의도했던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싸웠는데, 뭔가를 얻었는데, 그 얻은 게 목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싸워 주는 거예요. 그 때 싸웠던 것을 지금도 계속 싸우는 방식으로서 지역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a1-A p.140
- a1-B p.134, 135
- a1-C p.141
- a5-A p.138
- b1-A p.141
- b4-A p.146, 147
- b4-B p.142, 143
- c3-A p.139
- c4-A p.144, 145
- d1-A p.130
- d2-A p.131
- d3-A p.136, 137
- d3-B p.133
- d3-C p.138
- d4-A p.132
- d5-A p.138

티팟, <안양 도시디자인 리서치>



이명훈(예술공간돈키호테)_ 전남 순천에 위치한 예술공간돈키호테는 예술의 동시대성과 장소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지역연구로는 <근대도시 여행자들>, <레지던스 프로그램 : 기억과 증명>, <시네마무진>, <신당동 시간매핑>, <마라토너 남승룡 스토리텔링> 등의 작업이 있다. mhoon33@daum.net

라운드 테이블 03

이명훈 (예술공간 돈키호테)

리서치가 된 예술가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역연구라는 큰 주제에서, 예술가 또는 예술공간들은 지역연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술가는 왜 리서치를 하는가입니다. 동시대 예술에서 '리서치 예술'의 발생 배경을 짚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리서치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리는 방식에 있어 예술공간 돈키호테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고민하고 싶은 문제들입니다.

1. 예술가는 왜 리서치를 하는가?

우선 이 질문을 풀어보기 위해 제 나름대로 동시대 예술의 대강의 흐름과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 1] 미술사나 현대예술의 맥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표에 제시된 개념들이 상호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예술이 워낙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이번 주제에 관련해 키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간 돈키호테나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20세기초	60-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동시대 예술
국제주의(건축)	개념/실험/확장 모더니즘(추상미술) (비판적)리얼리즘	경직된 예술 민중미술	정체성중시경향 포스트모더니즘	과정중시경향 다원예술 대안미술	과정으로서의 예술 장르예술로부터 탈피 비판적
사진/광학장치	혼합재료 기념동상제작 공공미술/대지미술	민족민중예술론 건축물/공원장식품	비디오아트 예술사회학 사회적예술	미디어아트 문맥 속의 예술 퍼블릭아트/디자인	다양한 매체활용/협업을 통한 창작 작품의 맥락 중시/제작 배경 공적인 것(사적인 것과의 혼돈)
식민지교육	• 대안공간 등장 • 사회과학 대두	(역사)기억투쟁	대안공간 등장 (대중)문화연구	레이던스프로그래 문화인류학/문화사회학 문화예술교육	장소성/상호작용 공동체/마을/도시 예술가의 창작공간/스튜디오의 변화 유목적/이동편이성/단기체류-이주 수행적 리서치 교육자-예술가/스트리트링
유학/미술학교/사숙	미술대학교육 국민/지도자	하방/협회지부 민중/엘리트	•지방자치시작 시민/대중	문화도시/지역문화재단 다중/공동체	지역적이슈/로컬리티/글로벌 (소수집단)공동체 이슈
천재 아니면 바보 순수(순결)의 예술	수도자-예술가 불순(방종)의 예술	수호자-예술가 참여의 예술	개인의 정체성고민	생활인-멀티플레이어 개인의 예술	예술인 복지, 처우개선 등 예술의 윤리/태도의 문제 중시

[표 1. 동시대 예술의 흐름]

#과정으로서의 예술

특히 ‘과정으로서의 예술’이 ‘리서치 아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것은 예술의 가치를 예술가가 완성한 결과물, 즉 작품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여 이른바 예술시장에서 비싸게 유통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죠. 결국 예술가의 작품보다는 아이디어가 우선하고 예술가의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리서치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도 이러한 맥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리서치 행위를 예술행위나 작업으로 인식하고 간주하는 선언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들도 창작에 있어 기본 리서치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리서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예술이 되기도 하고, 단순히 부차적인 또는 작품을 위한 사전 조사와 연구의 수준에 머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예술을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겠죠. 또한 결과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상상외로 허접할 수 있고 미완성의 경우도 많습니다.

#장르예술로부터 탈피

그 다음으로는 ‘장르예술로부터 탈피’ 하려는 경향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술을 분류하는 장르개념이 모호해진 것과 예술가 스스로 장르와 같은 분류 틀로부터 벗어나려는 공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르파괴, 탈장르, 크로스오버, 다원적 예술과 같은 개념들이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장르논쟁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예술의 개념에 대한 논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의 예술이 다른 영역, 일테면 정치사회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나 과학, 인문학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협업의 방식도 넓게 보면 (장르)예술로부터의 탈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탈피’ 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으로서의 예술’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탈피의 시도가 결국에는 예술로 환원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일테면 사회학자는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방식이라면, 예술가는 사회문제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그 연구의 행위를 예술행위로 간주하게 되면 코미디 같은 것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해결책이란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결론, 허무맹랑한 결과물을 제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예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심하게는 탈피라는 것은 예술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시킨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런 예술가들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물론 심하게는 욕을 먹고 쫓겨나는 예술가도 있지요. 신고를 당해 경찰에 쫓겨 다니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가 예술가들에게 얼마큼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예술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술가들의 엉뚱한 연구의 과정이나 희한한 결론을 통해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매체활용과 협업을 통한 창작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협업을 통한 창작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오늘의 예술가들은 매체 선택에 있어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매체에 대한 실험도 왕성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매체를 마스터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매체를 a부터 z까지 마스터해보겠다는 욕심보다는 자기에게 필요한 매체의 일부분을 취하려는 경향이 훨씬 많겠죠. 어떤 주제나 소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분야에서도 역시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제대로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리서치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예술가는 원하는 것을 스스로 독하게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지요. 일종의 DIY예술인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술가들은 자연스럽게 아는 게 많아 질 겁니다. 박학다식, 잡학다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자연히 할 말이 많아지겠죠. 이것이 다음의 키워드인 작업의 맥락과 제작의 배경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또는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제작의 배경이라든지 맥락, 문맥, 컨텍스트 이런 개념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예술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창작공간의 변화와 지역연계프로그램

최근 미술 분야에서는 창작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작업의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작공간이 등장하면서, 전국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작가 가운데는 작업도구의 간소화라든지 단기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고민한다든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든지, 그렇게 작업 조건과 환경에 적응하는 경향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작이 유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유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동이 편해야겠지요, 그리고 단기체류프로그램이 많다보니 작업의 진도에 대한

스피드가 요구되고 개념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짚어 볼 수 있는 점은 레지던스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지역과의 협력’이나 ‘공헌’ 비슷한 과제들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그로인해 작가들이 (특정)지역을 필연적으로 리서치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작가들은 작업을 위한 리서치를 어떤 식으로든 하게 마련입니다. 마치 소논문이나 리포트를 제출하듯, 그래서인지 리서치 형태로서 작품/작업이 끝나는 경향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 퀄리티가 높은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애초에 무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조사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을 끝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수행적 리서치 또는 리서치 아트는 60년대 서구에서 동시대 예술가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리서치 방식을 차용하면서 두드러진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80년대 들어 사회과학이 중요한 계급투쟁이나 역사투쟁을 위해 중요해졌다면, 90년대에는 대중문화의 폭발과 함께 불붙은 문화이론연구와 문화의 세기에 대한 담론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인류학이나 문화사회학 같이 문화를 주제로 한 미시적 리서치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건축이나 도시, 역사 부문에서도 흥미로운 시각적 리서치들이 또한 예술가들에게 자극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일기식 기록들, 스냅사진, 우연한 만남이나 발견들, 에스키스를 포함한 작가의 노트 또는 리서치 주제와 관련된 스크랩, 신체적 접촉 또는 답사에 대한 소감 등이 제시되는 예술가들의 리서치들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 논리적 형식보다는 결론이 없는 기승전의 구조, 결론(결말)을 내기보다는 ‘열려있는’ 상태로 열어 둬으로써, 결과는 관객의 몫이 되기 일쑤입니다.

#수행적 리서치란 무엇인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적 리서치’가 무엇인지, 제가 앞서 키워드를 통해 나열한 내용들을

좀 더 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리서치 예술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백영주라는 분이 2012년에 쓴 「현대예술에서의 수행적 리서치의 양상과 의미」라는 논문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 세 가지 정도를 발췌 해 봤습니다.

1. 수행적 리서치(Performative Research)는 단지 어떤 대상을 목격하는 행위를 넘어서 상황에 관여하며, 감지하기 어려운 것들을 읽어내고, 추적해 나가며, 과정에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리서치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위치시키고 개입할 것인지에 관한 태도 설정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리서치의 감성, 상상력, 정서, 직관력, 주관성, 지향성 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수행적 리서치의 핵심은 정보의 창의적 해석에 있으며, 이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백영주)

두 번째는 리서치가 예술에서 어떻게 도입이 되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60~70년대 사회과학이 대두 되었고, 이것에 많은 예술가들이 리서치의 태도를 취하기 시작 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술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 내면, 작가의 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60~70년대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어떤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성과들이 많이 주목이 되면서, 리서치라고 하는 것들을 예술가들이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백영주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2. 60-70년대 사회과학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 세계의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리서치의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과학의 틀을 창작활동에 적용 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관성과 결부되어 있던 예술의 영역에 질서와 규칙을 부여하며, 작업 절차의 구조적 투명성과 객관성을

영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사진과 같이 과학기술이 예술화되었던 관례적 경로를 반전시켜 놓았으며, 내밀하고 사적인 예술 활동을 탈신비화하고 공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백영주)

3. 현대 예술에서 수행적 리서치는 시공간의 경험을 수집collect, 기록document하는 것, 이를 분류하고 저장/보관하는 행위인 아카이브archive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들을 재구성하고 진형하는 행위로서 구체화되고 있다. 할 포스터는 이러한 작업방식으로 구현되는 예술을 아카이브 아트Archive Art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는 규칙적이고 기계적으로 체계화되는 데이터베이스(DB)와 달리 완고하게 물질적이고 촉각적이며 파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백영주)

이러한 설명을 통해 수행적 리서치 예술의 유형들을 생각해보고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수행의 유형	수행자의 정체성	
1	답사하기	돌아다니기, 배회하기, 산보하기, 안내받기, 관찰하기 등	산책자
2	수집하기	줍기(넝마주이), 일상의 사물줍기, 분리수거, 쓰레기장 뒤지기 등	수집가(컬렉터)
3	기록하기	자체기록, 다큐멘터리/모큐멘터리 사진-영상 제작, 작업노트 작성 등	기록자
4	취재하기	제보받기, 인터뷰, 여론조사, 추적하기, 신문제작 등	저널리스트
5	발굴하기	찾아내기, 땅파기, 세척하기, 라벨붙이기, (생활사)박물관 만들기 등	고고학자
6	아카이빙	수집/기록물의 분류/저장/보관, 전시장 만들기 등	아카비스트
7	측량하기	다양한 측량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심리적 측량하기, 다양한 미디어 동원	측량기사
8	드로잉	흔적드로잉, 상상 또는 기억드로잉, 캐릭터만들기, 공간-심리지도그리기	화가
9	매핑	공간/지리/영토/통계/문화 지도, 심리지도, 보물지도 제작 등	지도제작자
10	스토리텔링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구술채록, 이야기꾼 찾기 등	스토리텔러
11	비평하기	장소성, 공동체 등의 이슈/분석/해석, 시스템비평, 도상해석 등	비평가
12	기획하기	보고회, 전시, 공연, 강연, 교육프로그램 등 기획서 제작/예산확보 활동	기획자
13	발표하기	보고회, 전시, 공연, 강연-퍼포먼스, 이벤트(퍼포먼스, 해프닝) 등	큐레이터, 연출가
14	교육하기	강연, 해설, 체험, 워크숍, 가이드 등	교육자
15	출판하기	자가 출판, 보고서 등 독립출판	저자, 편집자, 발행인

[표 2. 수행적 리서치의 유형하]

2. 리서치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 예술공간 돈키호테의 경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작업 사례를 통해 수행적 리서치 또는 리서치 아트를 이해해 볼까합니다. 국내에도 리서치 아트라고 할 만한 작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일이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예술공간 돈키호테 사례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예술공간 돈키호테는 2009년에 박혜강 씨와 함께 두 사람의 고향인 순천에 내려가 차린 예술공간입니다. 서울을 벗어나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일 먼저 공간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공간의 이름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지었고 라만차의 돈키호테나 산초, 로스난테와 같은 캐릭터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돈키호테의 프로그램은 주로 돈키호테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그들이 방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가 지역연구에 집중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그 출발점은, 순천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1948년에 일어났던 여순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간단히 얘기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스터디(리서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예술작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는가의 배경을 이해해야 겠지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지역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괄적인 지역리서치가 시작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역에서 도시만들기나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이런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을 다각도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동시대 예술공간을 표방하고 시작했던 공간이 지역리서치 기반의 (예술)공간으로 색깔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연구소'에 가깝죠.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 예술에 대한 읽기나 기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희는 그동안 국내외 실험예술가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그들과 저희의 지역연구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2012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억과 증명>

그 중 하나는 2012년에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기획진행한 <기억과 증명>이라는 제목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지역 연구와 교류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스였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장소성에 대한 미학적 탐색과 비평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초대)한 작가는 이행준과 서진화, 변재규, 서영란과 노은실 총 5명입니다.

이행준 작가는 순천 지역에서 영화와 필름과 관련된 공간과 장소와 관련 인물을 리서치하고 이것을 실험적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극장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과거 극장을 운영했던 분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극장 간판그림을 그리셨던 분들도 찾아 인터뷰를 했어요. 기억으로만 있었던 극장들이 이야기로 하나 둘 되살아나고, 그것이 하나의 매핑으로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천시내에서 오랫동안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을 방문해 사진관의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는지, 사진촬영이나 현상과 인화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리서치는 작가와 돈키호테가 함께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리서치 과정을 함께 하면서



[자료 1. 레지던스_이행준의 리서치 작업]



[자료 2. 레지던스_이행준의 리서치 작업]

얻은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행준의 또 하나의 작업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필름을 순천만 갯벌에 2개 월 가량 파묻어 두고 회수해 자연산화된 필름을 상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작가 이행준의 영화와 필름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영화 매체에 대한 기억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013년 〈시네마 무진〉이라는 기획입니다.

서영란 씨는 안무가이면서 무용수입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이미 마을굿-당산동 부군당을 리서치하고 그것을 렉처 퍼포먼스(Lecture performance)로 선보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서영란 작가는 당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던 노은실 씨와 공동리서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천을 비롯해 진주, 남원 등을 돌며 공연 이전의 공연, 다시 말해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대적 공연이 아닌 극장 이전의 전통 연희의 방식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소리하시는 분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고, 굿을 하시는 분도 인터뷰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순천에 삼설양굿을 보존하고 계시는 인간문화재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을 세 차례 찾아뵙고 인터뷰 했습니다. 주제와 관련해 지역에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자료를 얻기도 했지요. 이런 리서치를 최종적으로는 공연의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공연의 장소가 극장인



[자료 3. 레지던스_서영란, 노은실의 리서치 작업]

아니라 순천향고 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료 3]은 <자신은 불완전하게 올라 온다>는 제목의 발표공연 엽서입니다. 엽서에 사용된 사진은 두 사람이 삼살양강 기능보유자이신 박정자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 동행해 찍은 사진인데요. 평상 아래 신발들이 여러 켤레보이잖아요. 두 젊은 예술가가 나이 드신 선생님을 방안에서 인터뷰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왠지 제가 세 사람의 자리에 카메라를 들고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뭔가 세 사람이 깊은 정을 나누는 듯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사진은 이야기를 끝내고 나오면서 돌아갈 채비를 하는 모습인데, 박정자 선생님께서 마당에 핀 붉은 맨드라미를 꺾어 선물로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이런 것이 수행적 리서치, 과정으로서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변재규 작가입니다. 변재규 작가는 그 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자기의 유년시절의 기억들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 내는 작가입니다. 돈키호테 레지던스에서는 <사진측량>이라는 개념으로 순천이라고 하는 낯선 도시와 공간을 작가의 주관과 감각으로 찾아나서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측량이라는 개념과 사진 컷을 사용한 영상기법이 신선했습니다.

시네마 무진

〈시네마 무진〉은 레지던스를 통해 교류했던 이행준 작가의 극장 리서치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 편의 영화에 대한 기억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기획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영화를 촬영 했던 모습을 기억해 낸 거예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지금에 한 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먼저 그 영화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화된 파일의 형태로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영화는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영상자료원 DB 목록을 살펴보니까 78년에 찍은 그 영화가 디지털화 되어있지 않고 필름의 형태로만 아카이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필름으로만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 필름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필름보관이 온전하지 않아서 일부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행준 작가가 16mm 필름을 영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만이라도 한 번 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마을에서 이 영화를 촬영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명 배우가 우리 동네에서 영화를 촬영 했는데 그 영화가 개봉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를 찾는 과정에서 저희는 70년대 순천에서 찍은 또 하나의 영화도 찾아내게 됩니다. 74년에 찍은 〈황홀〉이라는 작품인데요, 김송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영화화 한 것입니다. 순천에서 올로케로 촬영됐기 때문에 영화가 곧 1974년도의 순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관심이 당시 순천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화보기(감상)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대사나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배경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죠. 영화의 흘러가는 배경. 저기는 어디라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죠.

제가 말했던 영화입니다.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포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1964
무진기행
1974
황홀
1978

2013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40년만의 재개봉

두 편의 순천영화를
통해 안개에 휩싸인
지역상실의 도시
무진을 산책해보자

시네마 무진 CINEMA MUJIN

70년대 순천에서 촬영된 두 편의 한국영화 발굴!!!

1974년 조만현감독 <황홀> 원작: 김승옥 <무진기행>

1978년 주윤진 감독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원작: 주요섭

2013년 7월 뜨거운 외출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고 나의 정리가 문득 외부로 정하면 무자비하게 쏟아져들어오는 소음에 비틀거릴 때가나, 밤 늦게 신당동(神堂洞) 집 앞의 포장된 골목을 자동차로 올라갈 때, 나는 물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고 잔디로 덮인 방축이 시오리 밖의 바닷가까지 뻗어 나가 있고 작은 숲이 있고 다리가 있고 골목이 있고 휴일이 많고 높은 포플러가 예뻐서 운동장을 가진 학교들이 있고 바닷가에서 주위 온 개만 자갈이 깔린 돌을 가진 시무스들이 있고 대로 만든 외삼(外山)이 방거리에 나와 있는 시골을 생각했고 그것은 무진이었다. 문득 한척이 그리울 때도 나는 무진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럴 때의 무진은 내가 관념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느 아늑한 장소일 뿐이지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 김승옥, <무진기행> (1964) 중에서



7/24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원조극원로당
오후 6시, 16mm필름

25

<황홀>
@ 상상문화발전소1839
오후 7시, VHS

26

<황홀>
@ 주영갤러리(꽃길)
오후 7시, VHS

27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주영갤러리(꽃길)
오후 7시, 16mm필름

예술공간 돈키호테의 순천-영화연구

시네마 무진
CINEMA MUJIN

1961년에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것은 한국영화의 고전으로 흑백입니다.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으려했던 영화는 78년 조문진 감독이 촬영한 칼라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가 수원인데요, 61년도에 신상옥 감독이 찍은 영화의 촬영지가 수원입니다. 이 영화를 주민들과 같이 감상하고 그 때의 수원의 모습,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한옥으로 된 큰 부자집이 있는데 지금도 견재합니다. 수원의 사랑방이 도시적인 한옥이라면 순천의 사랑방은 전통적인 한옥구조입니다.

그 다음 영화가 <황홀>입니다. 김승옥하면 소설 <무진기행>을 떠올릴 분들이 계시 겠습니다. <무진기행>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 것이고,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텐데 짧습니다. 단편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영화화 한 작품은 <안개>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김수용 감독이 68년에 만들었습니다. 남자주인공 신성일과 신인배우 윤정희가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히트를 쳤죠. 그런데 두 번째 영화가 있습니다. 리메이크 한 버전인데 74년도 <황홀>이라는 제목으로 조문진 감독이 만든 것입니다. 조문진의 영화가 순천에서 울로케이션 된 것입니다. 영화 <안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순천이 아닌 강화, 김포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영화 <황홀>은 비디오테이프로 입수하게 되었어요. 두 편의 영화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김승옥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됐고, 김승옥 선생님을 통해서 조문진 감독님과 연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해보자는 기획을 하고 그 상영회에 두 분을 포함해 마을주민, 순천 시민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총 네 번의 상영회를 가졌는데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당시 영화를 촬영한 마을의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초대해 상영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상영회에서는 <황홀>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미성년자 관람불가였던 <황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40년 지나 <시네마 무진>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김승옥 선생님도 사실은 <황홀>이라는 작품을 당시에 딱 한 번 보고 그 이후에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영화를 보시고 무척 즐거워하셨습니다. <시네마 무진>은 영화를 통해 지역의 어떤 기억, 장소성을 담고 있는 기록물로서의 영화를 다시 재조명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자료 4. 남승룡 조사, 베를린올림픽 기록영화<민족의 제전> 이 필름은 손기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마라토너 남승룡 발굴 · 조사

순천출신 인물 중에 남승룡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죠. 그 대회에서 3등을 했던 선수가 남승룡인데, 정작 이 선수의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매스컴의 관심은 손기정에 집중되었지 3등을 한 남승룡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순천 사람이 조명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시작 한 겁니다. 우선 남승룡 선생의 일대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912년도에 태어나서 2001년도까지 사셨습니다. 그 분의 활동을 당시 신문이라든지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 [자료 4]가 흥미로웠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민족의 제전>이라고 하는 기록영상물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감상할 때도 앞서 <시네마 무진>에서 영화를 다르게 보았듯이, 남승룡 선수를 찾아내고 그를 집중해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영상에 몇 모습들을 캡처한 것을 보면, 남승룡 선수가 출발 라인에서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달렸으며, 등번호가 무엇이었는지, 시상식의 모습은 어땠는지 등 영상을 하나하나 캡처해 가면서 확인하는 식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필름을 순천 시민들과 함께 보면서 남승룡 선수가 어떤 선수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스포츠(마라톤) 정신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남승룡의 일대기를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작업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일까 합니다. 리서치 예술, 아니면 리서처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사례가 있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비평되고 있는가의 지점도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3. 풀어야 할 문제

예술가의 개입과 참여의 문제

그럼 리서치 아트, 수행적 리서치 작업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던져볼까 합니다. 우선 예술가의 개입과 참여를 둘러싼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특히 공공의 영역이나 공동체에 개입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예술이나 커뮤니티아트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여러 관점이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소위 전문가를 표방하는 예술가가 어떤 (직업적) '윤리'의식이나 '태도' 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공공예술을 예술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예술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인식해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아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커뮤니티아트를 결국은 아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아트가 아닌 어떤 공동체의 어떤 창조적 활동으로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서 항상 '작가' 라고 하는 예술가의 정체성이 위협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생깁니다. 소위 이런 영역에서 작가주의를 표방하는 작업들은 그것이 하나의 예술의 영역으로서 공공이나 커뮤니티를 작가가 활용했다는, 더 나쁘게 이야기 하면 공공이나 공동체를 자신의 예술을 위해 수단화, 도구화 시켰다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 받기도 합니다. 결국은 작가가 자기 작업을 위해서 소재주의적으로 이용했다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는 공공의 영역이나 커뮤니티 영역으로 예술이 들어가게 되면, 예술작업들이 하향평준화 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예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반드시 어려워지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소통하고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예술은 쉬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압박때문인지 참여하는 작가들도 작업을 두리몽실하게 마무리 짓고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업의 완성도라는 것은 항상 그 결과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의 개념이나 과정에서도 완성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공공미술의 작품이나 커뮤니티아트 작업이 그 평가에 있어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술가의 작업을 누가 평가하느냐의 질문도 생깁니다. 공적재원이나 공공목적의 프로젝트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작업에 참여했던 공동체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평가의 수준을 보면 비평보다는 주례사비평이나 단순 인상비평이나 보고서용 수준입니다. 참여했던 예술가는 '작가' 인지 '업자' 인지, 아니면 미술사에서 '작자미상' 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작가미상의 작품 가운데 훌륭한 작품들도 많습니다만, 내가 어떤 공동체,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주문에 의해 작업을 했다고 했을 때 나의 크레딧, 저작권을 포기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꼭 굳이 '내 작업' 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작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가를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간주하자면, 직업윤리에서도 어긋나는 것이죠.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작업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작가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그 지점에서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정체성과 태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수한 개인의 작업영역이 아닌 곳,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나 사회적이고 공동체 이슈 속에서, 그 속으로 내가 개입해 들어가서 뭔가 하는 건데, 작가는 최소한 이것을 왜 하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성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의 공공미술이나 커뮤니티아트가 두리몽실해졌고 날카롭지 않고, 그냥 무난한

것이 되어 버리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주의를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작가주의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재맥락화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예술이든 리서치든 프로세스를 끌고 가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예술가는 책임주체로서 어떤 윤리와 태도, 책임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공공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커뮤니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술의 영역에서 검토의 대상, 비평의 대상으로써 가치와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신비화되고 천재화된 작가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권위, 전문가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공동체나 공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를 봤을 때, 개입의 예술, 퍼블릭아트, 커뮤니티아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리서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면 뭔가 그 만큼의 퀄리티나 내용, 어떤 네러티브를 가진 작업들이 나와 줘야 되고 이런 작업에 대해서 비평이 가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작가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공의 미술이나 커뮤니티 영역이 '예술가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공공미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예술가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요람의 장'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맥락의 작가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레지던스_변재규<사진측량>]



김경만 2000년부터 촬영과 함께 '아카이브 푸티지'를 사용해 영화를 만들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각하의 만수무강> (2002), <미국의 바람과 불> (2011), <뽕 소리가 울리면> (2014), <지나가는 사람들> (2014)이 있다.
zadoz@hanmail.net

라운드 테이블 04

김 경 만 (영화감독)

아카이브 푸티지 영화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구요. 사실 리서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기 위해 리서치를 불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네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만드는 영화는 다른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옛날 필름들을 자저다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자료화면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내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영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 텐데요, '아카이브 푸티지(archive footage)'라고 불리는 이 기록 필름에서 보여지는 것들, 말하자면 필름에 담긴 디테일이 오히려 사람들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화작업에 있어서 저의 창작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어떤 순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저의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카이브 푸티지들은 편집을 통해서 쇼트나 시퀀스 사이의 관계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그 아카이브 푸티지 자체의 의미나 정서 등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제 작업 가운데 아카이브 푸티지를 이용하지 않은 작업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작업은 아카이브 푸티지가 중심이 된 작업입니다.

감상하실 영화는 <지나가는 사람들>⁰¹이라는 제목의, 가장 최근에 제작한 장편 영화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 하구요. 이 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부분은 제가 촬영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온전하게 아카이브 푸티지만으로 편집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15분 분량의 한 챕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카이브 푸티지를 가지고 편집을 한 영화가 어떤 것인지, 한 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감상 : <지나가는 사람들> 중 I. 잃어버린 얼굴들 중 일부 발췌)

1. 아카이브 푸티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잘 보셨나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 심심하니까 영화 장면을 켜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에서는 주로 자막이나 내레이션과 같은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전달하려는 것도 영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영화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카이브 푸티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굉장히 특수한 사례에 속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제작 주체로써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 꾸준히 기록필름을 생산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미군정 시기를 거쳐, 한국 정부도 94년도까지 기록필름을 제작했습니다. 더불어 중간에 주한미공보부도 한국에 대한 필름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귀중한 보고 중의 하나가 이 ‘기록필름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1 김경만 감독 2014년 작, 다큐멘터리, 86분

이 작품은 크게 네 개의 ‘지나가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0. 해고자에서 소평물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공기

I. 잃어버린 얼굴들 1945~1948 : 암흑한 시절, 다가올 전쟁을 알지 못한 채 지금과 다른 얼굴을 지녔던 사람들과 거리

II. 피난민과 포로 1950~1953 : 전쟁 아래에 놓인 얼굴들

III. 동원과 노동 1953~1966 : 전쟁으로 인해 가능해진 동원체제와 노동의 고단함, 그리고 인간의 마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여수, 순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돈키호테의 관심사면에서도. 그런데 한국 정부가 아마도 최초로 제작한 것일수도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목록을 보면 1948년도에 제작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국방부에서 제작을 한 건데, 아마도 이것이 한국에서 국가가 최초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어요. 아마도 한국전쟁 전후로 유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영화인지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국방부가 제작을 했고, 제목을 봐서는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분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겠죠.

이런 아카이브 푸티지들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하면, 과거 국립영상제작소라 불렸던, 지금은 KTV라고 불리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제작을 했어요. 제작된 필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신 영화에 사용된 필름들은 전부 미군이 기록한 촬영필름들을 편집한 것들이구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한국 정부가 자체 제작한 <대한 뉴스>로 알려져 있는 뉴스릴들이 있고, <문화 영화>⁰²라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과 극영화들, 오늘날로 따지면 공익광고 같은 형식의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런 짧은 홍보물은 쉐레라-트레일러인듯합니다. 로 부르기도 했더군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여드린 챕터는 오로지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이 촬영했던 촬영 릴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지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40년대 후반이라는

02 문화 영화(culture film, 文化映畵)는 주로 교육 내지는 사회 풍습 등 문화적 내용을 사실 묘사 위주로 만든 영화의 총칭. 일본에서 독일의 쿨투어 필름(kultur film)을 직역한 것에서 유래했다. 과거에는 기록 영화나 실사 영화와 동일한 개념이었으나 기록 영화가 세분화되면서 기록 보존의 의미가 퇴색하고 거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다큐멘터리라는 용어와 혼동되기도 하나 문화 영화는 논픽션을 특징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포함하여 교육 영화, 계몽 영화, 뉴스 영화, 단편 영화, 홍보 영화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계몽 영화 상영 전에 했던 단편 계몽 영화를 지칭하여 문화 영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처 : 김광철, 『영화사전』, 2004, MEDIA2,0)



[자료 1. <지나가는 사람들> 캡처이미지]

역사적인 시공간이 매우 특수하고 중요한 시공간인데요,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모여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겠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미군정이 시작됐는데, 경찰력이나 군사력으로 정치적 자유를 굉장히 탄압했던 시절이었고, 식량조차 부족해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를 말씀 드리면,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새로이 건설 될 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80%가 넘었어요.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10%를 조금 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지금의 한국 사람들로서는 상상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지금의 남한 사람들이야 당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모두 북한의 꼭두각시 정도로 매도하겠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릅니다. 40년대 후반의 분위기는 앞으로의 한국이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조차 망각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긴 하지만요.

[자료1]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를 촬영한 릴 들이예요. 그 때 좌우익은 따로따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장면은 좌익에서 3.1절 기념집회를 열었던 것이고, 그 집회를 경찰이 이런 식으로 검거를 하고 좌익을 숙아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엄혹한 분위기가 읽혀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력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시절이었던 것이죠.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자료 2. <지나가는 사람들> 캡처이미지]



[자료 3. <지나가는 사람들> 캡처이미지]

2. 리서치와 영화의 관계와 차이

이런 필름들에서, 리서치를 하는 사람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주목하는 관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서치를 하는 사람은, 보다 정보라고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언어로 환원될 수 있는 정보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언제 찍힌 것인지, 어떤 장소에 누가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반면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디테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 2] 여기 등장해 있는 47년도의 조선 사람들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태도나, 아니면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언어로 쉽게 표현되기 어렵거든요. 물론 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어로 환원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은 필름에 살아남아서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는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와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47년 3.1절 당시의 남산공원이네요. 일제가 지은 신사(神社)자리였죠. 여기 보면, 이것들이 신사의 기둥들인데, 쪽 늘어서 있고 굉장히 긴 계단이거든요. 여기에 서 있는 두 아주머니, 두 분이 생기있는 얼굴로 자신들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가리키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것좀 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료 4. <지나가는 사람들> 캡처이미지]

영화 속 이 분의 표정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표정들이나 카메라를 가리키는 손짓 같은 장면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는 “모든 권리는 인민에게!” 이런 구호를 보더라도 지금으로선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집회에 등장하는 구호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당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좀 넘어가 봅시다. 제가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3] 전차가 다니고 있는 남대문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사가 영상의 배경에서 있어요. 정확하게 45년도의 쇼트인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45년과 48년 사이의 풍경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추측해서 넣었습니다. 영상 앞에 있는 사람은 음식 배달을 하고 있죠. 음식을 담은 쟁반을 어깨에 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원래 이 영화에서 주목했던 ‘디테일’이라고 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나 시선 같은 것들이었어요.

[자료 4] 지금과는 다른 조선 사람의 얼굴과 표정들인 것이죠. 이런 디테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것들이기도 하겠지만 분명 그것 이상의 풍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격적인 근대화 이전의 조선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놀라움과 신선함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조선 사람들은 원래 잘 웃는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니까요. 오늘날 한국사람의 억눌린 표정과나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삶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표정이라든지, 배경에 보이는, 기와집이 즐비한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말과 글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디테일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영화의 본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영화는 아카이브 푸티지를 출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통해서 나의 맥락으로 가져오는 작업인 셈이죠.



[자료 5. <지나가는 사람들> 캡처이미지]



[자료 6. <지나가는 사람들> 캡처이미지]

방법론에 대해 계속 말해보자면, 일렉트로닉 음악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음악에서 샘플링을 생각해봅시다. 마음에 드는 음원과 사운드 등을 채집해서 배열을 하고 편집을 하고 가공을 해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음악이 단순한 배열은 아닐 거예요. 단순한 배열도 아니고, 짜깁기도 아닌, '관계성'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A 다음에는 B가 등장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각각의 쇼트나 씬이나 시퀀스 같은 것들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건축처럼,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리서치라는 것이 영화 작업에서 어떤 바탕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영화가 될 수는 없어요. 옛날 필름을 모아놓고 배열하는 것만으로 영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열하는 것, 주의 깊은 배열이 전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화가 되려면 그것과 다른 뭔가가 필요해요. 그것을 뛰어 넘어 구체적인 하나의 영화적 질서를, 작가의 세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이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3. 국내에서의 아카이브 푸티지 수집과 관련한 문제들

영화 제작에 있어서 리서처, 연구자로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더 그렇죠.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너무나 많은 필름이 만들어

졌는데,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에서 기억의 주체는 미군인데, 미군이 기록하고 있는 시선의 문제도 상당히 생각해 볼만한 것이죠. [자료 5] 필름에 등장한 조선사람들은 끊임없이 카메라를 응시해요. 물론 신기했기 때문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로 어떤 장면에서 볼 수 있는 태도에서 일종의 당당함도 느끼게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시선과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사회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은 꽤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박정희 코스프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박정희 시대를 통과 하면서, 배고픈 시절에서 벗어나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한국사회가 스스로를 규정짓고 있는데 숫자와 말로 환원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면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실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말과 글로 환원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버린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사람의 잃어버린 어떤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쇼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읽히는 것이죠. 짧은 쇼트 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늘려서 길게 넣은 것인데요. [자료 6] 보시면 왼편과 오른편에 아이들이 신기한 듯 구경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 프레임에 끼들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것은 기념품 가게입니다. 금, 은, 미술품이라고 적혀 있고, antiques, souvenir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fine art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 쇼트 자체가 이 챍터 전부를 대표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중의적이고 상징적이죠. 말하자면 여기 보여지는 사람들은 모두 지나가버린 어떤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료 7. <지나가는 사람들>]

[자료 7] 이곳 역시 미군이 촬영한 40년대 후반 어떤 시점의 거리인데요. 아마도 광화문대로나 종로 쪽의 변화한 대로일 것 같아요. 길 너비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서는 아마도 중심가겠죠, 재미있게도 군인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45년부터 48년까지 당시 모습을 이렇게 캡처로 구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당시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다가올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시점에서의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죠. 전쟁은 서울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었죠.

서울이 무참히 파괴되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미 공군의 용산역 폭격이라고 해요. 철도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폭격을 하게 되는데요. 정밀폭격이 아니어서 주변 일대를 다 폐허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서울은 옛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후 우리는 서울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모르채 완전히 기억에서 제거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그 이후 있었던 개발독재 과정에서 희미했던 모습조차 제거해 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의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복원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옛날 모습들은 엔틱(골동품)의 모습이 되어 버렸죠. 한국 사람들의 과거모습은 대한문 앞에서의 수문장 교대식처럼 대체로 기념품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 또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Community archives and identities project

- 평가
 - documenting histories of the excluded, ignored and misrepresented towards diverse histories
 - an understanding of marginalised groups' histories and strengthening inter-generational ties
 - a radical and critical intervention into existing fragmentary, incomplete and biased narratives
 - impact on public, historical understanding and academic narratives
 - a form of political activity or of social movement with a vision of full equality
 - impressive early successes
- 참여자의 열정과 헌신, 정치적 지향, 관련 공동체의 지원
- 개인 부담 가중, funding 문제,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부담
- 링크 및 결론
 - Not 'supporting identity' but 'supporting the exploration of identity'
 - Not supports specific projects but support for organisation development
 - Support for high-quality outcomes as well as impacts
 - Support for digital preservation activities
 - A greater diversity of funders and funding

최재희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논문 「영국 노동당 창당기 사회주의 진영의 민주주의관」(2001)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기록원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지방 노동아카이브에 조예가 깊다. hardie@ewha.ac.kr

라운드 테이블 05

최재희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기록관리의 흐름과 민주적 비전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우선은 제가 발표를 잘 못해서 부담스러웠고, 두 번째는 저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문화예술 쪽에 정말 맹탕입니다. 그래서 좀 주저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제가 종교를 잘 몰라요. 원래 제가 아는 종교는 샤머니즘 밖에 없어서, 원래 영국사를 전공했습니다. 서양사를 했는데 종교를 몰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다른 발표하신 분들은 전부 그런 것 같아요. 활동하시고 생산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게으르기도 해서 생산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대로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아카이브archive, 아카이빙archiving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궁금할 정도로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현대 기록관리가 실질적으로 200년~300년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100년도 안되니까요. 기록관리의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흐름 중에서 요즘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요즘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문화 아카이브, 전문 아카이브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아키비스트archivist라기 보다는 액티비스트activist라고 하는 형태로, '액티비즘 아키비스트'

이런 형태로 바뀌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돈 같아요. 아카이브는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오픈소스^{open source},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모색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대 기록관리의 흐름

간단하게, 데리다^{Jacques Derrida(1930-2004, 철학자)}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카이브는 ‘권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제가 역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영웅들의 역사, 지배자들의 역사만 있느냐고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 피지배자, 피지배층의 기록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하는 사람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형태의 기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제한되고,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인권선언^(1789년)의 15조⁰¹에 나오듯이 일반 공무원들에게 자기 기록, 행정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하나의 ‘시민의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편화 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폴리를 필두로 전문 아키비스트 양성 기관⁰²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영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서부에서 설립되고, 이후 중앙에서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이 세워집니다.⁰³ 이에 따라 내셔널아카이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01 프랑스인권선언(1789)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02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 Scuola del Grande Archivio (나폴리, 1811), Archivalische Unterrichtsinstitut (뮌헨, 1821), Ecole des Chartes (파리, 1821) (최재희 발표자료)

03 나라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년도: 네덜란드(1802), 영국(1838), 스페인(1866), 캐나다(1872), 미국(1934), 호주(1961), 한국(1969), 일본(1971) 등이다. (최재희 발표자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9년에 <정부기록보존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무처 산하에 기관이 설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 아카이브의 영역이 먼저 발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공 아카이브의 대표적인 곳으로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중앙기록물관리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이 한 200년 되었고, 지방기록물관리 기관 경우에는 한 100년 쯤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공공 아카이브 개관

중앙기록물관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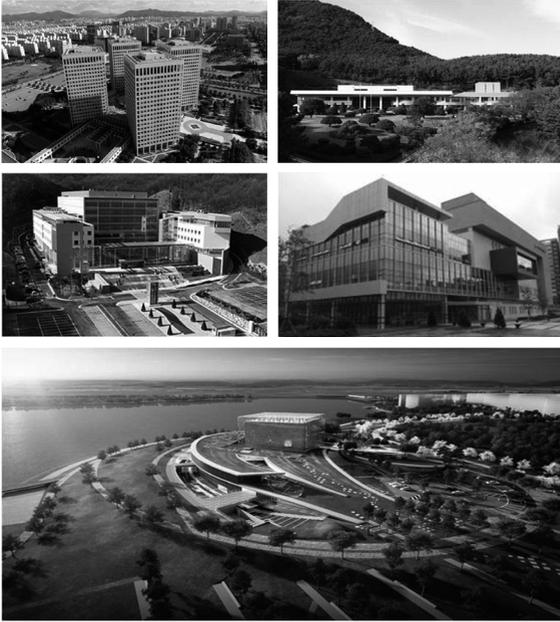
- The National Archives(TNA): 직원 수 569명(2005년)
Public Records Act 제정으로 Public Records Office 설립(1838)
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과 통합 TNA로 개칭(2003)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와 통합(2006)
- The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
- Public Record Office of Northern Ireland

지방기록관리 기관

- 런던(34개) : Great London Authority(1), London Borough Council(32), City of London(1)
- 도시(82개) :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36), Unitary Council(46)
- 농촌(272개) : County Council(34), District Council(238)

* Association of Chief Archivists of Local Government

[자료 1, 최재희 정리자료_영국공공아카이브 개관]



[자료 2. 한국의 아카이브 기관]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료 2] 위쪽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인 <국가기록원> 본원입니다. 본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의 2동을 6층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기관이 내셔널아카이브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검문검색부터 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들어가서 활용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부산의 역사기록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기록원>입니다. 이곳은 박정희 시대에 북한이 폭격을 할지 모른다고 해서 정부 기록들을 부산 배치하기 위해서 부산에 역사기록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존 서고라고 할 수 있는 성남서고입니다. <성남나라기록관>입니다. <서울기록관>이라고 최근에 이름을 바꿨는데,

이건 뭐 판교 쪽에 사람들 보기 불편하게 마찬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같아요. 산 깊은 곳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으니까. 정부청사 안에 <대전기록관>이라고 해서 중부 지역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기록관이 만들어 졌고,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아카이브는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국제기록보존소가 있고 뭐 법원도 있고 현재, 중앙선관위 이렇게 헌법 기관들이 운영하는 아카이브가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아카이브라고 부를 수 있는 기관은 다섯 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0,70년대의 변화

역사가 빠르긴 하지만 영국과 비교를 하면, 2000년대에 영국과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60~70년대까지는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기록을 했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60~70년대 들어 시대상이 바뀌면서 아카이브 영역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뉴 레프트(New left(신좌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노동사, 여성사, 민중사,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학문이 확장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역사 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카이브 영역에서는 독일의 한스 보름스(Hans Booms(1924~2007)같은 사람이 보니까 ‘모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부유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죠. 하워드 진(Howard Zinn(1922~2010)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배자들, 부유한 사람들, 군인들 이런 기록밖에 있지 않다고요. ‘기록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반영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록만 남아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하워드 진이 있고

유럽에서는 한스 붐스가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었습니다.⁰⁴

이때부터 아키비스트의, ‘정부 기록 말고, 사회를 반영하는 기록의 형태로 우리가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시작되죠.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생산적인 기록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레코드Recor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영구히 보존되는,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기록은 기껏해야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남아 있는 것은 극소수 일부분이에요. 이 극소수의 기록이란 것이 기존에는 전부 다가 정부 기록이고 지배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남아있어야 되는 기록은 우리의 기록이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모든 기록을 우리가 다 보존할 수는 없고 보존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기록 관리란 기록을 잘 없애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기록 관리란 단지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도, 예를 들자면 왜 남승룡인가? 손기정 보다는, 순천 사람들 중에서도 왜 남승룡일까? 라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에는 드는 거죠. 대구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로, 왜 그것일까?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것일까? 그 지역을 반영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60~7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04 1960, 70년대의 변화 (최재희, 발표자료)

■ Hans Booms

- archives should reflect more globally the society (사회의표상)
- archives ar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often even by the people. (기록의민주화)
- archivists require a useful analysis of records-creating functions (기능분석)

■ Howard Zinn(1970)

- the archival record is biased towards the rich and powerful elements in our society
- the poor and the impotent remain in archival obscurity
- to compile a whole new world of documentary material about the lives, desires and needs of ordinary people

#1990년대 이후의 변화

90년대 이후에는, 특히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에, 한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대처리즘, 레이건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화 되면서 지역도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sat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소외가 증가되고 정체성이 상실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접촉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호이해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할 만큼 충돌이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화 사회' 라고 하는 흐름인데, 농경 사회에서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사회를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생산에서 자유로웠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한 사람이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산업사회 들어오면 제너럴리스트는 딱 밥 굶어 죽기 좋고, 전문가(specialist)들-문이면 문만 파는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되는, 전문가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다양하게 알면서도 또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generalized specialist)이 앞으로 지식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 네이버에 물어보면 대충 다 알려주죠. 그 때문에 펴퍼짐하면서 다양하게 지식을 갖추면서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경우 정보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고 스스로 생산자가 되기도 합니다.⁰⁵

그 다음에 서구에서 가장 유명한 직업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데이터 매셔(data masher)'가 등장합니다. 감자를 으개듯이 데이터를 으개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나 이것을 가지고 경제에 활용을 하든,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쓰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05 사용자 창작 콘텐츠 UGC(User Generated Contents), UCC(User Created Contents)

매서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에 유럽 의회에서는, 모든 공공영역의 정보는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 가는 것이지만, re-use해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 돌려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규제를 없애라' 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⁰⁶

아카이브의 다변화

아카이브의 영역이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양하게 변화고 있습니다. 공공 기록 중심에서 사회를 반영하자는 운동이 있다가, 지금은 전문 아카이브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 아카이브란 기업 아카이브, 정당 아카이브, 대학 아카이브, 문화 아카이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별로 없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던 공동체 아카이브입니다. 자기 지역의 아카이브를 스스로 만들어 가자는 그런 운동이 있게 되는데, 영국에 한 2000개 정도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3]은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지금 491개 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아카이브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추정하지 못합니다. 문화 아카이브는 캐나다에 특히 많죠.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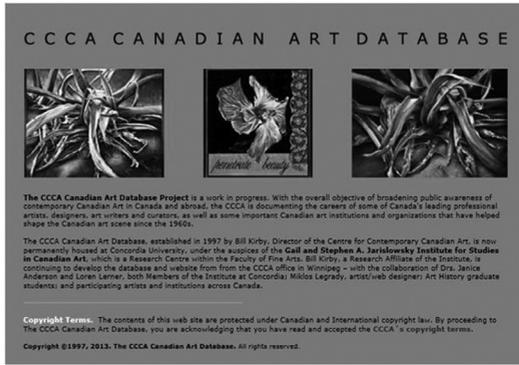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

- WiseArchive : 50세이상의노동경험을수집관리하는온라인아카이브
- London LGBT Archive : rukus!
- Connecting Histories : 버밍엄겨주 흑인의 역사를 구축한 버밍엄시, 버밍엄대학, 워릭대학의 공동프로젝트
- DeshVidesh : Home and Away-A history of the Asian Community 힌두여성협회주도로 Tyne and Wear겨주 아시아인의 이주이유와 취업과정 등 구술채록

06 EC Directive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3)



[자료 3. 공동체 아카이브 사이트]



[자료 4. 문화 아카이브 The Ontario Society of Artists Archives]

- ArmyChildren Archive : 군인가족 및 자녀들의 기록을 수집보존
- Nurses Voices : 1929년 이래 St George's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기억을 구술로 기록화
- GeovorTin Mine : 콘월의 주석광산지역의 교육, 종교, 육아, 가정생활 변화관련 구술 아카이브
- TrewinsMemory Store : John Lewis 백화점 퇴직 직원들의 활동, 가정생활, 지역에 대한 기록
- Apples and Pears Past : Hereford의 사과즙(cider)과 배술(Perry) 농장과 공장관련 구술기록
- Time Tracks Community Archive : Shildon의 철도역사 및 지역역사 기록

Wise Archive는 50세 이상의 노동 경험을 수집·관리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입니다. 50세 이상이라서 좀 찻찻하기 한데, 5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노인 아카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ondon LGBT Archive는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기록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Connecting Histories입니다. 버밍엄 대학을 중심으로 흑인들의 역사를 기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인들, 군인가족들, 간호사의 기억들, 직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민족이나 언어, 뿌리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들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할과 한계

다음으로는 이런 아카이브를 평가 한 것입니다.

The Community archives and identities project

■ 평가

- documenting histories of the excluded, ignored and misrepresented towards diverse histories
- an understanding of marginalised group's histories and strengthening inter-generational ties
- a radical and critical intervention into existing fragmentary, incomplete and biased narratives
- impact on public historical understanding and academic narratives
- a form of political activity or of social movement with a vision of full equality
- impressive early successes

- * 참여자의 열정과 헌신, 정치적 지향, 관련 공동체의 지원
- * 개인부담가중, funding 문제,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부담

■ 권고 및 결론

- Not 'supporting identity' but 'supporting the exploration of identity'
- Not supports specific projects but support for organisation development
- Support for high-quality outcomes as well as impacts
- Support for digital preservation activities
- A greater diversity of funders and funding

대체적으로 그 동안 무시되어 왔고 주변화 되었던 이러한 역사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어떤 차이점, 문제를 가지고 문화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단지 활동을 들여다보니 돈 문제가 크고요, 보통 한 두 명의 자원봉사자 또는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혼자 고생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지나면 지쳐서 흐지부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전자시대니까 디지털화 digitizing 되는데, 전자화 시키려면 스토리지 storage도, 양도 많이 차지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기록 관리와 보존 시스템

제가 앞선 발표를 들으면서 아카이브하고 기록하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중한 기록들을 많이 만들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계신데, 이게 기록일까? 아카이브일까? 그 모든 것을 다 보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 오래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1년간 생산하는 기록물이 1억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부 3.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기록을 사이트(open.go.kr)에 다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 질식, 익사 해버리는 거죠. 기록이라는 것은 오히려 정보는 잘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썩썩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기록 관리인데, 그냥 통째로 막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면 <정부 3.0>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고 끝날 거예요. 그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기록을 다 모아서 계속 축적하고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형태가 되든지 정리를 하고 손을 대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판단이 들어가고 가치가 들어가고, 결국은 권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혼자는 괜찮아요. 혼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게 어떤 단체가 된다고 하면 또는 직장이 된다고 하면, 또는 공공기관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권력다툼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5. 기록관리 업무단계]



[자료 5]를 보시면 기록물 관리의 어떤 프로세스는 막 생산 되고 있는 처리과가 있습니다. 처리과라고 하는 것은 생산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관을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산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타자 치시는 것도 생산하시는 것이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꺼내 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기록 관리라고 하는 단계에서 처리과에 계속 남아 있지만, 활용 빈도가 떨어지면 기록과에 가서 보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 지나면 정말로 다 폐기하고, 활용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폐기하고, 역사적으로 또는 연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아카이브에 넘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료 6. 업무관리시스템]



[자료 7. 기록관리시스템]

[자료 6] 업무관리시스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복잡합니다. 처리과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을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의 시스템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정보를 생산을 하실 거죠? 생산하실 때 보면, 앞에 메뉴를 나름대로 설정해서 기능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이 되면 아까 말씀 드렸던 기록과의 단계에서 기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록 관리의 영역을 보시면 기록물인수, 기록물보존, 기록물평가, 기록물이관, 기준관리, 그 다음에 감사추적, 검색활용, 공개관리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자료 7] 그 다음에 아카이빙 시스템, 기록보존시스템을 보시면, 기록관리, RMS, AMS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집, 정리, 기술記述는 디스크립션description입니다. 앞서 (김경만 감독)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이 몇 년도에 누가 만든 것이고,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 감독님이 피력하시는 인물들의 웃는 얼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RMS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죠.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MS는 우리가 레코드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AMS는 아카이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공동체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RMS 단계와 AMS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RMS와 AMS가 같은 시스템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AMS 기능인거죠.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것,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 AMS 기능인데,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4.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평의 확대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이 Omeka, AtoM와 Archivematica인데요.⁰⁷

07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최재희 발표자료)

■ Omeka

- George Mason University의 Roy Rosenzweig Center for History and New Media 개발(2008)
- 웹 콘텐츠 및 컬렉션 관리, 디지털 기록보존 시스템 기능 소프트웨어
- lightweight solution (설치 용이, 비용 저렴, 기술적 유연성, 확장성, 사용자 친화적, 온라인 전시 등 서비스에 특장점)
- 예) 컬렉션 구성의 단순화 (collection-item)

■ AtoM (Access to Memory)

- ICA에서 개발, 보급(2008-2010)
- 등록, 분류, 기술, 목록관리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기능 제공, 기록의 계층적 조직화에 유용
- 등록기능, 기술기능,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관리기능, 관리자기능으로 구성
(등록기능 구성: Title and statement of responsibility area, Dates of creation area, Physical description area, Archival description area, Access points)

■ Archivematica

-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장기적 접근 유지 솔루션
- 장기보존에 유용

이 세 가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되는 것이 Omeka입니다. Omeka는 설치가 용이하고 공짜입니다. 특히 전시기능이 편리합니다. 사진, 영상 아카이브의 경우 Omeka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Omeka는 컬렉션 구성의 운영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tOm은 기록 관리계의 세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ICA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에 대한 각종 기능들이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Omeka는 등록, 분류, 편집, 이런 기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 되어 있어요. 컬렉션, 아이템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있고 분류도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기 한데 기록 관리의 전반적인 기능이 부족한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chivematica는 디지털 형태의 전자기록을 장기 보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 활용 하신다면, 여러모로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전부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8. Omeka 사이트 사례]



[자료 8] Omeka로 구현 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 현황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들,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것들, 국내 사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컬리티와 관련해서 문화 로컬리티와 같은 아카이브에 있어서 어떤 점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대 팀이 진행하는 있는데요. 연구를 지원을 받아 로컬리티와 관련된 자료들을 기록하고 로컬리티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그 팀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5. 도전challenge과 기회opportunity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 관리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이론가 중의 테리 쿡 Terry Cook(캐나다 아키비스트, 1947~2014)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책장으로 돌아 가셨는데요. 테리 쿡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배제하고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주변화 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아키비스트 전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쿡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100년 전에는 아키비스트라고 하면 행정가들이 넘겨주는 기록물을 잘 보존하는 키퍼였다는 거죠. 양피지 같은 거 잘 받아가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그런 키퍼였어요. 그러다가 미국 중심으로 40~50년대가 되면 기록의 양적 팽창을 거치면서 기록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다 폐기해버리고, 그 중에서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이 뭔가를 골라내는, 역사 연구자이기도 하고 아키비스트인 이런 사람들이 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자시대, 90년대 들어와서는 기록 관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용어를 쓰면서 자기들끼리 업무분석 하고 기능에 기반하는, 평가를 하는 자기들만 놓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지향하는 아키비스트는 '참여형 아키비스트' 입니다.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아키비스트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랫동안 침묵되어 왔던, 침묵을 강요받아 왔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굴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 자기 것을 발굴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아키비스트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전문가인 양 하는 그런 아키비스트들은 제발 좀 자기의 권한을 떼어 놓고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스스로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최대한 반영할 것인가? 우리의 어떤 현재를 어떻게 미래로 옮겨 적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각자 좀 고민해 보는 것이죠.⁰⁸

'We are what we keep, we keep what we are' (T. Cook, 2011) "We are what we don't keep, what we exclude, marginalize, ignore, destroy."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테리 쿡이)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 형태의 전망이 기록 관리계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8 민주주의 시대의 아키비스트 전망? (최재희 발표자료)

- 'democratizing archives' and 'archiving democracy,' in through participatory partnerships, with our fellow citizens, determining collaboratively and collectively with them of what society's enduring archival memories should consist.

- There will be no trust unless we make efforts to disarm the most powerful, those who believe themselves the exclusive owners of the truth.

- Our century-long assertion of exclusive power over the archive, its shaping and preservation, might actually undermine the very 'trust' that we claim to invest in our guardianship of the archive?

- If we can grasp this vision, if we can break the 'cancer' of silence, if we can 'disarm' ourselves of exclusive power and learn to share it collaboratively, then what we keep in future will be radically different.

저는 국가기록원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지역과 관련 돼 한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MB가 서울 시장 할 때, 청계천 사업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 때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청계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하루 24시간 풀가동해서 영상으로 다 찍고 회의하는 모습, 청계천 밑에 지하에 내려가 조사하는 모습까지 다 찍었습니다. 이것을 편집해서 외국에 보내 환경상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기록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시청각 기록물, 영상 기록물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종이 기록으로 백날 이야기 해봤자 알 수가 없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 주는데, 결국 앵글, 시각이 아니냐, 어떤 각도도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각도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갑자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더가 내려 왔는데, 4대강 사업을 영상으로 찍으래요. 청계천은 이해가 되는데 4대강은 전국을 다 헤치는 것인데, 이걸 영상으로 찍어 연구 보존하라고 하는 오더가 내려 왔습니다. 전부터 웃었지요. 하라고 하니까 진짜 해야 됐어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떤 것을 보존 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4대강 사업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찍을 것이냐?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더라구요. 과연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시위하고 농성하고 또는 잘못된 것, 잘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기록관리 하는 사람들이 고민만 쭉 하다가 딴 생각이 있다는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던 거였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별 고민 없이 끝내 버렸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 첫사랑이 되었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록관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우리가 생산하는지,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어떤 것을 남기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니까 민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리소스, 이야기가 반영되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아까 다문화 아카이브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금 다문화 아카이브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면 다문화 아카이브를 계속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과 같은 사회적 마이너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실제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한테는 치유가 된다는 것이예요. 이게 복지의 시작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볼 때, 사회는 혼란스럽고 변동이 심하고 출렁출렁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되고 안전하고 이르면 답답해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가 조금 유지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처럼 양극화되고 발가벗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식도 못 낳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질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자식까지 살아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안정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치유와 어떤 복지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족을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자유토론)

[편집자 주 : 개별 발표 직후에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 내용을 함께 정리했음을 밝힙니다.]



박혜강 : 시간 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발표가 길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해져 버렸네요. 아무튼 오늘 발표를 해주신 게스트 분들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 지점들이 있어서 큰 네러티브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거기 안에 저희가 생각했던 질문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질문과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 바랍니다.

먼저, 최재희 선생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다문화 아카이브에서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주는 것이 구술기록만 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재희 : 다문화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동화정책이거든요. 한국사회와 한국문화를 빨리 알고 한국어 빨리 배워라! 이런 거잖아요. 동화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너 어디 나왔냐? 집이 어디냐? 차 어떠냐? 이런 계급사회잖아요. 그런데 ‘동화정책을 편다’ 라는 것은 밑으로 기어 들어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측면에서는 자료가 빈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해강 : 그들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보는지, 그런 시선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재희 : 네,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다면 다문화 분야가 돈이 되니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리서치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기록은 안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 연구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쓰고 버리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아카이빙이 돼서 정치적으로 반영을 하든 아니면 연구에 활용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카이브의 역할이거든요.

참가자 : 권상구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래된 건물을 재발견해서 현수막으로 가려 놓고 건물을 다시 바꾸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대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 고쳐서 정취를 보존하고 추억이 있는 공간을 계속 이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혹시 그런 활동들이 관광자원화 되어,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라고, 어떤 지역이 관광화 되면서 원래 그 지역에서 벌어지던 상호작용이 아닌, 새로운 상업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미묘한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상구 : 그 ‘연구’ 라고 하는 행위가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연구의 대상인 주민들의 속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격차가 ‘자본화’ 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을 연구 할 경우에는, 연구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해 보이구요. 젊은 친구들이 북성로라고 하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개척한 땅에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몇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였어요. 대구는 첫 번째로 식민지화 된 곳이거든요.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자본화시킨 것을 저는 식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처음으로 시작 된 곳이기도 합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자체가 부동산 투기, 자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개발 사업을 형성해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토지를 가져가는 방식, 이게 보통의 식민지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한국전쟁 이후에도 일본으로부터 정부를 넘겨받은 한국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의 식민지적 행태로 북성로를 개발했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 번째로 그 공간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이 식민지적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식민지적 고리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의 첫 번째 원칙은 '과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과거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지 않고, 원래 북성로에 있었던 고유의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토대한다' 라는 원칙을 가졌었구요.

두 번째는 '왜 건축이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북성로라는 공간을 '면적' 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건축물' 로 보았거든요. 건축 자산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공간을 사용하기 보다는 장소를 사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로서의 태도 혹은 도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오랜 과정 끝에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나를 위한 도시가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밀고 갔던 것이고, 밀고 가다 보니까 ‘아카이브’ 라는 키워드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과 상당히 낯선 건축이나 도시, 조경 이런 전문가들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도시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맞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왔던 어떤 접근법들은 저희 스스로 아직은 실험 중인데요. 저희가 한 5년 정도 해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앞에서 조주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을 왜 공공이 하느냐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 첫 번째 고리부터 시민들이 건물을 사서 소유를 하고, 그 건물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가는 프레임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 :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구요. 티팟 조주연 대표님의 발표를 보면서, (인하대) 학생들이 (리서치 과제를)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백운면 사례에서) 그 아들이랑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정육점과 중기계 가게 간판을 바꾸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디자인이 기획 의도와 원하는 모든 게 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체적이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여 주신 것은 어느 정도 주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인데 자본이 없는 디자인이 됐으니,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대체하는 자본이 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리를 어떻게 찾으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주연 :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자본’ 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을 정말 벗어나서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사는 데 실제적으로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분통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굉장한 압박들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 내에서 경제생활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이 내제해 있는데, 표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저런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갈등이 드러났던 거죠. 지금은 아버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갈등이, 저희가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된 지점이 보인다는 정도로 대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 그 가족이 간판설치에 비용을 부담한 것인가요?

조주연 : 그건 아닙니다. 백운면 간판프로젝트는 아주 초반에 했던 프로젝트라서 전주대학교에서 비용을 댔어요.

참가자 :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김대륜이라고 합니다. 조주연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외달도 사례 얘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공공사업, 공공예술을 하면서 주민 분들이 어떤 자선사업 같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저 역시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게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못돼서 그런 건지, 원인이 궁금합니다. 어떤 맥락의 이야기였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조주연 : 공공적으로 의도한 사업들 가운데 의도한 목표를 벗어나서 역효과를 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지역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진 공공사업들이죠. 각각의 목표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공공사업들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예산도 주고 정책도 정리해서 끌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표에 대부분 도달을 못하죠. 당연히 중앙정부가 목표시가 외달도 지역의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사람들의 관계, 또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일부러 깨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세금을 넣으면서, 김대중 정부 때 전라남도 쪽에 그런 경제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의도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역효과) 결과를 낳게 된 건데, 제가 '집단 우울증' 이라고 표현 한 것은 뭐냐 하면, 섬에 살았던 오래된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오래된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한 3~4년 동안 정부가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관계나 습관, 이런 것들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런 충격이 이 작은 마을에서 있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섬에서 논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개간을 해서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런 섬에서 사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평당 5천 원 씩에 사들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백운면에 행정구역은 9개인데 20명의 이장이 있어야 사업이 돌아간다는 말처럼, 외달도 땅을 목표시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등기가 안 되어 있던 땅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경작을 해 왔던 땅이었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은 보상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한 할머니는 땅을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행정적으로 딱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서 행정공무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장은 다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민들을 다 만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주민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개발 사업에 동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민과 관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죠. 그 동네에서 이장이라고 하는 분은 한 다리 건너면 아저씨뻘 되고 이랬을 텐데, 그 안에서 주민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과정이 한 3~4년 내에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친족관계, 사람들 관계 이런 것들도 깨지고, 서로 싸우고,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도 안하고, 그 과정 때문에 마을 전체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참가자 : 사업의 성격 상, (실행자가) 계속 거기서 같이 살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동기가 될지, 받아들이는 분들이 최대한 기대를 안 하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명훈

발표) 예술의 경우, 그런 것을 ‘하향평준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종의 ‘타협’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들도 욕먹기 싫으니깐, 다 좋은 얘기 듣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이 좀 궁금했어요. 우울증이라고까지 하니깐 어떤 일이 벌어졌나하고요.

조주연 : 아까 그 얘기, ‘홍보의 부족이다.’ 이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맥락이지요. 마지막에 청계천 얘기도 했는데, 사실 마을만들기 같은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면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단기간 내에 공공(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끌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전에 그런 것들을 막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어가 ‘홍보’ 인거죠.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해버리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나라고 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도.

박혜강 : 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연구에 있어서) 예술작업의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맥이 없는 게 아닌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예술이라는 말을 지워도, 그것을 예술의 맥락에서, 예술의 네러티브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권상구 이사님께서 일련의 해 오신 작업을 누군가는 ‘그것이 굉장한 예술적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나라고 하는 네러티브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예술가도 그렇고, 기획자도 그렇고, 많이 소심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범위를 너무 제한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주연 : 저는 김경만 감독님께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서두에 자료를 사용을 하는, 자료 화면을 사용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신다고 하셨는데….

김경만 : ‘자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조주연 : 특히나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기록을 활용해서 다른 것을 읽을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지금의 소통을 하는 것인데….



김경만 : 사실은 국가가 제작한 프로파간다 목적의 필름들인데, 그런 목적에 너무나 배반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그 때 당시에는 포착이 안 됐던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제가 <각하의 만수무강>이라는 단편을 만들었는데, 이승만을 기록한 뉴스 릴에서 많이

가져 왔어요. 당시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죠. 이승만의 생일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서울운동장 같은 곳에서 (생일축하)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런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 이상스러운 광경인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던 건국의 아버지, 민주주의의 시초처럼 생각을 했던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갔었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다른 부분들에 또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군이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어떤 디테일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옛날의 공간이나 어떤 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미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게….

박혜강 : 감독님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김경만 :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필름들 자체가 워낙 프로파간다적인 목적이고 이게 권력이라서 당연히 서울 중심의 촬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주연 :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권력이 ‘미래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50년 후에 그걸 읽는 사람들이 바보로 알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해서 남기면, 후세에서 그렇게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김경만 감독님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과거의 것을 지금 읽어 봤을 때, 그렇게 되듯이, 그건 그 시대에 읽는 사람의 몫으로 배반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사죠?

김경만 : 물론인데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 몫을 하는 것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지배적인 그런 정치 매체와는, 그런 것과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대를 바보로 알거나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지배적인 결론에 대한 어떤 반대 증거? 그런 것들을 슬쩍 제가 끼워 넣는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 말고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결론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견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가자 : 저는 이명훈 선생님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지역연구를 기반으로 한 예술에서 좀 더 엮지 있는 비평, 비평의 활성화랄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령 제가 인천에 있는 레지던시 기관에서 행정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4년 동안 지켜봤을 때, 다양한 지역에서 인천의 어떤 것을 리서치 하겠다고 이미 주제를 정하고 입주를 하거나 오거든요. 그러면 가령, 인천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미 형성된 상태로 와서 리서치를 하고, 그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불쾌한 부분도 있고요. 저걸 그 사람이 작품화해서

어딘가에 또 얘기를 하겠죠, 작품으로서. 그랬을 때 그게 인천의 모습으로 비칠 텐데, 과연 이런 식으로 났을 때, 이명훈 선생님께서는 순천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순천을 바라보고 작업을 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 비평의 중점을 무엇으로 뒀야 할지, 정말 멋지게 작업을 했다, 작가의 시선으로 작업을 했다고 봐야 할지. 이 지역을 제대로 봤다는 그런 시선으로 봐야 할지 약간 기준이, 어떻게 비평을 해야 할까요?

이명훈 :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하다기 보다는, 뭔가 대표화된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과 얘기 하시고, 인천은 어떤 이미지, 광주는 어떤 이미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강하고 썬 도시 일수록 약간의 선입견들이 잘못된 작업방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가가 뭘 할까라고 구상을 할 때, 작업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잘못된) 선입견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으로 완료 되어 버리는 작업이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것이 재반복 되고 어딘가에서 재생산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작가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만약, 작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작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고 둘러보니까 '그게 나의 선입견이었다' 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다' 라든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 아니면 그것이 뒤바뀐 '전환'에 대해서 얘기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비평의 영역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큐레이터, 요즘엔 뭐 창작공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큐레이터보다는 매니저라는 개념을 많이 두는데요, 작가가 지금 누구하고 어떤 소통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비평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사실은 돈키호테에서 진행됐던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작가와의 계속되는 이야기였어요. 작가가 오면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작가가 간접적으로 순천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고, 아니면 그 작가를 통해서 저희가 순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바꾸기도 하죠. 이런 어떤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만약 (전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뭔가 풀어내지 못한 채로 작업이 완료돼 버렸다면, 그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엄밀하지 못한 어떤, 관리가 잘못됐거나 매니지먼트가 잘못 됐거나, 어떤 프로그램 부족이었거나, 대화의 참여에 있어서 성의가 없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의 이미지가 워낙 5.18이라든지 민주항쟁으로 너무 각인되어 있어서 웬만큼 작가들이 관련된 작업을 출발로 삼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이 자칫 그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큐레이터든 아니면 매니저든 뭔가 계속해서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 계속 개입을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가자 : 그러면 '비평' 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란 '하향평준화' 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다른 관점인가요?

이명훈 : 지금 미술 같은 경우는 어떤 노동 집약적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성으로 작품을 하지 않고, 굉장히 작품에 쏟아 붓는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게 쎬요. 그래서 그만큼 내 작품에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다는 식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중시하는 예술에서는 그 과정보다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라는 거죠. 내가 한 번 두 번 해서 끝내는 그런 리서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본질적인 문제, 내가 애초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찾으려고 했던 것을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에 대한 노동 집약이 저는 과정으로서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 커뮤니티 영역에서의 단기성의 작업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갈 수 없게 만드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뭔가 나올 수 있었는데, 끌어낼 수 있었는데 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완료 지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향평준화 시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대중들의 요구나 아니면 그 사업을 내려주는 어떤 기관의 위치에(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타협’ 이라고 했는데, 타협의 지점을 좀 높이면 사실은 상향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 * *

박해강 :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아쉽지만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모색과 실험을 이어나가길 바라고, 작업에 대한 비평도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술공간 돈기호테 2015. 7. 발행 www.art8013.net

*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아 발간되었습니다.